

# CNU 행복한 강의실



이 테마북은 전남대학교 홍보실이 기획하고,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해 만든 전남대학교 구성원들의 공동 집필 홍보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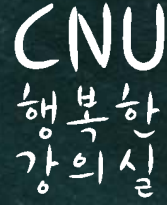
‘CNU 행복한 강의실’은 전남대학교의 알찬 교육 현장과 구성원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담은 테마북입니다.  
학문으로 소통하는 강의실 풍경과 사제가 함께 나눈 전공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제가 나눈 전공이야기는 전남대학교 89개 학과(부) 중 47개 학과(부)의 교수와 학생이 직접 쓴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일 2010.12.  
발행처 전남대학교 기획처 (홍보팀)  
발행인 김윤수 (총장)  
편집인 서순팔 (기획처장)  
기획 박세중 (홍보팀장)  
편집디자인 엔터\_062-236-2110 / 디자인 김금란  
취재 정신희, 강현미 | 사진 박성배 | 일러스트 홍원표  
인쇄 성우애드컨\_02-890-0900  
홈페이지 [www.jnu.ac.kr](http://www.jnu.ac.kr)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저작권은 전남대학교 홍보실과 공동 집필자들에게 있습니다.  
글과 사진은 저작권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할 수 없습니다.

2011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ME BOOK 1

CNU  
행복한  
강의실



CONTENTS

프롤로그

1부\_ 행복한 강의실

◎ 행복한 강의실 08

독일언어문학과 조길예 교수의 <문학과 영상예술>  
물리교육학과 박중원 교수의 <일반 물리>  
경제학과 홍덕기 교수의 <영화로 보는 세계경제사>  
앞서가는 지역연구 <사회학파>

2부\_ 사제가 나누는 전공이야기

◎ 본부종합학부 24

자율전공학부(이경숙 교수/황유리 학생)  
생명과학기술학부(채호준 교수/김현지 학생)

◎ 공과대학 28

건축학부(오세규 교수/이채원 학생)  
토목공학과(하태준 교수/장혁재 학생)  
환경공학과(박승식 교수/신동명 학생)  
에너지자원공학과(이중운 교수/안부용 학생)  
기계시스템공학부(우병수 교수/황성택 학생)  
신소재공학부(임원빈 교수/이상훈 학생)  
전자공학전공(임영석 교수/장소정 학생)  
컴퓨터공학전공(김철홍 교수/찬성심 학생)  
소프트웨어공학전공(김수형 교수/고재정 학생)  
응용화학공학부서 곤 교수/이세웅 학생  
산업공학과(이준웅 교수/방현주 학생)  
전기공학과(임영철 교수/허정 학생)

◎ 농업생명과학대학 52

산림자원학부(안기완 교수/김영미 학생)  
조경학과(조동범 교수/서은주 학생)  
바이오에너지공학과(안성주 교수/안다희 학생)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윤광식 교수/천건석 학생)  
농업경제학과(조규대 교수/정문수 학생)

◎ 사회과학대학 62

정치외교학과(박의경 교수/정은선 학생)  
사회학과(박해광 교수/양성렬 학생)  
심리학과(김문수 교수/이겨레 학생)  
문헌정보학과(정준민 교수/정현미 학생)  
신문방송학과(이오현 교수/노승용 학생)  
지리학과(박정재 교수/윤원재 학생)  
인류학과(김경학 교수/송아름 학생)  
행정학과(송충근 교수/진이지 학생)

◎ 생활과학대학 78

생활환경복지학과(이정화 교수/권수영 학생)

◎ 인문대학 80

국어국문학과(이진호 교수/신동원 학생)  
영어영문학과(민태운 교수/박가을 학생)  
독일언어문학과(김홍선 교수/이인정 학생)  
불어불문학과(히영동 교수/이수진 학생)  
중어중문학과(이등연 교수/공기영 학생)  
일어일본학과(정승운 교수/김명지 학생)  
사학과(김병인 교수/정유선 학생)  
철학과(김양현 교수/김수중 학생)

◎ 자연과학대학 96

수학과(주형관 교수/손예지 학생)  
통계학과(박정수 교수/허진 학생)  
물리학과(강기천 교수/문준 학생)  
지구환경과학부(노열 교수/박계룡 학생)  
생물학과(황성진 교수/황태호 학생)  
화학과(우희권 교수/김정준 학생)

◎ 문화사회과학대학 108

국제학부(양승갑 교수/이나래 학생)  
경상학부(강영문 교수/김영미 학생)  
문화콘텐츠학부(김경수 교수/이현리 학생)  
시각정보디자인학과(윤재성 교수/박수빈 학생)

◎ 수산해양대학 116

해양경찰학과(박달현 교수/김대욱 학생)

Dream Supporter CNU

◎ 특별한 교육시스템 120

학·석사연계과정, 지름길로 가는 고석일 학생  
복수전공으로 양날개 단 조은아 학생  
전과로 새로운 꿈 찾는 천민주 학생

◎ CNU 일찬 교육 전남대학교 126



# 전남대학교는 행복한 강의실을 꿈꾼다

## 아름다운 풍경

학문에 대한 열정과 사제 간 정이 흐르는 강의실은 대학에서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전남대학교는 2010년 첫 번째 테마북에 전남대학교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다. 신선한 지적 자극을 주기 위해 밤을 밝히는 교수들과 그들만의 독특한 교수법,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과 배우는 즐거움을 1부 '행복한 강의실'에 실었다. 2부에서는 '사제가 나누는 전공이야기'로 보다 적극적인 학문적 소통을 시도했다. 전남대학교 89개 학과(부) 중 47개 학과(부)의 교수와 학생이 직접 쓴 전공소개와 전공을 공부하는 재미를 엮었다.

## 당신은 행복한가?

전남대학교 강의실 풍경과 함께 사제가 나누는 전공이야기를 묶은 것은 전남대학교를 전남대학교답게 하는 것이 전공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대학생살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선택은 전공이다. '내 자질과 관심사는 무엇인가'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녹아있는 선택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전공선택이 그렇게 진지하고 치밀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내 선택이 현명했는가'라는 질문에 다행히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하다.

전남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모두가 현명한 선택의 첫 단추를 채울 수 있도록 안내하자는 취지에서 '전공이야기'는 시작된다. 또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 하듯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매력덩어리 전공에 무심한 재학생들에게 그 매력을 환기시켜 주자는 목적도 있다.

## 전공, 그리고 오해

‘행복한 전공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전공에 대한 오해들을 먼저 풀어야 한다. 그 오해 중 대표적인 것은 학문의 영역을 학과명으로 어림짐작하는 것이다. ‘지리학은 땅에 대해 배운다.’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책을 정리하고 빌려주는 방법을 배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일부다. 학과명으로 짐작하기에 학문의 세계는 훨씬 광범위하고 유기적이다.

심리학 전공자에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봐요” 라거나 전자컴퓨터공학부 학생에게 “우리집 컴퓨터 좀 고쳐줘”라고 말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실례다. 그들이 배우는 것과 무관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전공에 관한 또 다른 오해는 특정 직업과 학문을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국문과 나와서 작가 안하면 할 게 있나’ 라는가 ‘행정학과 나왔으니 공무원 시험으로 승부를 내야지’ 한다면 두 과의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좀 더 넓은 눈으로 학문과 그 학문의 진로를 볼 필요가 있다.

## 운명 혹은 우연

유전자가 부르듯 자연스럽게 전공을 선택한 이들은 행운아다. 생활에 필요한 기계는 물론 농사짓는 데 필요한 기계를 만들어 쓰셨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이들은 자연스럽게 기계 만드는 일에 빠져들었고,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되었다. 어린 시절 환경 애니메이션을 즐겼던 소년은 환경공학과에 진학해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처럼 ‘지구를 지키기 위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익숙한 것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공에 연결된 경우다.

선망하는 직업에 대한 갈망이 전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직업을 갖고 싶었던 소년이 신문방송학과 문을 두드리고, CEO를 꿈꾸는 소녀가 택한 전공은 산업공학과다. 갈망이 전공으로 이어진 경우이니 강의 시간에 두 눈 반짝이지 않을 수 없다. 확신 없이 전공을 선택했지만 전공의 진가 혹은 자신과 딱 맞는 공감을 발견한 경우도 전공을 공부하는 재미가 뒤지지 않는다. 딱히 마음 가는 과가 없어 망설이다 신설과인 바이오에너지공학과를 선택한 학생은 방학동안 내내 박혀 있었던 실험실에서 전공의 맛을 제대로 알았다. 처음엔 몰랐지만 알면 알수록 새록새록 해지는 것이 전공 사랑인 것이다.



## 함께 가는 길, 학문

학문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멀게는 인류가 축적해놓은 지적 토대에 빛지는 것이고 가까이는 전공인 분과 학문 선배들의 연구업적에 기대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같은 전공을 공유하는 이들이 격려하면서 함께 걷는 길이다. 그 길에 든든한 후원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전남대학교의 교육지원시스템이다.

대입시험 점수에 맞춰 원하지 않았던 전공을 선택한 산림자원학부 학생은 ‘이뻏고 - 교학상장’을 통해 나무와 함께하는 보람 있고 뿌듯한 삶을 많이 접한 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나무’의 의미를 느끼는 임학도가 되었다. 현대사회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에 흥미를 느껴 전기공학도가 된 학생은 입학 후 바로 학과 내 학술소모임에 가입해 선배, 친구들과 밤을 새워가며 배운 이론을 발명품으로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다.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강한 에너지자원공학도는 교환학생프로그램을 이용해 인도대학에서 시야를 넓히고 호주와 베트남에서 초빙된 외국인 교수들의 강의를 통해 세계인재로서 토대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다. 아하! 학습공동체, 독서토론공동체 등 학문공동체들을 통해 함께 부대끼면서 걷다보면 어느새 학문의 길은 넓어진다.

## 전공, 변할 수 있다

‘한 번 선택한 전공이 어떻게 변하니?’라고 말한다면 전남대학교의 교육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전남대학교에서 전공은 변할 수도, 두 개가 될 수도, 시간을 두고 고민하다가 택할 수도 있다. 공부하다 보니 ‘이전공이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 전과시스템을 통해 재학중 1회에 한해 옮겨갈 수 있다. 보다 폭넓게 공부하고 싶다면 복수 전공 시스템을 통해 또 하나의 전공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폭넓게 공부해서 딱 맞는 전공을 택하고 싶다면 아예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하는 방법도 있다. ‘행복한 강의실’ 속에 그 비법과 경험자들의 이야기가 함께 실려 있다.



# 01

## 행복한 강의실

신선한 지적 자극을 주기 위해  
밤을 밝히는 교수들과 그들만의 독특한 교수법,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과 배우는 즐거움.  
전남대학교의 아름다운 소통을 '행복한 강의실'에 담았다.





## 문학과 영상 어떻게 소통하는가?

영상으로 문학 읽고, 영화분석과 제작 곁들이는 복합 수업

물고 답하기의 연속이다. “이 사람은 이 장면에서 왜 그랬을까”, “나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첫 샷은 어떻게 시작할까.”  
상상력과 지식, 감성과 호기심을 총동원해서 문학 작품을 읽고, 이것이 영상언어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탐구하는 시간이다.  
조용조용하지만 사람을 뿔아들이는 특별한 아우라,  
조길예 교수님의 <문학과 영상예술> 강의를 ‘물입의 즐거움’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린다.



### ‘물고 답하기’ 끊임없는 상호작용

“이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막스 프리쉬의 소설 <호모 파버> 1부의 분석은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교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감정이 없고 통계만을 맹신하는 주인공 호모 파버가 비행기 불시착으로 멕시코 마야 문명 유적지에서 원시자연을 경험하는 부분이다. 해당 챕터를 읽은 뒤에 생각나는 단어, 인상적인 문장, 인물의 심리, 무엇이든 그날의 이야기 주제가 된다.  
텍스트 속 ‘수레바퀴’ ‘피라미드’의 의미를 유추해보고 이 문장에서 왜 시점이 바뀌었는지, 이 부분을 영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콘티로 구성할지, 작품을 빈틈없이 파헤쳐 간다.  
“텍스트를 읽을 때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메모해서 붙여두세요. 순간적인 ‘영감’은 금방 사라집니다. 꼼꼼하게 굵히고 되새기면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해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호모 파버> 전체 분석이 끝나면 이 소설이 영화 <사랑과 슬픔의 여로>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감상하고 토론하게 된다. 원작에 없었는데 영화에 새롭게 도입된 부분을 작가의 문체로 소설화 해보면서 두 매체 간을 오가는 연습을 하고, 각종 촬영 효과와 조명·음향 결합 방식을 분석해보며 영화언어를 익힌다. 이후 똑같은 방식으로 <양철북>,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분석해 조별로 발표하고, 영상을 감상한 뒤 문학과 영화를 비교 토론하는 것으로 한 학기 강의가 마무리된다. 세 작품 모두 인간 내면에 대한 성찰, 자연·문명에 대한 문제의식, 제도와 관습에 대한 비판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독문학의 대표작품들이다.



### 行间 읽기와 완벽한 공감의 순간

수강생들이 이 강의의 인상적인 부분으로 꼽는 것은 ‘교수님만의 특별한 분위기’다. 경험담이나 개인적인 감상을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날의 주제와 연결시켜 학생들을 수업 속으로 끌어들이는다.  
“이번 챕터에서 나를 가장 매료시킨 문구는 바로 이거예요.”  
마야 문명이 50년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근거지로 떠났던 것에 대해 ‘의미 있고 독창적이고 사려 깊은 행위라 여긴다’는 부분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0년 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가정보도 안정된 나이가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쉽게 떠날 수 있을까? 작가는 왜 그것을 ‘의미 있고 독창적이고 사려 깊은 행위’라고 했을까?”  
학생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슬쩍 건드리며 행간을 통해 자연, 삶, 소유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읽게 한다. 작품이 품고 있는 공기와 정서를 깊이 이해하면서 동시에 나는 어떠한가 뒤돌아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느껴진다.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소설 속 인물을 사랑해보라’는 것. 하나의 캐릭터로서가 아니라 영혼을 갖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집중해보라고 권한다. 모두 함께 인물의 마음 골짜기 골짜기를 탐험하고, 다시 감독의 눈이 되어 텍스트를 영상으로 옮기는 상상을 해보기도 한다.  
수업 중에 대화가 깊어지다가 어느 순간 수강생 모두가 같은 공기에 싸이는 듯한 ‘완벽한 공감’의 순간이 올 때, 교수님은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 영상세대에게 그들의 방식을

교수님이 문학작품과 영상을 연결하는 강의를 구상한 것은 90년대 후반부터다. 텍스트보다 영상이 더 익숙한 세대에 맞는 새로운 강의방식을 고민했다. 그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영상언어를 읽고 그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개설한 강좌가 교양과목인 <영화로 보는 세상>이었고 전공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문학을 이해하고 이것을 영상화 하는 건 참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영화 속의 영상언어를 제대로 읽고 그것을 다시 소설로 옮기는 연습도 해 봐야 하죠. 문학과 영상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능력은 사회활동에서도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2006~2008년에는 텍스트의 한 부분을 직접 UCC영상으로 제작해보고 이것을 실제 영화와 비교해보는 작업도 겸했다. 친분이 있던 청소년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수강생 전체가 영상제작 기술을 배울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즐겁고 박찬 작업”이었다. “스스로 콘티를 짜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촬영, 편집하는 과정은 강의 내용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력을 키워줍니다. 많은 강의에서 응용 가능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 내에서 영상제작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참 아쉽습니다.” 지금은 여러 사정상 기초교육원의 ‘영상 편집’ 특강만을 강의 시간에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 영상제작 교육프로그램들을 적극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교수님의 개인적인 바람이다.

### 강의는 교수·학생의 공동 작업

〈문학과 영상예술〉은 독일언어문학과 전공이지만 타 학과생에게도 문이 넓게 열려 있다. 서로 다른 전공과 특성을 가진 개개인의 의견이 더해지는 만큼 더 풍부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작품을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의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질문과 대답에 따라 강의내용이 달라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죠.” 교수님은 가상대학(e-class)을 수업의 연장이자 수준 높은 배움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촬영기법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학생이 있다면 나름의 시선으로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올리기도 하고 수업시간에 못 다한 토론도 이어간다. 이 공간은 학생들 스스로 서로를 가르치는 장이며 실제로 이를 통해 얻는 교육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 교수님의 생각이다. “인문학 강의를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성찰의 깊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위기의 시기를 맞고 있어요. 자연과학의 발달과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인문학 사이의 격차를 대학에서 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인문학의 역할이 대단히 소중한 시기입니다. 탁월한 한 개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다수 대중들이 이런 시기를 꿰뚫어보고 스스로 답을 찾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개 강의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이 이런 역량을 갖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매 학기 선정된 텍스트 주제에 따라 토론 내용이 달라지지만, 교수님 강의를 지향하는 공통된 목표가 있다면 그건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갖는 것이다. 문학과 영화를 읽고, 나와 세상을 읽는 이 강의, 함께 읽어 볼 생각 없는가.



### 학생들이 말하는 〈문학과 영상예술〉 강의 참맛



나은주 독일언어문학과 4학년

#### 새롭게 배웠어요

교수님의 강의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듣게 됐어요. 영화의 다양한 효과가 영상을 제작할 때와 감상할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영상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의 영화 언어를 찾아서 그 의미를 ‘읽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어요.

#### 교수님이 원하는 학생

교수님께서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학생을 원하세요. 교수님의 이공과 함께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각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려주는 수업 방식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죠. 학생들과 교수님 간의 이런 소통이 수업에 더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 수업 이전 VS 이후의 나

취직, 학점 같은 개인적인 걱정 때문에 주변이나 환경, 사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품 속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작품 속에 나오는 인간과 사회, 제도적·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일들을 교수님의 생각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살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나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에 답을 제시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나은주 영화 언어를 찾아서 그 의미를 ‘읽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어요.

배윤경 수업이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토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질문과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배윤경 생명과학기술학부 2학년

#### 이 강의를 듣는 이유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였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를 보고 고르게 되었습니다. 작년 1학기에 ‘독일명작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을 수강했어요. 시, 소설 등 문학의 전반적인 영역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문학에 매료되었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보다 심층적인 지식을 얻고 싶어서 독일언어문학과 전공과목을 선택하게 됐어요.

#### 특별한 강의 방식

수업이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토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질문과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다양한 생각도 접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가상대학 토론방을 이용해서 각자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강의 자체도 참 특별하잖아요. ‘문학과 영상예술’ 이라니! 심층적인 텍스트, 영화 분석과 함께 촬영기법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 비전공자에게도 추천해요

나와 내 인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계기가 됐어요. 독문학적 의미가 있는 작품들을 다루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었어요.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습니다. 독문학이나 소설의 영화화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요. 정말 기억에 남는 강의가 될 거예요.



## 호기심 천국 물리의 세계

다양한 상황실험으로 원리를 잡는다

호일로 휴대폰을 싸면 통화가 될까, 안 될까? 번개가 칠 때는 나무 밑이 안전할까, 차 안이 안전할까? 전자레인지 투명창에는 왜 철판무늬가 있을까?  
알 듯 모를 듯 헛갈리는 생활 속 의문들이 모두 물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는지. 눈앞에 펼쳐지는 신기한 물리의 세계에 탄성과 환호가 가득한 이 강의, 배움의 감동을 주는 과학 교사를 꿈꾸게 하는 이 강의, 박종원 교수님(물리교육학과)의 <일반 물리> 시간이다.

### 오늘은 어떤 걸로 놀라게 해주실까

사범대 4호관 1층 계단 강의실. 물리·지구과학·화학·생물 등 과학교육부 1학년 학생들의 전공수업인 <일반 물리> 풍경은 참 특별하다. 강단 주변에 알루미늄 호일과 종이판, 엠프 등 정체를 몰라본 물건이 가득하고, 학생들 사이에는 '저게 뭘까?' 호기심의 술렁임도 커진다. 오늘은 전하와 전기장에 관한 강의다. 속이 친구, 속이 빈구, 무한선전하 등의 내부·외부 전기장을 구하는 복잡한 식 계산이 이어진다. 그러다가 '속이 빈구의 내부 전기장=0'이라는 식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는지 바로 시범이 시작된다. "자, 이 호일로 휴대폰을 싸면 통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박종원 교수님이 웃음 가득한 얼굴로 한 학생의 휴대폰을 호일로 감싼다. 이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자 신호는 가지만 벨소리도 울리지 않는다. 알루미늄 호일은 표면으로 전기가 흐르는 도체이면서 무언가를 감싸면 속이 빈구 형태가 된다. 이때 호일 안쪽의 전기장은 0, 즉 휴대폰으로는 전파가 전달되지 않는다. 방금 배운 원리를 눈앞에서 바로 실험으로 보여주니 어렵게만 생각했던 물리가 결코 확 다가오는 느낌이다. 이번엔 알루미늄 호일로 나무 밑에 선 사람, 차에 탄 사람 모형을 만들어 불인 종이판이 등장한다. 이 사람들 위로 번개가 친다는 가정 하에 3만 볼트의 전류를 흘려보낸다. 나무 밑에 선 사람 머리 위 발광 다이오드에 번개 치듯 반짝 붉은 불이 켜진다. 순간 '와~' 터지는 감탄사. 자동차에도 똑같이 전류를 흘려보내자 차 지붕에만 불이 들어 오고 차안에 앉은 사람은 이상이 없다. '와와~' 더 커지는 함성. "자동차는 번개를 맞아도 전기가 차의 외피인 금속 부분으로만 흘러서 땅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내부의 사람은 안전해요. 그러니까 번개가 칠 때는 나무 밑으로 가지 말고, 차로 달러가야죠? 대신 차 안의 금속에 손을 대면 된다,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유머러스한 설명이 이어진다. 자극히 일상적인 현상 속에 숨어있는 물리 개념을 설명해주는 '상황속의 물리'는 일명 '물포자(물리를 포기한 자)'도 눈이 번쩍 뜨이게 할 만큼 흥미롭다.



### 눈에 보이는 물리, 손에 잡히는 노하우

교수님이 강의에 시범을 적용한 건 1992년 무렵부터다. 미국, 일본 등 외국 학회에서 첨단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시범을 보고 큰 자극을 받았다. '딱딱하고 난해한 학문'이라는 명예를 쓴 물리를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실생활과 연관 지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곧바로 현직 과학교사들과 함께 '교사연구회'를 만들어 운영했고 실제 강의에도 도입하기 시작했다. 예비 과학교사인 수강생들을 위해 동영상과 시뮬레이션, 직·간접 체험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했다. "학생들이 물리를 좋아하게 하고 싶어요. 자연의 기본법칙을 이해하고 이것을 응용해보는 재미에 빠져보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사가 되어서도 중고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과학을 좋아하느냐, 아니냐는 교사의 역량이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시험문제도 실제 수업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어떤 현상이나 공식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시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오개념을 잘 설명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등을 묻는다. 때론 어려운 공식도 외어야 하고 머리 복잡한 계산식도 풀어야 한다. "수학은 물리를 설명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강의 중에도 문제풀이에는 충분히 시간을 주고 모르는 부분은 1대1로 설명해준다.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자료를 다운받아 복습할 수 있다. 10여 년 전부터 '운영 중인 교수님 홈페이지'에는 교재와 문제풀이 과정, 시범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까지 올라와 있다. 화내는 일이라고 없을 것 같은 이 온화한 교수님의 강의시간에는 청강하러 온 3, 4학년과 타과생들이 뒷자리를 채운다. 이 강의가 물리의 참 매력을 일깨우고 실제 수업의 노하우를 전해주는 알짜 교육의 현장이라는 걸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시한번 깨닫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말하는 <일반물리> 강의 참맛



강예원 - 물리교육과 1학년

소문난 이 강의

박종원 교수님 강의를 좋다는 건 전 학년에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과 4학년 선배 중에는 다른 학교로 교환학생 신청을 하려다가 이번 학기에 교수님 수업을 들으려고 포기한 분도 있어요. 다른 과학교육과에 다니다가 교수님 강의에 반해서 물리교육과를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꼽는 최고의 수업

'돌림힘' 수업시간! 처음 보는 내용들이 많아서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수레바퀴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동그란 원형발판을 가져 오시더라고요. 공식을 증명해 주신 뒤에 바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발판에 직접 올라타서 보여 주셨죠. 팔을 접었다 폈다 하실 때 굉장히 귀여우셨어요.(웃음) 또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서 직접 바퀴를 돌리게 하면서 돌림힘을 느껴보게 하셨죠. 정말 그 수업은 감동 그 자체였어요.

교수님의 강의 포인트

교수님은 저희를 그냥 학생으로 보지 않고 예비교사로 대하세요.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여러분은 현장에 나가서 이걸 써먹을 사람들"이라고. 계산 위주의 문제 풀이보다 이런 식이 어떻게 나오고 또 이것을 일상생활에 어디에 응용하는지, 단순한 지식보다는 좀 더 원리에 다가설 수 있게 해주세요. 원래 물리를 좋아했지만 교수님 덕분에 사랑하게 되었어요.(웃음)

강예원 계산 위주의 문제 풀이보다 이런 식이 어떻게 나오고 또 이것을 일상생활에 어디에 응용하는지, 단순한 지식보다는 좀 더 원리에 다가설 수 있게 해주세요.  
 설영찬 가끔 하시는 몸개그도 모두 물리와 연관되어 있어요. 수업이 끝나면 재미있게 논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배운 내용은 잊을 수 없게 됩니다.



설영찬 - 물리교육과 1학년

참 특별한 이유

교수님 강의는 재미있어요. 공감하는 소재를 가지고 수업을 유쾌하게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이죠. 가끔 하시는 몸개그도 모두 물리와 연관되어 있어요. 수업이 끝나면 재미있게 논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배운 내용은 잊을 수 없게 됩니다. 저희를 사로잡은 이런 특별한 수업방식 때문인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듣고

고2때 물리 담당 최승희 선생님을 보며 교사의 꿈을 가졌어요. 처음 보는 수업방식과 반 전체를 휘어잡는 카리스마 때문이었어요. 대학교에 와서 최 선생님이 박종원 교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됐죠. 강의를 들 때마다 자부심을 느껴요. 자랑하고 싶어서 다른 학과 친구에게 칭찬하러 오라고 한 적도 있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훌륭한 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내가 꿈꾸는 물리교사

수학과 사고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물리라는 과목에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동화시키면서, 제가 물리를 배우면서 느꼈던 감동 그대로를 전해주고 싶어요. 실력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으로도 존경받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현상의 본질 보는 넓은 눈 길러주고파

전문용어를 어지럽게 늘어놓지 않고도 참 쉽게 물리 이야기를 풀어내는 교수님의 능력은 자연과 자연법칙의 본질을 좇아 동양철학에도 심취했던 지난 경험과도 연관이 깊다. 지금도 학생들이 수학 공식 이외의 텍스트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할 때 가장 안타깝고, 일단 어렵다고 느끼면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을 때 가장 속상하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강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도 있다. "물리 그 자체만이 아니라 물리가 과학·기술·사회와 어떻게 소통하며 발전하는지를 볼 수 있는 넓은 눈을 길러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 재봉틀의 발달이 여성해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첨단전자제품을 사용하면서 인간관계는 어떤 변화를 겪는지, 이런 것들 말이죠."

내년에는 학생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학과생들을 대상으로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을 진행할 계획이다. 길게는

인문대생을 위한 물리학 강의도 꿈꾼다. 미래의 경제인, 법조인, 행정인들도 자연과 사회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학적인 사고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의의 마지막은 전자회로에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기를 만드는 시범이다. OHP필름 두 장에 각각 호일을 붙여 서로 맞대고 돌돌 말면 대롱 형태의 평행판 축전지가 금세 완성된다. 이것을 건전지에 연결하고 앰프의 마이크 단자에 꽂은 뒤 대롱을 두드린다. '뚱뚱' 울리는 마이크 소리. '우와~~~~' 긴 감탄사가 쏟아진다. 콘덴서 마이크의 원리가 바로 눈앞에서 시연되는 순간이다. 이런 강의를 과학교육학부 학생들만 듣는다는 것이 아까울 정도다. 멀지 않아 전남대생 누구나 교수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게 만든다. '물리의 감동'과 함께 어느새 75분이 훌쩍 흘러가 버렸다. 매번 시범 때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며 빙긋 웃는 교수님이 이렇게 묻는 듯하다. '이래도 물리가 재미없니?'



# 어려운 세계경제사 영화로 만난다

경제틀로 영화분석 · 토론으로 생각 넓히기

영화로 공부한다는 말에 그저 '말랑말랑' 한 강의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영화 때문에 웃고 왔다가, 경제사 때문에 울고 간다"는 우스개 소리를 듣는 강의. 하지만 드라마 · 영화 · 다큐멘터리 등 풍부한 영상물을 활용한 토론형 참여 수업이 어느새 경제학의 매력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수강생 전원 발표 · 논문형 리포트라는 현실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이 난 이유다. 학생들이 스스로 각본을 쓰고, 연출하고, 연기하는 한 편의 영화 같은 <영화로 보는 세계경제사>. 홍덕기 교수님은 이 강의의 총제작자이자 '친절한 코치'이며, 평론가이다.



## 수강생 전원 발표 참여형 수업

세계경제사의 큰 흐름은 이 강의에서 다루는 영화들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 산업혁명기 영국 아동 노동의 모습을 담은 <올리버>, 대량생산시대 인간소외를 풍자한 <모던타임즈>, 최근 미국의 패권 주의를 비판한 <화씨91>까지, 자본주의 형성과 변화를 짚어보는 상징적인 영상들이다. 오늘의 영화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수강생들은 강의시간 이전에 가상대학(e-class)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온다. 발표자가 미리 준비한 발표 주제와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며 수업을 이끌어 나간다. 세 명이 각각 '찰리 채플린과 모던 타임즈', '영화의 메시지와 시대상', '테일러-포드시스템'에 관하여 10분씩 주제발표를 한다. 나름대로 영화 분석의 틀을 짜고 이것을 낯선 경제용어나 역사적 사실과 연결시키면서 학생들은 세계경제사에 대한 자기의 사고틀을 만들어간다.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발표 주제를 정하고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면서 창의력과 집중력이 발휘되고 학습능력도 높아집니다. 수강생 전원이 발표와 토론을 하게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죠."



일주일 세 시간 동안 한 영상을 다룬다. 2개조가 각자 한 시간씩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 뒤에 교수님이 나머지 한 시간 강의로 그 챕터를 마무리한다.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운 세계경제사의 흐름을 잡아주고 그것을 영화 주제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만 강의한다. "교수가 적게 말할수록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는 때문이다. 학생들에게는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을 말해봐"라고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

## 흥미 · 재미 · 의미 있는 학생중심 강의

학생 중심 강의 방식에 대한 교수님의 고민과 노력은 전남대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 되어 온 것이었다. 늘 호기심과 배움의 열정으로 눈을 빛내는 학생들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마치 TV를 구경하듯 수동적인 학생들을 어떻게 강의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출발점이었다. "국내외 교수법 책과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법 · 학습법 특강은 거의 찾아다녔지요. 결론은



학생주도로 발표 · 토론 · 논술을 적극 활용하고 가상 대학 강의와의 혼합형 교육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과목의 강의를 이런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 새로운 교양강의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다. 어렵고 원론적인 학문으로 낙인찍혀 인기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경제학의 '위기'도 한몫했다. '어떻게 학생들을 경제학으로 유혹할 것인가' 학과 전체의 고민이 시작됐다. 영상에 익숙한 신세대들에 맞게 매체를 사용해서 알기 쉽게 접근시키자는 의견이 모아져 2003년부터 <영화로 보는 세계경제사> 강의를 시작되었다.

"자적호기심을 끌어올리는 '흥미 · 재미 · 의미 있는 강의'가 목표입니다. 자기주장을 조리 있게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능동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하면서 상호소통과 협력작업의 소중함도 체험하게 되겠죠."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00년에는 경영대학 '교육우수교수', 2006 · 2010년에는 전남대 교육(최)우수교수로 선정되었다.

## '친절한' 글쓰기 지도와 피드백

이 강의가 또 하나 특별한 점은 글쓰기와 피드백. "학생들은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열망도 강하고 필요성도 느끼지만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조별발표나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양과목이고 수강생 대부분이 1학년이다 보니 논문 작성법을 배우거나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교수님이 직접 리포트와 논문 쓰는 방법도 강의하고 그 글쓰기 양식을 적용하는 리포트를 부과한다. 논문의 기본 구조와 조직화, 수정과 편집과정을 알려주고 저작권 존중과 관련하여 '표절'의 위험성도 지도한다. 조별 발표 뒤에는 꼭 15분 정도 주제와 파워포인트 구성, 토론 진행 스킬 등에 대해 정확하게 피드백 해준다. 교수님이 글쓰기와 피드백의 중요성을 느낀 것은 2001년부터 1년 반 동안 듀크대학 객원교수로 있던 시절이다. 함께 데리고 간 아들과 딸이 학교에서 작문이나 팀별 과제에 피드백을 받아오는

것을 보면서였다. 특히 중학생이었던 이들이 "선생님이 남의 글을 세 줄 이상 그대로 적는 건 표절이라고 했다"면서 공공대며 자기 생각을 채워 넣는 것은 적잖은 충격이었다. 서툰 글인데도 선생님이 꼼꼼하게 붉은 글씨로 체크하고 잘한 점을 칭찬해준 덕분에 아이들의 실력이 빠르게 향상 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제대로 된' 글쓰기와 '따뜻한 피드백'이 학습자에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저도 되도록 학생들의 잘한 점을 크게 칭찬해주고 고칠 부분은 두어 가지 정도만 딱 꼬집어 이야기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웃음)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준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때 보람을 느낍니다"

**배움과 소통의 즐거움 느껴보길**

세 학생의 발표가 끝나고 찰리 채플린의 작품세계, 탈 숙련화 테제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진다.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포드시스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입장과 개념을 명확히 할 것, 조 전체에서 전하려는 메시지를 간결화할 것, 수강생들과 어떻게 교감하고 토론 속으로 끌어들이 것인가를 더 고민했으면 한다는 교수님의 피드백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좀 색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수강생

전체가 발표조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 조 전체, 조원 한명 한명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잘한 점, 보완할 점을 적어서 전달한다. 때론 교수님의 평가보다 냉정하고 날카롭지만 독한 만큼 약이 된다. 교수님도 가끔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 학생 주도 수업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할 공부가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학점 관리의 압박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 공부하고 필요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쁨만큼 큰 것이 없다는 게 변함없는 생각이다. "영국 시인 존 메이스필드는 '대학은 이 자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어요. 배움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학생들이 내 강의시간을 소통과 지적 경이감을 체험한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영화로 보는 세계경제사>는 영화 속에 숨은 경제사적 의미를 읽는 통찰력을 기르고 많은 지적 영감을 주는 강의를 될 것이다. 조별발표 방법, PT기술, 리포트 작성법은 덩이다. 이 강의와 관련한 우스개는 이렇게 수정돼야 할 것 같다. '발표·리포트 때문에 울다가, 쌓인 실력 때문에 웃고 간다'로 그것도 '크게' 웃고 간다로.

나지수 영화속 시대배경과 스토리 안에서 경제사의 핵심 포인트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석준 교수님께서 강의에 파워포인트와 관련 다큐멘터리 등을 사용하시는데요 수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시는지 피부로 느껴져요.

**학생들이 말하는 <영화로 보는 세계경제사> 강의 참맛**



나지수\_미술학과 1학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경제학이 제 전공과 워낙 동떨어져 있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저 같은 학생들을 배려해서 쉽게 알려 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동 받았어요. 조별 발표에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그 속에서 장점을 찾아내 칭찬해 주시고, 앞으로 고치고 채워야 할 부분을 세심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교수님께서서는 학생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교수님이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

영화 속 시대배경과 스토리 안에서 경제사의 핵심 포인트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공부하는 재미를 알려주신다고 해야 할까요? '진짜 대학 강의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껴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멀게만 느꼈던 경제사를 이해하게 됐다는 게 큰 수확이죠. 그것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제가 낮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조별 과제를 하면서 다른 학과 학생들과도 친해지고 협동 작업이라서 좋은 점도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발표 요령과 ppt사용법에 대해 제대로 배워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앞으로 다른 수업의 조별발표나 프레젠테이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석준\_자율전공학부 1학년

**다른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강의**

제가 1학기에 강의를 들었던 교수님 중 한 분께 2학기에 신청하면 좋을 강의나 교수님을 여쭙 보았어요. 그 교수님께서 흥덕기 교수님 강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경제사 공부를 한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조별발표나 리포트 작성 방법 등 대학 공부의 기본을 배우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이 강의의 특별한 점**

조별 전원 발표와 꼼꼼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요. 팀별로 발표를 한 후에 꼭 토론을 하고, 끝나면 교수님이 피드백 해주세요. 이 피드백은 발표와 질문 능력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가상대학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수업 외에도 가상대학에 올려진 다양한 자료와 영상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에 파워포인트와 관련 다큐멘터리 등을 사용하시는데요, 수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시는지 피부로 느껴져요.

**누군가에게 이 강의를 권한다면**

'영화로 보는 세계 경제사'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강의가 아닌 것 같아요. 경제사에 대한 이해는 물론 팀별 작업과 토론 능력, 앞으로 필요한 프레젠테이션 능력까지 쌓을 수 있는 일석사조 이상의 강의입니다. 노력한 그 이상을 얻어갈 수 있어요. 꼭 들어 보세요.





# 학과평가 전국 1위 사회학과, 뭔가 다르다

‘지역 연구’로 지역대학 한계 넘다

전남대학교 사회학과가 전국 1위 명문학과로 평가 받았다. 최근 중앙일보 학교평가에서 사회학과는 ▲교육환경 ▲교수역량 ▲재정지원 ▲교육효과 등 4개 부문 13개 지표에서 전국 30개 사회학과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1억3591만3000원·1위)와 국내 논문 편수(2.4편·2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대학이라는 핸디캡을 ‘지역연구’라는 학문 특성화로 극복한 성과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사회학과로서 5·18과 민주화, 지역민 생활환경, 다문화가정, 농촌문제 등 다양한 지역사회 관련 연구·교육 사업을 진행해온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회학과를 전국 1위·명문학과로 도약시킨 힘은 우수 교수진을 중심으로 한 연구 전통, 전문인력을 키우는 체계적인 교육환경이다.

## 시대와 지역 이끄는 연구전통

### 5·18, 지역 혁신 연구

전남대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이 시작된 곳이다. 이 때문에 5·18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검토를 넘어 민주주의, 인권, 문화 등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억투쟁, 문화적 재현, 국가폭력 등의 주제는 사회학과가 제시한 중요한 문제의식이다. 현재도 ‘5월 운동 광주항쟁 부활의 역사’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여성, 이주 노동자, 장애인성, 수형자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소수자들의 현실과 운동사례를 탐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연구도 활발하다. 지난해에는 전남 무안군 주민의 생활환경과 만족도, 지역 브랜드를 조사했다. 주민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했고 친환경 생태도시를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밝혔다. 무안군은 이를 토대로 브랜드 이미지 등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재는 광양시 의뢰로 제철소 입주 후 기존·전입 주민들 간 갈등 해소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문화도시, 다문화 현상 연구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사회학과도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 정책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역 현지연구 전통이 만들어졌다. 전공 필수 과목인 <사회조사연습>은 직접 마을을 선정하고 학생들과 함께 마을 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다. 사회학 내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는 농촌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지역은 더 이상 고립되고 낙후된 곳이 아니라, 세계화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글로벌화의 대표적 현상인 국제결혼 이민 및 외국인 노동력 유입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다. 최근 5~6년간 이런 다문화 상황에 주목하면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지원센터 자원봉사, 국제결혼 기획기사 공동 작성 등 다양한 다문화 교육 및 연구를 진행했다. 나주시와 함께 결혼이민자 실태 조사도 하고 있다. 비엔날레, 각 지자체의 문화정책, 지역 축제 등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계속될 계획이다.

### 창의적 지역전문가 키우는 교육환경

지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 문제나 국제결혼 이주, FTA와 농촌문제 등 지역현안은 항상 지역적인 동시에 국제적이다. 따라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지역과 세계에 정통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전문가이다. 사회학과는 다양한 국제교류와 교육훈련을 통해 지역적이면서도 국제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문사회분야에서 한일 양국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연구자들의 교류를 위한 ‘한일차세대학술포럼’, 동아시아 젊은이들이 함께 역사·인권의식을 나누는 ‘동아시아평화인권캠프’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다. 동아시아평화인권캠프는 서울대, 전남대, 제주대, 동아대와 일본의 APU, 리츠메이칸 대학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 현실을 고민하는 학과내 소모임 학술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및 국·내외 NGO 인턴십과 교내 자체 사회조사프로그램에서는 현장 감각을 키워 지역 기획자 및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키운다.

대학원생들의 지역 연구도 활발하다. 사회학과는 2006년 두뇌한국(BK)21 사업자로 선정될 때 ‘창의적 지역전문가 양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대학원에 ‘지역사회연구’ 과목 등을 신설했고, 국제연수·학술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흐름에도 적응하게 하고 있다. 일본 아키타 대학의 다카무라 료헤이 교수, 중국 인권 활동가 탈프오지오 시, 프랑스 파리사회과학 고등연구원 정수복 박사 등 지역사례 연구에서 주목받는 저명학자를 초청한 콜로키움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성과로 박사과정 박경동 씨는 연륙교 개통 이후 관광지로 변모한 소록도에서 한센인 거주자들이 겪는 삶의 변화를 분석한 논문을 등재후보지에 실기도 했다. 사회학과 학과장은 “전국 1위 명문학과 명예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건강한 품성과 자질 계발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며 “지역현안 전문가로 잘 길러내 지역의 활력을 되살려내겠다”고 말했다. 또 “교수단의 상호협력연구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학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02

### 사제가 나누는 전공이야기

스승과 제자가 전공학문에 대해 함께 쓴 글을 엮었다.  
전남대학교 89개 학과(부) 중 47개 학과(부)의 교수와  
학생이 공동집필자로 참여해  
전공의 참맛과 전공 공부의 즐거움을 전한다.



# 학문 횡단형, 내 전공 내가 설계한다 자율전공학부

“ 스스로 다양한 잠재력을 주체적으로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문횡단형 교육을 지향한다. 단일전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생각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세계 곳곳의 문화와 글로벌한 마인드를 나누는 것부터 출발한다. ”



**이경숙 교수**는  
시드니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시드니대학 및 뉴사우스웨일즈대학에서 일하다가 2010년 전남대 자율전공학부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21세기 지구촌시대의 소통 전략에 대하여 가르치고 연구하는 데 사명감을 갖고 있다. 저서 <호주에서 살고 있는 한국 여성 이민자들의 직장 경험, 2009>, <호주에서의 한국인들의 50년 역사, 2008>, <유리천장 깨뜨리기: 관리직여성들, 2004>이 있다.

**황유리 학생**은  
많은 꿈을 가지고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했다. 지금은 자신이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을 정하기 위해서 교내·외적으로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자율전공학부는 이런 곳 - 이경숙 교수

“anyhow...” 내가 어떤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고자 할 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나는 겉 모습은 완벽한 한국인이지만, 속은 또한 완벽하게 외국인과 같다. 오랫동안 호주의 대학에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교에 입학할 때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강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과라는 이유로 전공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택은 학교생활 적응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2010학년도에 신설되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입학 후에 전공을 결정,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스스로 다양한 잠재력을 주체적으로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문횡단형 교육을 지향한다. 단일전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생각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세계 곳곳의 문화와 글로벌한 마인드를 나누는 것부터 출발한다. 처음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생경하고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체계적인 토론 수업을 통해 언어의 낯설음을 극복하고,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라마다 다른 문화적 ‘차이’는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일일생활권의 범위가 점차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며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흘렀다. 이러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 인재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스스로 설계-자율전공학부가 지향하는 교육은 이를 위한 훈련의 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해야 하는데, 이 때 지역사회나 단일국가에만 국한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몹시 제한적인 일이다. Anyhow,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자신이 가진 재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기초적인 역량을 기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자율전공학부에서 공부하는 재미 - 황유리 학생

“자율전공학부 황유리입니다.”라는 나의 소개가 끝나면 질문-“무슨 전공? 처음 듣는데..”, “뭘하는 과예요?”, “취직은 되요?”-이 쏟아진다. 처음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당황스러웠지만, 한 학기가 지난 지금은 막힘없이 이렇게 대답한다. “학문 횡단형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예요. 요즘은 한 분야만 잘해서는 안되잖아요. 여러 분야를 넓게 공부하는 장점을 지닌 과지요.”

어렸을 적부터 한 달에 한 번씩은 꿈이 바뀌어왔던 나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도 과 선택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훌륭한 여성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학과를 지원해야 했고,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해야 했다. 또한 이 두 분야뿐만이 아니라 국문학, 한국사 등 배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 탈이었다. 어떤 과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자율전공학부에 대한 소개가 눈에 띄었다. 4년 동안 자율전공학부에 소속되어 학생 스스로 전공을 설계하여 이수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복수 전공, 부전공



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보고 ‘바로 이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 자율전공학부의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우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했다시피 자신이 택한 계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끔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인문 계열의 학생으로서 자연 계열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 학과가 아니면 배우지 못했을 강의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로움이 더 크게 작용한다.

현재 우리는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해졌다는 의미이며,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와 기업은 어떠한 인재를 필요로 할까? 하루하루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창의적이고 넓은 시야를 가진 인재를 원한다. 자율전공학부는 다양한 학문을 접하며 공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주는 곳이다.

지금은 하나의 공통된 꿈이 아닌 각자 다른 자신들의 꿈을 향해 모인 80명의 1학년 학부생이 우리 과 구성원의 전부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 수는 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학과를 빛낼 인재들이 등장할 거라고 믿는다. 선배층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직 많은 것들이 미흡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과에 대한 애정으로 더 나은 자율전공학부의 모습을 갖추어 갈 것이다. 꿈에 대한 열정과 과에 대한 애정으로 부족한 점들은 차차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다음과 같은 명언처럼 말이다. ‘시작은 미흡하나 끝은 창대하다.’



- ▶학과 개설 2010년
- ▶교수진(전공 분야)
- 김경(대화학공학)
- 이경숙(경제학)
- 박정수(통계학)
- 이성(생물양고대사)
- ▶졸업 후 진출 분야
- 전문영역 진출
- (법학·의학·치의학·경영전문대학원 진학 및 약학대학 편입)
- 학문 후속 세대 양성(국내·외 대학원 진학)
- 국내·외 기관 및 연구소/유수 기업 취업

# 생명의 본질 탐구, 끝없이 진화한다

## 생명과학기술학부

“ 생명과학기술은 미래 지향적인 학문분야이다. 최근 가장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학문분야이기 때문에 오늘의 생명과학기술은 어제의 그것과 다르다.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진화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학문분야이기도 하다. 그래서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자들은 늘 바쁘다.”



**채호준 교수는**  
1996년부터 전남대에서 생화학을 가르치고 있다. 항산 화효소분야에서 손꼽히는 그는 생명의 본질에 대한 연구가 생명체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연구라고 이야기한다.

**김현지 학생은**  
전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다. 인류의 공통되고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하기에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 생명과학기술학은 이런 학문 - 채호준 교수

생명과학기술은 생명의 본질을 연구하여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학문 분야이다. 지구상에는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공존한다.

생명체는 각각 제 나름대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유지하기 때문에 고등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나 효소 등 생명을 유지하는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등한 생명체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대장균처럼 비교적 단순한 세균의 경우에도 생명을 유지하는 일개는 매우 복잡하여 현재 과학의 수준으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생명체는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연구의 기본은 다양성이다. 생명과학기술은 혈액에 존재하는 1pg (1그램의 1조분의 일) 이하의 생체물질을 검출하는 기술로부터 몇 톤 단위 발효조가 가동되는 공정기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포함한다. 연구 분야 또한 바이러스, 세균, 균류 및 동식물, 유전자, 효소, 바이오센서, 호르몬, 세포막, 면역체계, 노화, 암, 세포치료제 등 무척이나 다양하다.

생명과학기술의 경우 지역성이란 없다. 따라서 이 분야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라든가 아시아 최초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생명과학기술은 세계를 상대로 협동하고 경쟁하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이다. 생명과학기술은 미래 지향적인 학문분야이다. 최근 가장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학문분야이기 때문에 오늘의 생명과학기술은 어제의 그것과 다르다.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진화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학문분야이기도 하다. 그래서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자들은 늘 바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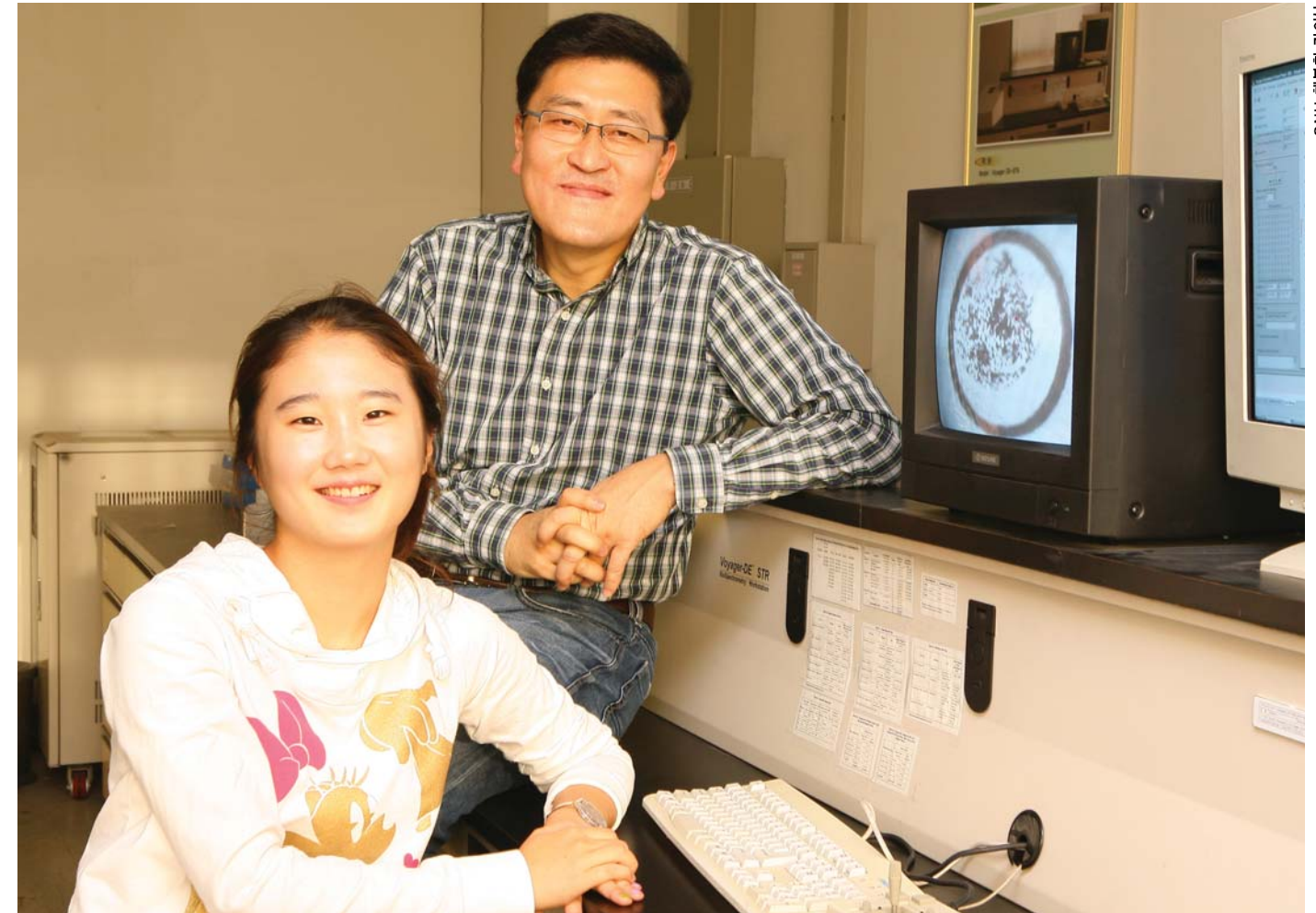
오래전 외국에 있을 때 재미과학자협회에 관여했던 경험이 있다. 다양한 분야의 재미 과학자 수백 명이 모여 행사를 하는데 중간 중간 자리를 비우고 실험실에 다녀오는 사람들은 모두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분야 연구자들이 다른 분야보다 특별히 부지런하거나 열심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연구의 특성이 그런 듯하다. 그렇게 해야 이 분야에서 좋은 연구 결과를 얻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셀(배양세포를 의미)들은 주말도 모르고, 공휴일도 모른다고 푸념을 하며 주말이나 야심한 밤에도 실험실을 들락거리지만 몇 초 후, 몇 분 후, 한 시간 후, 두 시간 후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끝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생명체에 대한 연구의 무한한 매력이기도 하다. 생명의 본질에 대한 연구는 생명체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연구일 것이다.

### 생명과학기술학을 공부하는 재미 - 김현지 학생

나는 전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이고 싶다. 이는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이루어 간다고 해도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꿈이 아니며, 꼬마들이 '저의 꿈은 우주정복입니다' 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현실로 이루기에는 어려운 꿈이다. 하지만, 인류의 공통되고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하기에 나는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생명과학은 어려운 학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생명과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



라 사회학이나 심리학과 같이 우리주변에 가까이 있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1학년 때 교내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제작자(PD) 활동을 했었다.

2학년 때는 우리대학 국제교류센터에서 주관하는 국외 언어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24주간 캐나다로 언어연수를 다녀왔다. 내가 캐나다에 있던 2008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1997년 IMF에 이어 두 번째 금융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캐나다 속에서 한국의 존재감, 한국 경제의 미래 같은 다소 무거운 주제들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길 바랐지만,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달러 소비를 줄이는 것이 전부였다. 그 때, 나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일은 새로운 biotechnology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금융위기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이유를 높은 외국 자본 의존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biotechnology를 수출해서 다량의 달러를 우리나라로 끌어들이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연수를 마치고는 전공공부에 집중했다. 학부 내 학술소모임을 통해서 토론하고 발표하는 방법으로 전공공부를 했다. 생명과학은 생체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주를 이루는 학문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이 공부는 끝이 날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미 밝혀진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시험은 잘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biotechnology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배워온 그리고 배우게 될 생명과학 지식들이 새로운 그 기술을 만들고 계획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 ▶ 학과 개설 2003년
- ▶ 교수진(전공 분야)
- 강형식(면역학)
- 김도만(기능성식품화학)
- 김정수(분자유전신경생물학)
- 류희영(생물정보리계)
- 박동현(생물화학, 환경화학)
- 박희세(세포신호전달)
- 배동규(분자생물학)
- 선우정신(생물반응)
- 소사목(분자유전)
- 오상진(미생물유전학)
- 유인수(의료생체기기)
- 윤철호(기능성단백체)
- 이귀숙(발생유전학)
- 이영철(미생물유전)
- 임옥빈(동물생리학)
- 전성영(영양생식)
- 정영희(식물분자생물학)
- 지연태(분자유전학)
- 채호준(생화학)
- 최용식(분자내분비)
- ▶ 졸업 후 진출 분야
-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학(전남대학 진학/생명과학기술 분야 전문 연구자(한국생명공학연구원/기초과학연구원 등)/ 생명과학기술분야 기업체 및 기업체 연구소(LG생명과학/CJ주/목암연구소 등) 생명과학기술분야 벤처기업/공무원(의학, 환경 분야)/중·고등학교 교직(과정생물, 화학·생물)

# 역사·사회·자연으로 공간을 짓는다 건축학부



## 건축공학은 이런 학문 - 오세규 교수

건축은 인간을 위한 환경을 만들지만 자연계 속에서 심신다. 인간의 존재가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은 건축의 배경이 된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생활공간인 건축은 지구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요즘엔 탄소배출량을 저감시키고 오염원을 만들지 않는 건축, 에너지를 최소화 하는 제로하우스(Zero House), 그린건축(Green Architecture)에 대한 기술들이 첨단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미래의 건축은 자연의 배경을 이해하고 솔라(Solar), 풍력, 수소, 바이오 등 신재생 자연에너지를 건축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

건축은 지속성을 갖는다. 과거에 세워진 건축물은 그 당시 사람들의 필요성과 지속하기를 기원하는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유럽의 도시들은 건축의 역사이기도 하다. 고대부터 중세,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와 현대에 이르는 건축의 박물관이다. 건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켜와 중첩을 만들고, 역사적 현상은 미래와 연결될 다리 역할을 한다. 건축 만큼 오래 지속된 것도 드물다. 시간의 역사를 만드는 건축은 위대하며 숭고하다.

건축은 사회적 산물이며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따라서 건축은 장소와 시간의 배경 속에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을 만들지 않는다. 건축은 독창적이며 사회, 경제, 문화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다. 건축가들은 항상 이러한 맥락 속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온갖 창의성을 발휘한다.

발휘한다. 현대의 도시는 유명건축가들의 창작건축물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이 만든 새로운 건축물들은 지속될 문화적 자원이며 세계의 관광객을 모여들게 하기 때문이다. 건축가는 그 시대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학, 경제학, 문화사, 제도나 법 등을 이해하여야 하며, 새로운 미래의 첨단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천문학, 기하학, 공학 등에 능통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이나 행태학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건축가를 아키텍트(Architect)라고 한다. 사전적으로 조물주를 뜻한다. 신은 인간을 창조했다면 건축가는 건축물을 만든다. 하나의 건축물은 건축가의 종합적이며 창의적인 마음에서 시작된다.

“건축은 사회적 산물이며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따라서 건축은 장소와 시간의 배경 속에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을 만들지 않는다.”

## 건축공학을 공부하는 재미 - 이재원 학생

건축학과를 오면 집을 위한 도면만 그리고 건물만 배우는 줄 아는데, 이는 정말 좁은 의미로의 해석이다. 건축가는 한 채의 집을 지어내기 위해서 그 주변세계를 파악해야 하고 배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하고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그 중 가장 좋은 답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주택이나 빌딩이 아닌 파급력이 큰 건물, 구조체를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의 경우, 건축물 하나의 파급력이 작게는 그 도시를, 크게는 그 국가, 세계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렇다면 건축과 학생들은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영화 '인셉션'에는 꿈을 설계하는 한 건축학과 학생이 등장한다. 완성도 높은 꿈의 구현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모델로 시각화, 형상화 시키며, 그 공간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토대로 일어날 사건들을 계획한다. 이런 장면들은 건축학과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만 건축이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려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건축학과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설계스튜디오에 들어가고 매일 학교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많은 과제와 씨름하며 가끔은 밤샘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힘든 작업때문에 해마다 건축학에서 공학으로 전공을 바꾸는 학생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매순간고된 작업을 계속하며 '건축'이 주는 마약과 같은 매력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토록 힘든 건축공부를 계속하는 걸까? 무엇보다도 건축이란 학문은 나의 관심사, 친구,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공부와 연계되어 자연스럽게 건축을 즐기게 된다. 나의 경우 영화 보는 것과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나의 취미는 건축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역사물을 통해 건축역사를 공부할 수도 있고 SF 공상영화를 보면서 미래의 건축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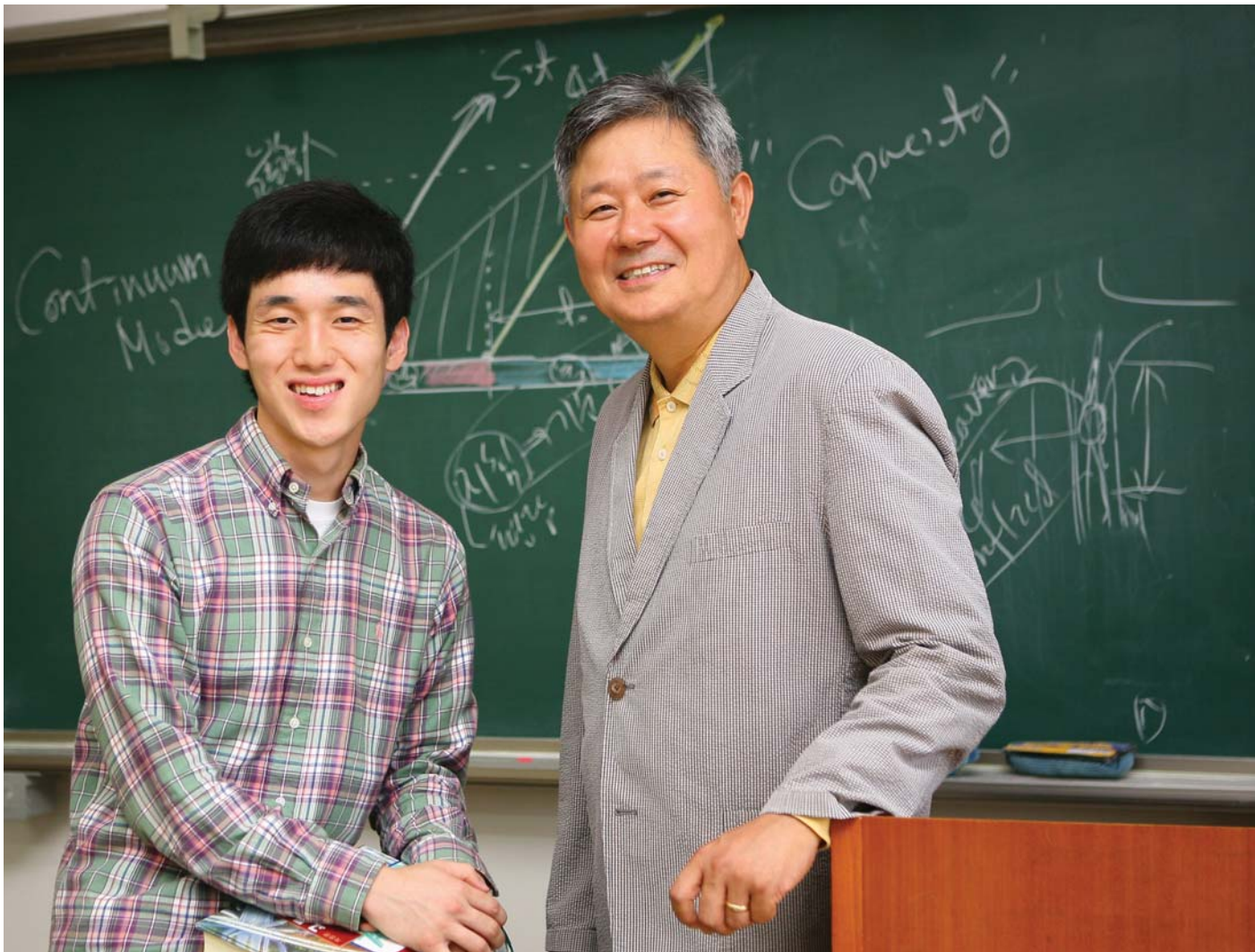
또한 건축이란 학문이 일상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 많은 외부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다. 2학년 때 교수님과 학부생이 함께 유럽건축답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과의 여행이라서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건축,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함께 관찰함으로써 단순한 여행 그이상의 가치를 얻었다. 또한 얼마 전 베이징에서 열린 '베이징 도심 재생' 워크숍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전세계 건축, 도시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베이징 곳곳을 돌아다니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베이징의 여러 문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워크숍을 통해 다른 배경을 지닌 친구들과 교수님들의 시각을 배울 수 있어 좋았고 그런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영어 실력도 부쩍 늘릴 수 있었다.



**오세규 교수**  
전남대에서 12년간 건축학을 가르치면서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그리고 공동주택과 주거공간 계획 및 기술 등 도심 속의 건물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친환경건축에 대한 관심은 저탄소 주거유닛 개발이라는 노력을 통해 2009년 한국생태건축학회 녹색기술대상 기술부문에서 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겨 주었다.

**이재원 학생**  
건축학과 학생 특유의 호기심과 열정으로 틈틈이 문헌 열람 건축학도이다. 다른 사람보다 자유롭고 솔직한 성격에 머릿속은 기발한 생각들로 가득 차있는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건축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 ▶ 학과 개설 1952년
- ▶ 교수진(전공분야)
- 건축학전공
  - 주석중(친환경 건축 설계 스튜디오)
  - 천득영(건축역사·외장 연구실)
  - 오세규(건축 디자인 스튜디오)
  - 이튜원(건축설계이론 연구실)
  - 유우성(건축계획 및 평가 연구실)
  - 한승원(통합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
- 건축공학전공
  - 김선우(건축 음향 & 건축 환경 연구실)
  - 송진규(콘크리트 구조 시스템 연구실)
  - 고성석(건설 경영 & 기술 연구실)
  - 행채성(건축 진동 및 제어 실험실)
  - 이강석(내진 & 최적 설계 연구실)
- ▶ 졸업 후 진출 분야
  - 건축기사/건축설계기사/외장기사/건설안전기사
  - 건축사/문화재수리(보수)기술사 등 자격증을 취득.
  - 건축설계분야(건축설계사무소)/건축시공분야(중형 건설회사)
  - 건축환경분야(연구소 등)/건축구조분야(건축구조사무소)
  - 정부기관 및 공무원(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환경부 등)
  - 공기업(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감정원 등)
  - 연구소(국·공립 및 민간기업체 등의 연구기관)
  - 국내·외 대학원 진학



## 삶의 터전 좋은 세상을 만든다 토목공학과

### 토목공학은 이런 학문 - 하태준 교수

토목공학은 인류의 문명과 함께한 학문으로 집단부락의 구조물 축조에서부터 시작해 현대 사회의 사회기반산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자연 환경을 개조해 인간의 삶이 더 쾌적하도록 연구하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술을 조화시켜 사회를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다.

토목공학의 시작은 인류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삶의 터전을 얻기 위한 노력에서 발단되었으며, 문명이 생기면서 집, 도로, 운하, 철도 등을 만들고 농사에 쓸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근대의 토목공학은 유럽에서 시작됐으며, 프랑스에서 군대의 축성술이 민간에게로 전수되면서 그 기틀이 잡히게 됐다. '태양왕'으로 불린 루이 14세 때 기술자의 조직으로 공병대가 창설되었는데 이게 근대에서 조직화된 최초의 토목기술자 집단이고, 영국에서는 군사공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1771년에 토목기술자협회가 결성됐으며 이때부터 토목공학을 시민공학이라고 부르게 됐다.

토목공학은 구조공학, 지반공학, 수공학, 도시공학, 측량 및 GIS, 교통공학 등 다양한 분야로 분류된다. 구조공학은 다리, 빌딩, 댐 등 거대 구조물이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지반공학은 기초 및 옹벽 분석, 터널 공사의 방법, 위험한 물질의 보관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또한

수공학은 댐의 분석과 설계, 제방, 양수 발전, 운하 항구와 해안 시설, 관계배수로 시스템 하수도 등에 대해 얼마만큼 물을 비용/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한다. 도시공학 및 교통 분야는 지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안전과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인류가 존재하는 한 토목공학도 존재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 그만큼 토목공학 전공자의 사회 진출 기회와 영역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학교, 정부기관, 관공서 등의 각종 토목구조물을 설계하는 용역분야나 건설회사로 진출할 수 있고, 또 공무원 시험을 통하여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 중앙 행정부서로 진출하거나 전문 건설회사 및 설계 기술단에 취업해 설계, 해석, 시공, 감리업무 등을 맡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에서 토목공학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구조, 지반, 수공, 도시, 환경, 교통 등 다양한 연구결과들로 인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전하면서 친환경적인 사회를 도모할 것이다.

### 토목공학을 공부하는 재미 - 장혁재 학생

어린 시절 한번쯤은 더 높고 더 튼튼한 모래성을 쌓기 위해 흙과 모래를 섞어서, 그 위에 물을 뿌려 단단하게 해본 추억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래성에서 장난감도 가지고 놓고 비온 뒤 고인 물을 보내려고 나만의 작은 수로를 만들기 위해 맨손으로 흙을 파내다 웃이 더러워진 기억이 있지 않는가? 이러한 어린 시절 추억은 규모가 작을 뿐이지 우린 어린 시절부터 작은 토목공사를 했던 것이다.

토목이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인간의 편의를 위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성을 쌓아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도로를 만들고, 물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 물길을 만드는 것이 토목공학인 것이다. 이렇듯 누구나 무심코 한 행동들도 토목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토목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함께 나아가는 학문이다. 내가 처음으로 토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 텔레비전에서 거대한 다리가 한 쪽의 그림처럼 느껴졌을 때부터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진 구조물을 만들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좀처럼 떠나지 않아,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금문교였다. 푸른 바다 위에 호기롭게 떠있는 붉은 색 다리는 아직도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다.

토목을 심세하지 못하고 투박한 분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어불성설이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나타나듯이 토목구조물은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사소한 계산실수로 건물에 균열이나, 크게는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토목공학은 그 어떤 학문보다 심세하고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학문이다. 이에 평소 꼼꼼하고 심세한 성격인 나는 이런 점에도 매력을 느껴 이 전공을 선택했다.

프랑스 에펠탑, 대한민국 서해대교, 영국의 런던 브릿지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토목건축물을 함께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토목공학과로 지원하기를 희망한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나타나듯이 토목구조물은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사소한 계산실수로 건물에 균열이나, 크게는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토목공학은 그 어떤 학문보다 심세하고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학문이다.”



**하태준 교수**  
 약 10여년 전부터 전남대에서 도로·교통공학을 가르치고 있다. 항상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함께하는 학습방법으로 토목공학과 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장혁재 학생**  
 도로·교통공학에 관심이 많아 토목공학과에 진학을 했다. 현재 전공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도로·교통공학 연구실에서 활동하고 있다.

- ▶ 학과 개설 1952년
- ▶ 교수진(전공 분야)  
 김 우근(크리틱/교량/구조)  
 이경환(수리수문/상하수도)  
 박연수(구조/구조동역학/내진/강구조)  
 하태준(도로/교통)
- ▶ 졸업 후 진출 분야  
 -공무원 국토해양부/행정자치부/환경부 등 중앙정부 부처나 서울특별시 등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직 공무원  
 -건설업체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공사의 시공/공정관리/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직  
 -엔지니어링(설계)\_설계와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입사하면 건설공사의 조사/계획/설계/감리 등 기술직 업무  
 -국영기업체\_수자원공사/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농어촌공사/지적공사 등과 같이 토목 관련 건설사업을 주로하는 국가 투자 사업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_건설기술연구원/국토연구원/현대건설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과 건설회사에 소속된 연구소에서 토목공학 분야를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연구원  
 -교수\_국내 대학의 대학원이나 외국 유학을 통해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대학교수로 근무  
 -토목관련 회사장리, 설계/시공/감리 등 각종 토목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 회사에 창업하여 경영자로 활동

# 수질·대기·토양 등 연구 자연과 공생의 길 찾는다 환경공학과



## 환경공학은 이런 학문 - 박승식 교수

환경공학은 인간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학문으로서 인간과 환경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발전해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환경공학과에서는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학문부터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등의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심화학습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가정이나 식당에서 남긴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재활용되어 자원으로 쓰이는지, 마시는 물은 어디에서 공급되며 하수는 어떤 정화공정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는지,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에서는 어떠한 오염물질들이 대기에 배출되는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창의적인 공학인을 양성하기 위해 최근 공학교육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고, 실무자에 필요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대부분의 전공수업이 팀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론적인 내용을 숙지함은 물론이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제시하고 결론을 도출해나가는 과정을 학습한다. 이 결과 실천 적용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자신감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하계·동계 방학 중에는 산학협력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인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과에서도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 환경공학의 모든 분야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환경공학과와의 인연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필자의 환경공학과와의 인연은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인은 대학원(석사과정)에서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였다. 대학원을 마친 후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산업현장에서 적용해보고 새로운 분야를 배워나가면서 나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하여 화력발전설비를 사업하는 한 대기업에 입사하였다. 화력발전소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물로부터 증기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의 발전소로 우리가 공부하는 환경공학과와의 주요 전공(수질, 대기, 폐기물, 자원화 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내가 신입사원이었을 당시 팀의 한 부장께서 발전설비는 10<sup>1</sup> 학문이라는 말씀을 한 기억이 난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술과 발전소 내 환경오염 처리기술들이 매우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으로 기억에 남는다.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환경공학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업의 필요성을 느꼈고 박사과정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산업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계속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산업현장과 정부기관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될 환경공학분야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공부해보고 싶은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해본다.

“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학문부터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등의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심화학습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이 환경공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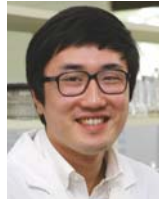
## 환경공학을 공부하는 재미 - 신동명 학생

내가 어렸을 때 인기가 많았던 만화영화로 '출동 지구특공대' 가 있었다. '캡틴 플래닛' 이라는 영웅이 활약하는 만화영화로 당시 코흘리개 꼬마들에게는 영향력이 큰 만화였다. 나 또한 유년시절에 그 만화영화를 보았고, 그 시절 어린 나이지만 환경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다. 수능을 마치고, 학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 학과 중에서 환경공학과를 선택한 것은 어쩌면 어렸을 때의 영향이 컸을지도 모른다.

여러 지인들에게 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유망한 학과 다니시네요." 또는 "졸업하고 뭐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상반된 질문이 나오는 이유를 대학생활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선진국의 경우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환경공학자들에 대한 대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그 대우가 낮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강조된다는 점은 분명 국내에서도 환경공학과와 미래는 밝다는 점이다.

환경공학은 한 가지 특정 분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수질, 대기, 토양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생물, 소음,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들은 동떨어진 것이 아닌 상호 연결 관계에 있다. 환경공학은 광범위한 현상들에 대해 공부를 하기 때문에 화학, 생물학, 물리학 등 자연과학의 집대성적인 학문이다. 평소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라면 정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다. 일반 사람들은 '환경공학' 은 자연환경을 지킨다고만 생각을 하며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환경공학자' 는 막연히 지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생각한다. 자연현상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한 계획과 여러 가지 설계, 실험 등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는 학문이다.

환경공학은 매우 현실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강의실에만 앉아 공식을 외우고 시험기간에 문제만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팀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제 현상에 접목을 시키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공학자로서의 해결 능력 배양과 졸업 후에도 바로 실무를 진행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공학자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박승식 교수는

약 20년 동안 대기환경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현장 및 공공기관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신동명 학생은

'인간생활과 대기질' 상태에 관심이 많아 환경공학과에 입학했다. 현재 환경공학과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전공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그린캡머스 환경동아리 GPS' 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 학과 개설

- 1992년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신설
- 1999년 건설지구환경공학부 환경공학전공으로 토목공학과 및 자원공학과와 함께 학부로 재편
- 2009년 건설지구환경공학부 환경공학전공에서 환경공학교과 분리

### ▶ 교수진(전공분야)

- 김승 재용(배수처리/환경공학/안전공학)
- 정선용(환경미생물)
- 이용은(수질관리시스템)
- 조성용(대기환경제어 및 환경소재공학)
- 김성준(환경생물공학)
- 박정훈(토양복원 및 유해폐기물처리)
- 박승식(대기환경관리)

### ▶ 졸업 후 진출 분야

-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한국농어촌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취업.
- 기업체로는 GS건설(주)/중흥건설(주)/금호석유화학(주)/제일모직(주) 등의 건설업 및 화학제품 제조업체 등의 대기업과 환경영향평가 및 복원업 등의 중소기업으로 취업.
- 행정기관으로는 일반직 및 기술직 공무원으로 취업.
- 학과의 학생들은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으로의 평균 20%최고 3년의 진학률을 보인다.



## 속 깊은 자원의 세계 인류의 동력을 만든다 에너지자원공학과



### 에너지자원공학과는 이런 학문 - 이종운 교수

에너지자원공학과는 석탄, 석유 같은 에너지자원과 금, 구리 같은 광물자원을 찾고, 파내고, 제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생각해 보면, 인류 선사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고대인들이 쓰기 시작한 자원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자원은 인류 생존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최첨단 컴퓨터부터 전깃줄까지 금속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다. 금속 대신 플라스틱이 많이 쓰인다고? 그건 석유가 원료다. 오죽하면 스타크래프트에서 SCV가 부지런히 미네랄과 가스를 캐오겠는가?

한 30년 전부터 국내 자원이 줄어들면서 외국에서 자원을 수입하는 것이 우리 것 캐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자원공학과는 한때 존재의 위기에 서기도 했다. 원래 공학이라는 것이 인류 복지를 위한 실용 학문이다 보니 사회 수요에 따라 부침이 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 상황을 한번 보라. 땅 넓고 자원 풍부한 중국도 아프리카까지 날아가서 도료를 놔 준다, 건물 세워준다 하면서 빨대로 음료수 빨아 먹듯이 외국자원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모든 선진국이 마찬가지다. 세계화되어 있는 이때 남의 나라 자원도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소리다. 길에 있는 맨홀까지 도둑맞을 정도로 자원이 부족하면서 우리나라도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막상 현장에서 쓸 만한 고급 인력이 태부족이라는 걸 깨달았다. 전년대 에너지자원공학과도 정부로부터 해외자원개발인력 양

성을 위해 일 년에 15억 가까운 돈을 지원받고 있으니 늦었지만 다행인 셈이다. 지금 인류는 석유에 목매달고 있다. 연젠기는 신재생에너지가 석유를 대체할 날이 오겠지만 솔직히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요즘은 석탄에서 석유를 만드는 기술, 인류가 지금까지 쓴 석유보다 몇 배는 많이 매장되어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오일셰일, 오일샌드 같은 석유 사촌들을 개발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아예 굴뚝에서부터 잡아서 땅 속 깊이 묻어 버리는 연구도 한창 진행 중이다. 자원 개발 외에도 에너지자원공학과는 인류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여러 방면에서 기여한다. 빌딩 세우고 다리 짓는 것은 다른 분야가 최고인 것처럼 무조건 '땅속'에 관한 것은 우리가 제일이라고 자부한다. 요즘 모든 생활·저장·수송공간이 점차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 원래 에너지자원공학과는 미국 같은 경우 하나의 학과가 아니라 종합대학이 있을 정도로 그 분야가 다양하다. 지질을 연구해서 자원을 찾는 분야, 지하 공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역학적 안정성을 연구하는 분야, CT로 사람 몸 속 보듯이 땅속 구조를 투시하는 분야, 폐기물로부터 자원을 다시 회수하는 재활용 분야, 중금속으로 오염된 흙이나 물을 처리하는 분야 등등.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여러 나라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우리 국민들이 풍족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는 길, 에너지자원공학과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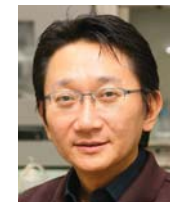
“ 자원 개발 외에도 인류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여러 방면에서 기여한다. 빌딩 세우고 다리 짓는 것은 다른 분야가 최고인 것처럼 무조건 '땅속'에 관한 것은 우리가 제일이라고 자부한다. ”

### 에너지자원공학을 공부하는 재미 - 안부용 학생

입학 후, 내 말투 때문에 출신지를 묻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왜 여기까지 왔냐고 반문한다. 그럴 때마다 난 배시시 웃으면서 “학과 때문에 왔어요.”라고 말한다. 왜 꼭 ‘에너지자원공학과’여야 했을까? 이유는 외국에서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거래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다.

난 어릴 때부터 지하자원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자원이 개발되고 평가되어 판매되는 흐름에 관심이 갔다. 하지만 이것이 자원경제로 불린다는 것을 몰랐고, 그 때는 단지 그러한 종류의 지식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명칭은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알게 되었다. 그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의 희망대로 에너지자원공학과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에너지자원공학과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1학년 때는 공학교육인증제도에서 지정해준 교양을 들었다. 공학인증제도에서 지정한 교양교과목의 커리큘럼은 알차게 잘 짜여 있었고, 국제 경제 정치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한국경제의 이해’와 ‘국제사회의 이해’는 경제학과 정치·외교학의 재미를 알게 해주었다. 그 후, 2010년 1학기를 인도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IIT)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돌아오자 또 다른 기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주와 베트남에서 외국인 교수님이 세 분이나 우리 학과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한국이 아닌 외국에 계속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 에너지자원공학과는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국제적인 감각을 갖출 수 있고, 제2의 언어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는 학과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 국제적인 인재가 되길 꿈꾸는 나에게 에너지자원공학과는 최고의 학과이다.



**이종운 교수**  
응용 지구 화학을 전공하고 2003년부터 전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반짝이는 눈들을 보면서 가르치는 즐거움에 희열을 느끼지만 관버로 그 눈들이 부딪기에서 도망가고 싶기도 한 소심쟁이.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학교에서 마련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기웃거리고 있다.

**안부용 학생**  
매일매일 국제적인 인재가 되기를 꿈꾸고 갈망하는 욕심쟁이. 이름보다 '부용이'로 많이 불리며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서 매일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고 있다.

- ▶ 학과 개설
  - 1963년 공과대학 광산공학과 인가
  - 1969년 광산공학과를 자원공학과로 개편
  - 1999년 건설 지구환경공학부로 통합
  - 2002년 건설 지구환경공학부
  - 2009년 에너지자원공학과로 학과분리 및 명칭 변경
- ▶ 교수진(전공 분야)
  - 오순 성자연(환경복원)
  - 양형식(암석역학 및 발파공학)
  - 윤왕중(물리 탐사)
  - 김명준(자원 처리 및 리사이클링)
  - 이종운(대생물지구 화학)
  - Tam Tran(자원 경제)
  - 외국인 초빙교원
  - Piyush Rail(Mining Engineering)
  - Hoang Thi Hong Hanh(Environmental Protection)
  - Tran Van Xuan(Mining and Geology)
- ▶ 졸업 후 진출 분야
  - 정부부처: 환경부/지식경제부 등
  - 연구소·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 공사: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 국내 기업: SK(석유)에너지/GS칼텍스/SK건설/GS건설/삼성물산/포스코/대성/대우인더스트리/대우조선해양/STX에너지/대광글로벌/LG상사/현대하이테크/대우해운조선&P/경남기업/한국사부발전(수력·석유)/우림자원개발/부국증권/위성탄 등
  - 기타: 광해관리공단/에너지자립관리공단/대한석유협회/유학 등

# 발전소에서 전기밥솥까지 기계의 세계를 탐하다 기계시스템공학부

## 기계시스템공학은 이런 학문 - 오병수 교수

옛날 한약방에서 약을 조절할 때 어떤 약이든지 반드시 감초를 넣었다. 그래서 속담에 어디에나 반드시 들어가는 것을 '약방의 감초'라고 한다.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현상을 크게 양분하면 인간과 기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봐도 기계가 없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기계공학을 공부하면 어떤 곳에도 취업할 수 있으므로 공과대학 또는 일반 사회에서 기계공학은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골에서 백공(百工)양반이라고 소문난 아버지께서는 목화씨를 빼는 나무 헬리컬기어 씨앗이, 나무 조각으로 조립하였지만 톱물이 전혀 새지 않은 톱장군, 무명, 명주 또는 모시 등으로 베를 짜는 반자동 베틀기계, 벼를 담기 위한 가마니를 짜는 가마니틀, 소로 논을 가는 쟁기, 누에고치로부터 나오는 실을 감는 물레, 짐을 실어 나르는 리어카, 등에 짊어지는 지게 등등 농사에 필요한 모든 기계와 기구를 잘 만드셨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기계는 인간이 모두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을 익숙히 알고 있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태엽을 감아 움직이는 시계, 볼트, 너트 등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기계 및 부품을 모아 책상 서랍에 가득 채우고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만지곤 하였다. 대학의 학과를 선택할 때 공과대학의 많은 학과 중 기계공학 이외의 학과를 고려해본 적이 없이 자연스럽게 기계공학과에 입학하였던 것이다. 다행히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과 물리 공부를



잘 하였던 덕분에 기계공학의 주요 학문인 열역학, 고체역학, 유체역학 및 동역학 공부를 무난히 하였던 것 같다.

기계공학은 자동차, 기차, 비행기, 우주선, 배, 잠수함, 발전소, 터빈, 펌프, 로봇, 버너, 컴퓨터, 프린터, 핸드폰, 압력 용기, 전기밥솥 등이 세상의 모든 기계와 기구 등을 만들고 이용하는 기술을 배우는 학문이다. 필자는 현재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새로운 기계를 보면 사기도 하고 혹시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이 나오면 사서 이용하고 있다. 실험실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과 즐겁게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만들어 배기가스로 물만 나오는 무공해자동차 제작의 꿈을 실현시키고 있다. 대학생으로 조직한 연료전지자동차 동아리 학생들과 같이 제작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2009년에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전시하였고 150여 팀 중 1등 상인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기도 하였다. 기계시스템공학부에는 21분 교수님들이 자동차, 로봇, 나노기술, 열공학, 열전달, 유체역학, 복합재료, 소음진동, 자동제어, 내연기관, 용접, 냉동 공기조화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연구 및 교육하고 있다. 기계시스템공학부는 1994년부터 자동차분야로 국책사업 5년, 수송기계분야로 BK 사업 7년, 2차 BK 사업 7년, 누리사업 5년 등 정부로부터 수백억원의 투자를 받아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시설과 실험 장비를 갖추고 있다. 교수님들도 매우 훌륭하신 분들을 엄선하여 채용하였으므로, 우수한 학생들만 입학하면 교육의 3박자 즉, 교수, 학생, 시설이 모두 훌륭한 학부가 될 것이다.

“ 실험실에서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과 즐겁게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만들어 배기가스로 물만 나오는 무공해자동차 제작의 꿈을 실현시키고 있다. ”



## 기계시스템공학을 공부하는 재미 - 황성택 학생

전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친척들의 질문에 '저는 공돌이입니다.' 라고 말하면 친척들은 두가지 반응을 보인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해 대학가서 배우는 전공이 겨우 그거냐' 는 바웃음과 혹은 '취직은 잘 되겠구나' 하며 부러워한다. 예전의 사회에서 '공돌이' 라고 하면 보통은 망치나 드라이버를 들고 공사장을 뛰는 사람을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돌이' 라고 하면 공대생을 쉽게 떠올리거나 혹은 엔지니어를 생각하여 '공돌이' 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피해야 할 전공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쉽게 짐작이 간다. 나도 고등학교 시절에 공대생의 기본인 과학과 수학을 너무나 싫어했다. 싫어하는 과목을 고등학교시절도 아닌 대학교에 가서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

그렇게도 기피하던 공과대학 중 기계시스템공학부에 들어온 이후 나의 호불호는 180도로 변했다. 그렇게 싫어하던 과학과 수학은 공학수학과 동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등의 과목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고등학교 시절의 과학과 수학은 그것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관해 배우는 단계라면 기계시스템의 전공과목들은 하나의 요리처럼 과학과 수학이라는 재료를 이용하여 만드는 음식이다. 이런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나는 점점 기계라는 전공에 빠져들었다.



오병수 교수는

학생들에게 열역학, 연료전지자동차, 수소에너지응용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학회 광주회원지부장, 대한기계학회 총무이사, 세계수소에너지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 광주에서 개최하는 세계수소에너지기술대회 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성택 학생은

평소 연료전지에 관심이 많아 기계시스템공학부에 입학했다. 석유시대가 물러가고 친환경시대가 다가오는 시대에 연료전지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믿고 연료전지의 이용과 그 효율증대에 관해서 연구하는 '연료전지자동차연구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학과 개설 1970년

### ▶교수진(전공 분야)

- 황일걸(동역학/제어)
- 조규중(고체역학)
- 박찬국(열유체)
- 정우남(에너지)
- 오병수(에너지)
- 강기주(고체역학)
- 기침두(동역학/제어)
- 윤희석(고체역학)
- 임경택(에너지)
- 정새택(열유체)
- 박형규(열유체)
- 양영수(고체역학)
- 김유권(열유체)
- 김영배(동역학/제어)
- 설승윤(열유체)
- 박종오(로봇)
- 최정철(에너지)
- 강보선(열유체)
- 이동원(고체역학)
- 박석호(로봇)
- 전인수(고체역학)

### ▶졸업 후 진출 분야

자동차/건설/중공업/전자/기계/각종 공기업/포스코/조선/대학원 진학 등 진출분야가 매우 다양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모든 분야의 회사를 지원할 수 있음.



## 자연물에서 첨단소재까지 모든 재료를 탐구하다 신소재공학부

### 신소재공학은 이런 학문 - 임원빈 교수

배움이란 어렵든 쉽든 재미있어야 하며 살아있는 지식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많은 지식들은 '특정하고 제한된 공간'에서만 그 의미를 부여받지는 않았는지 되물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실 내게 있어 재료공학은 단순한 지식을 주는 전공이 아니라 자연현상과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많은 사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학문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사회 현상, 사고를 연결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해 주는 마법 상자였다.

인류는 자연현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를 지속해 왔다. 재료공학은 인류가 연구해 온 모든 현상들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 지식으로서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이롭게 활용하는 학문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날 싸라기눈과 함박눈이 내리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싸라기눈이 내리면 밝이 아주 춥고, 함박눈이 내리면 비교적 따뜻한 것은 우리는 알고 있다. 재료공학에서는 이것을 핵 생성과 성장 열역학으로 설명한다. 녹는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눈송이의 생성은 눈송이의 생성 구동력과 눈송이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확산 에너지를 공급하는 조건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들 간의 경쟁에 의해서 매우 추운 날에는 눈송이의 생성이 용이하지만 함박눈이 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받지 못해 쌀알같이 작은 싸라기눈이 내리게 된다. 반대로 비교적 따뜻한 날에는 눈송이가 성장할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 함박눈이 내리게 된다. 이렇듯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지식으로 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재료공학의 매력이며, 내가 재료공학자의 길을 걷게 된 원동력이기도 하다.

왜 재료공학이 중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새삼스레 거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재료공학 발전의 단 열매를 흡수하며 성장해 왔다. 신소재가 주는 새로운 혁신의 가능성과 그 이론이 깨우쳐 준 새로운 사고방식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첨단산업기술 역시 재료 연구와 개발에 의해 판agram 날 것이다. 이러한 재료공학을 지난 인류 역사에 걸친 지식 생산의 요약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  
재료공학은 단순한 지식을 주는 전공이 아니라 자연현상과 우리 생활속에 있는 많은 사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학문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사회 현상, 사고를 연결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해 주는 마법 상자였다.”

### 신소재공학을 공부하는 재미 - 이상훈 학생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소재공학부 학생이라고 하면 “무슨 소재를 만들고 있어? 수소전지? 태양전지? 자기부상열차?” 이와 같은 막연한 질문들을 하곤 한다. 물론 우리 학부의 특성상 이런 질문에 대해 나와 상관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정한 몇 개의 분야에만 신소재공학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사용하고 접하고 있는 주변 모든 사물이 바로 신소재공학이 다루고 있는 분야이다. 즉, 신소재공학은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모든 재료들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학문인 것이다.

우리 학부는 금속재료공학, 세라믹재료공학, 광·전자재료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름도 생소하고, 전공들 간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모두 ‘재료’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전공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지식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3학년까지 학부과정을 받고 4학년 때 자신에게 가장 맞는 전공을 찾아 선택할 수 있어서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우리 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가장 큰 이점은 하나하나의 블록처럼 모든 전공과목이 하나의 성처럼 연결이 된다는 점이다. 작전 학기에 배웠던 내용이 다음 학기에 연결되고 계속 반복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습과 이해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배운 지식을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료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수록 흥미와 관심 분야도 넓어지고 철강, 반도체, 에너지, 전자,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다양한 학문이 적용될 수 있는 학부가 바로 신소재공학부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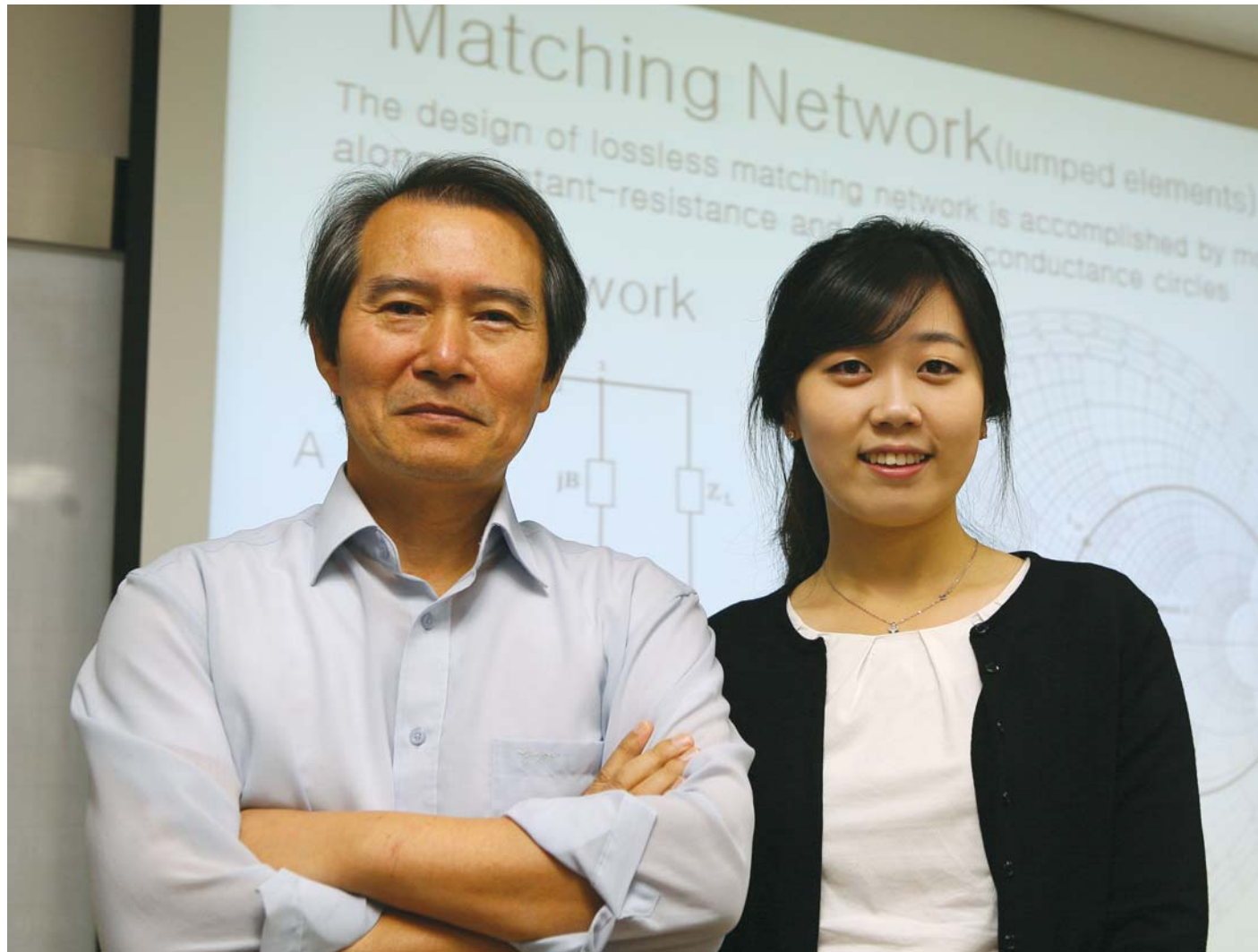
만약 우리 학부에서 자신의 방향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보다 학교생활과 전공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남들보다 앞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의심치 않는다.



**임원빈 교수**  
신소재공학부에서 고효율 백색 LED와 광기능성 세라믹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생들과의 교감이 느껴질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이상훈 학생**  
철강재료 쪽에 관심이 많아서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하고 있다. 전공 외에 영어에도 관심이 많아서 영어회화 동아리 L.P.G.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 학과 개설 1953년
- ▶ 교수진(전공분야)
- 이도 새상빈태/분말아금
- 박현수(전자재료/초전도체)
- 최단 천열전재료)
- 박종민(수소저장합금/전기화학)
- 이병태(반도체박막성장 및 특성평가)
- 김로성(결정학/결정성장)
- 이광민(나노재료공학/생체재료)
- 김영민(반도체박막/복합재료)
- 문종해(광전자재료)
- 홍성길(결정금속재료/박막코팅)
- 김진혁(광전자박막성장 및 특성평가)
- 김재국(에너지/나노소재합성)
- 이준기(반도체공학)
- 이종숙(전자세라믹)
- 송선주(에너지재료)
- 박찬진(부식 및 방식/수소저장재료)
- John Gerard Fisher(소결/미세구조분석/단결정성장)
- 임원빈(고효율 백색 LED/광기능성 세라믹)
- ▶ 졸업 후 진출 분야
- 전자/정보통신/자동차/제철/에너지/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소 및 산업체 취업
-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제철산업/삼성/LG/하이닉스 등 전기·전자·반도체산업
- 현대, 기아/대우 등 자동차기계산업, 생체 및 의학분야 소재산업
- 사회 전반 분야에서 활동. 본교 대학원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학문 연구.



## IT통신 시스템 핵심인력 키운다 전자공학전공

### 전자공학은 이런 학문 - 임영석 교수

34년 전 대학 1학년이 끝나갈 즈음 학과를 선택하는 문제로 친구와 함께 잠깐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다. 순수과학을 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물리학과 첨단기술로 각광받는 전자공학, 이 둘 중 하나의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나로서는 아주 쉬운 일이었다. 제법 진지하게 고민을 하던 친구가 부럽기도 했었지만, 여유롭지 못한 환경의 이공계학생의 선택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전기 및 자기 현상의 에너지 측면을 연구하는 분야가 전기공학이라면, 신호의 측면을 연구하는 분야가 전자공학이라고 나름대로 정의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한때는 강전과 약전으로 구분하기도 했었다. 처음 전자공학을 접하던 시기의 전자공학은 정보를 신호에 실어 전송하는 통신공학과 센서를 통해 계속된 신호를 조절하여 시스템의 동작을 조정하는 제어공학이 대세였고, 대학원에 진학하던 시절은 컴퓨터 공학이라는 학문이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되는(학과가 신설된) 시기였다. 그 후 급속한 산업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신호들의 처리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전자공학의 학문 영역 또한 전자공학의 클래식이라 할 수 있는 전자기학, 전파공학에서부터 전자공학의 힙합이라 할 수 있는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점점 확장되어 왔다. 이제는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

첨단적인 전공을 움켜잡지 못하고 클래식한 전파공학과 함께한 세월이 30년이 되었다. 가족들에게는 전기밥솥도 고칠 줄 모르는 한심한 전자공학도 취급을 받기도 하고, 첨단 분야를 다루지 않아 시대에 뒤쳐져 무능한 학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우도 가끔은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동통신이라는 고마운 산업 덕분에 제법 잘나가는 분야를 공부하는 셈이 되었다. 학문으로서의 전파공학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한결같은 내 생활이 되어주었다.

배우고 익혀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새로운 앎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될 때 가지게 되는 기쁨은 예나 지금이나 공부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일 것이다. 물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자세로 임한다면 모든 학문이 고행에 지나지 않겠지만 말이다. 교수 생활 25년 꾸준히 이어온, 전자공학을 주제로 하는 제자들과의 담론...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줄 것이라는 제법 큰 꿈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해 본다.

“전자공학의 학문은 전자공학의 클래식이라 할 수 있는 전자기학, 전파공학에서부터 전자공학의 힙합이라 할 수 있는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점점 확장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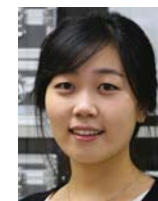
###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재미 - 장소정 학생

2007년 전자컴퓨터공학부에 입학했을 때, 정해진 시간표와 수업 과정을 이수했던 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맞춰 생활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대학생활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에 설레었다.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하면서 첫 대학생활의 계획을 세웠고 소모임 활동,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경험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말씀대로 학업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기초 공학지식 습득을 위해 공학수학, 일반 물리, 실험 등 여러 교양과목을 수강하였고, 고등학교 때 수II, 미분적분, 물리 등을 공부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리 학부는 1학년 동안 필수 교양과목과 기초 공학 과목을 수강하고, 2학년 진급 시에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 중 적성에 맞게 하나를 선택해 전공학습을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전공을 선택하는 시기에 많은 고민을 했었다. 전자공학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필요한 분야이면서 우리나라에 전자 산업으로 탄탄한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자공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논리회로, 전자기학, 회로이론, 신호 및 시스템 등 2,3학년 때는 전공 교과목이 주를 이루게 된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학습공동체를 통해 전공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대학원생 1명과 다수의 학부생이 참여하는 한울학습을 통해 대학원생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학습한 이론은 매 학기마다 설계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실습해 보고 응용하게 된다. 3학년부터는 교과목 계획서에 설계 및 제작이 포함되어 있어 원하는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실습하게 된다. 나는 전자공학분야 중 반도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집적회로와 반도체 공학, 광 시스템 등을 수강하였다. 또한 RF와 통신에도 흥미를 갖고 있어서 초고주파공학과 안테나 공학을 수강하였다. 현재 졸업 논문도 이와 관련하여 진행 중에 있다.



**임영석 교수**  
1984년부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RF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주 관심 분야로는 전자기학, 전파공학, 초고주파공학, RF 소자 설계, 안테나 설계 등이 있다. 학생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지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RF 엔지니어들을 배출하고 있다.

**장소정 학생**  
학과 생활에 매우 적극적이고 우수한 학생으로서 2011년 2월 졸업 후, LG전자 MCA팀부 입사 예정이다.

▶ 학과 개설 1985년  
▶ 교수진(전공분야)  
임영석(초고주파공학)  
나승유(제어공학)  
김영민(회로설계)  
김진영(신호처리)  
김내진(디지털통신/디지털방송)  
홍성훈(영상통신/영상처리)  
백성준(신호처리)  
최수일(광통신)  
김동국(음성신호처리 및 패턴인식)  
정태진(무선광대역통신)  
황인태(이동통신)  
▶ 졸업 후 진출 분야  
IT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취업 (삼성전자/LG전자/LG노벨/LG U+ /LG디스플레이/LG화학/하이닉스/삼성전기/삼성중공업/호성중공업/KT/SK/STX/LG선전/대우조선해양/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두산중공업/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포스코/나공사/지하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공항공사/한국전력/방송국/전산직공무원 등 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 S/W 개발과 활용, 청사진 설계 소프트웨어공학전공

### 소프트웨어공학은 이런 학문 - 김수형 교수

세계는 바야흐로 소프트웨어 전쟁이다. 자동차 개발의 52.4%, 의료기기 개발의 40.9%, 전투기 개발의 51.4% 이상을 소프트웨어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것도 자동차, 철강, 전자 등의 기간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융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 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고급 인력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소프트웨어 인력 시장의 과반수 이상이 비전공자로 채워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소프트웨어공학 전공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술과 방법을 공부한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학과는 많이 있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만을 특화하여 전공으로 하는 대학은 매우 드물다. 우리 대학의 소프트웨어공학은 앞으로 미래 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하는 전공이다.

<시엔엔 머니>는 직업 성장 가능성과 연봉, 삶의 질 등을 종합 분석해 2010년 미국 최고 직

업 100개를 발표하면서 소프트웨어 설계사를 1위로 꼽고 있다. 소프트웨어 설계사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활용의 청사진을 만드는 기술자로 건축에서 건축 설계사에 해당된다.

세계 운영체제 시장을 거의 점령한 Microsoft, iPhone으로 지능형 휴대폰 시장을 개척한 Apple, 정보검색 시장을 넘어 통신 분야까지 진출을 꾀하고 있는 Google, 국내 정보검색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Naver 등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이들 회사들은 최근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다. 열정으로 똘똘 뭉친 젊음이여 도전하라. 소프트웨어 공학이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 블루 오션을 찾아서 드넓은 사이버 공간의 주인공이 되어보라.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있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핸드폰이라는 껍데기에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 작게는 게임이나 유틸 앱을 만드는 그런 것 말이다.”

### 소프트웨어공학을 공부하는 재미 - 고재정 학생

컴퓨터학과라면 친구들에게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

“우리 집 컴퓨터 고장 났어. 고쳐줘.”

나도 기계에는 문외한이지만, 친한 친구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A/S 기사에 도전해본다.

컴퓨터 앞, 재부팅만 했을 뿐인데,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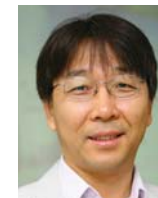
컴퓨터공학부에선 컴퓨터를 이용한 학문을 다루지, 최신형 PC 조립이나 알짱을 만들어주는 포토샵, UCC 기술 등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고, 나의 친구들 또한 그랬듯 다음 질문이 들어온다. “그럼 대체 무엇을 하느냐?”고.

“C, C#, JAVA 등 Programming Language을 기반으로...” 어려운 말 씩둑 자르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있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핸드폰이라는 껍데기에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 작게는 게임이나 유틸 앱을 만드는 그런 것 말이다. 이 외에도 <무릎파 도사>에도 출연한 'V3' 제작자 안철수 교수님, 문서작업의 대명사 '한글과 컴퓨터', 우리가 날마다 접속하는 'NAVER' 까지, 요새는 공장도 100% 자동화되어가고 컴퓨터가 안 들어간 곳이 없다. 나는 IT 직업 중 한 가지인 '프로그래머' 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컴퓨터가 관련되지 않은 일을 찾기 힘들 정도로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물론 나도 처음엔 게임을 통해 컴퓨터와 친해졌다. 학과 선택을 잘해서알까? 다른 과 친구들과 과 달리 지원이 풍부했다. 덕분에 비행기도 타보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과 지원으로 토익 본계 10번이 넘는다.(점수는...T.T) 군 생활 또한 전공을 살려 '소프트웨어관리병' 으로 육군본부 전산소에서 총 대신 키보드를 두드리며 보냈다.(큰 부대에 있어, 공군본부 임요환도 종종 보고 노무현 대통령 경호활동에도 참가하였다.) 컴퓨터를 전공하며 지내다 보니 '삼성소프트웨어 멤버십'에 합격하는 행운도 얻게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잡지에 기고하는 형, MS C# MVP, 임베디드 공모대전 우수상 친구 등 다양한 실력자들에게 열심히 배우고 있다.

2년이 지난 옷은 재질이나 상표가치가 아닌 단지 천 조각, 무게로만 평가받는다고 한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다는 IT는 어떨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지닌 기술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배워가야 하는 컴퓨터공학과.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즐겨야 할 것이 많은 것도 꽤나 재미난 일이 아닐까?



김수형 교수는

1993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6년까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였으며, 1997년부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에 소속되어 있다. 인간의 사고 및 학습체계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인공지능기법 및 영상처리, 패턴인식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공과대학 부학장 및 정보통신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고재정 학생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정말 늦었다.'라는 모토를 갖고 앞서가는 IT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중이다. 현재 삼성소프트웨어 멤버십에서 스마트폰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학과 개설 2011년

#### ▶교수진(전공 분야)

- 김경기(소프트웨어공학)
- 황부현(데이터베이스)
- 김새정(컴퓨터그래픽스)
- 노봉남(인터넷정보보호)
- 이귀성(멀티미디어통신)
- 양형석(계산이론)
- 강대욱(이동컴퓨팅)
- 최덕재(인터넷응용기술)
- 김수형(인공지능)
- 박혁로(정보검색)
- 양형정(응용소프트웨어)

#### ▶졸업 후 진출 분야

- 출입한 동문들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외국계기업/IT전문기업/금융관련업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금융기관/교육기관/연구소/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 제조, 금융, 유통, 교육, 행정, 국방 등의 중견 및 대기업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SI(System integration/시스템통합) 분야
- 업무용, 오락용, 인터넷 및 네트워크 등 다양한 종류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인터넷 및 웹 서비스 개발 분야
- 자동차/조선/기전제품/각종 전자기기 등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 멀티미디어 콘텐츠/게임 프로그래밍/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정보보안/인증 등 네트워크 관련 분야
- 교직 이수를 통한 교사/대학원 진학을 통한 교수/ 각종 IT 전문 강사 등 교육 분야

# 쓸모있는 '새 물질'로 미래를 연다 응용화학공학부

## 응용화학공학은 이런 학문 - 서곤 교수

강의 중에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이들의 고칠 길 없는 병에 절망하는 부모의 마음 아픈 이야기이지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학적 추론 방법이 아주 돋보이기 때문이다. 치료 방법을 찾았으나 이에 필요한 오일을 구하지 못해 부모는 다시 절망한다. 지팡이를 짚고 퇴근할 정도로 나이 많은 분이 이 소식을 듣고 힘들게 오일을 합성하여 제공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고 멋있었다. 필요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고귀함을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물질과 그 변환을 공부' 하는 화학의 요점은 물질이다. 공학을 덧붙인 '화학공학'에서는 물질을 만들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생산하는 단계까지 고려한다. 반응기를 설계하고, 조작하며, 용도에 맞게 생성물을 정제한다. 나아가 반응과 분리 과정을 해석하고 정량화하여 원하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최적화가 화학공학자의 임무이다.

내가 공부하는 촉매는 화학반응의 속도를 증진시키는 물질이어서 화학과 화학공학 분야에 모두 관련된다. 이런 이유로 화학을 공부했으면서도 공대에 30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 아기가 자기한 유리기구로 1~2g 정도 합성하다가, 공대에 와서는 손이 많이 커졌다. 좀 오래되었지만 우리 연구실에서 배의 선도 유지제를 개발한 적이 있다. 시제품이 수출 배 상자에

담겨 원도에서 대만으로 떠날 때 격정 반 기대 반이었다. 좋은 평을 받아 기분이 좋았지만, kg 규모도 아니고 톤 규모의 제조 의뢰에 당황했다. 그 해 여름 (주)빛과환경 직원들과 함께 7톤을 만들면서 화학공학자로서 어려움과 보람을 같이 느꼈다. 무척 힘들었지만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 제공한다는 흐뭇함에 가슴이 벅찼다.

화학공학에서는 화학약품이라는 위험한 물질을 다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고분자 물질, 섬유, 연료나 윤활유 등 석유제품, 농약이나 의약품의 원료인 정밀화학 제품을 만든다. 광전자 화공재료라는 분야에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대상이 된다.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새 물질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분자를 다루기 때문에 인간적인 맛이 없어 보이지만, 사람보다 더 뜨겁고 진솔한 분자끼리의 사랑(?)을 지켜보는 기쁨이 있다. 분자 세계의 엄정함에는 숨을 죽이게 되고, 나의 인식과 이해의 한계에 겹쳐해진다. 사람의 오기나 편견이 배제된 분자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배우기도 한다. 화려함보다 진솔함으로, 자만보다는 겸손함으로 화학공학자는 인류의 편리한 삶과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분자를 다루기 때문에 인간적인 맛이 없어 보이지만, 사람보다 더 뜨겁고 진솔한 분자끼리의 사랑(?)을 지켜보는 기쁨이 있다. 분자 세계의 엄정함에는 숨을 죽이게 되고, 나의 인식과 이해의 한계에 겹쳐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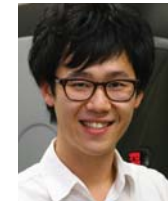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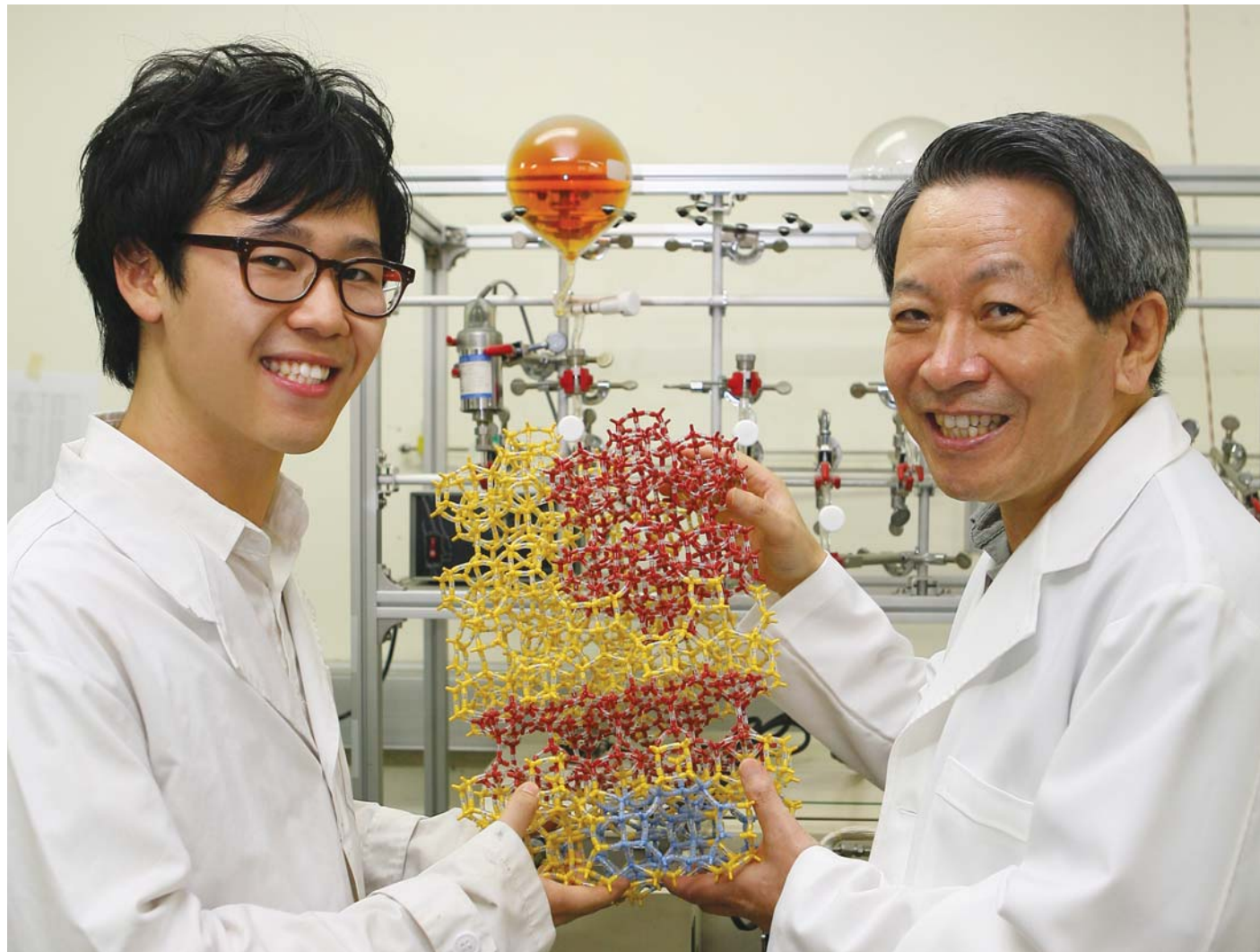
## 응용화학공학을 공부하는 재미 - 이세웅 학생

잡초로 종이를 만든다면 믿겠는가? 쓸모없는 물질에서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일에는 박찬 즐거움이 따른다. 응용화학공학부 소모임인 우리 동아리 C.E.O는 제작년 잡초에서 종이를 만드는 과제로 한국화학공학회 학부생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상을 받은 즐거움도 컸지만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즐거움으로 화학공학에 매료되었다. 반년 넘게 준비하고 실험하면서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었다.

화학공학은 화학공정 전반에 대한 이론을 배우지만 실제로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방법도 같이 익힌다. 화공지식에 덧붙여 실험을 통해 화학공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경험을 쌓는다. 책상에 앉아서 가능성만을 따지는 대신 현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화학공학 지식으로 공정의 최적화를 연습한다. 응용화학공학부에서는 책으로만 공부하지 않고 직접 체험하면서 배운다.

나는 응용화학공학부 학술 동아리 C.E.O에서 학습부장을 맡고 있다. 응용화학공학부에는 우리 동아리뿐 아니라 전공과 관련된 여러 소모임이 있으며,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소모임을 통해 전공 공부 외에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노력을 집중한다. 또 해마다 한국화학공학회에 참가해서 많은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한다. 10월에 있을 학회를 위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면서 우리는 다른 대학의 작품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기대에 들떠 있다.

알려진 지식을 이용하여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일이 바로 공학자의 역할이다. 화학공학을 이용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우리는 내일에 꽃을 피울 훌륭한 엔지니어 혹은 연구자를 꿈꾼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끊임없이 실험한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20대에 뜨거운 가슴으로 진지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서 곤교수**  
1979년부터 공과대학에서 물리화학과 촉매 화학을 강의하는 한편, 저울라이트 촉매 공부와 산업에 관련된 기술 개발에 폭 빠져 있다.

**이세웅 학생**  
현재 화학공학 전공의 학·석사 연계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화학공학전공 학술 동아리 C.E.O에서 학습부장을 맡고 있다.

- ▶ 학과 개설 2002년
- ▶ 교수진(전공 분야)
- 화학공학전공
  - 강성주(공정시스템) 김춘형(화학공학/초입계유체)
  - 김영대(유기화학/전도성고분자) 김영철(촉매반응)
  - 김진택(분리공학/환경공학) 문혜(촉매분리)
  - 박남국(반응공학/촉매공학) 서곤(촉매화학)
  - 송요순(촉매/반응공학) 신재선(촉매/반응공학)
  - 양재호(열전달/유체역학) 이기영(생물공학)
  - 이윤성(무기재료 및 전기화학) 정창복(공정시스템)
  - 조성준(에너지/고체화학) 하광우(금속화학/무기화학)
  - 홍창국(태양에너지)
- 정밀공학전공
  - 강신영(고분자물리) 김도형(반응공학/반도체화학공정)
  - 김중호(촉매화학) 김택현(유기합성) 김형진(유기합성)
  - 박혜령(기능성고분자합성) 이완진(유기전자재료)
  - 이종익(유전공학) 조동련(계면공학)
- 광·전자화학공공전공
  - 김진영(고분자광전자재료) 이무성(고분자하이브리드)
  - 이현영(광전자소재) 하준석(나노광소자)
  - 현은미(고분자화학/전자재료화학)
- ▶ 졸업 후 진출 분야
- 졸업생은 여천 및 울산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화학 계열 공장(정유/석유화학/비료/합성수지/유지/식품공업/무기화학/화학/시멘트/유리/연료/고무/페인트/필름 및 제지/금속/세면 등)과 화학 및 원자력 발전소/제철공장 그리고 광·전자 분야(반도체 소자·장비/LCD/광소자 제조업체/섬유 관련 산업체/무연입계 세일즈 엔지니어/의약품/화장품/고분자 관련 기업체/연구소/공무원 등) 여러 방면으로 진출한다. 또한 대학원 진학을 통해 더욱 전문성 있는 학문을 익히고 해외 유학/새터 연구단지 연구기관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 사람·자본·제품 과학적으로 경영한다 산업공학과

### 산업공학은 이런 학문 - 이준웅 교수

지난 봄에 나는 학부생들 여남은 명과 무등산에 올랐다. 장불재에 도착했더니 녀석들이 지쳤는지 그토록 아름답고 멋진 서석대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가 본 적도 없으면서 더 이상 오르려 하지 않았다. 녀석들이 오르기를 주저하니 내가 앞장을 설 수 밖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서로 밀어 주고 격려하며 오른 서석대, 그곳에서 녀석들의 얼굴에 뿌듯함과 행복감이 서리는 것이 보였다. 산업공학을 무등산 서석대에 가는 것에 비유하면 지나친 것일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고 나면 많은 것들이 보이고 또 볼 수 있으니까..., 도달하는 과정에서 때로 지치고 잘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경험하고 알고 나면 기쁨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바로 이런 것을 내가 택했고 여러분들이 택하였으니 그 비유가 꼭 억측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산업공학에서 뭘 꿈꾸고 만들고 배울까? 내가 학창시절이었을 때는 이런 문제에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저 우직하게 커리큘럼에 주어진 대로 생각하고, 읽고, 외우고, 그렸더니 기쁘더라. 배운 내용들이 처음에는 마치 운무 속에 아련히 떠오르는 형체와 같이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점차 형형색색의 모양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확률통계, 경영과학, 생산관리, 컴퓨터프로그래밍, 경제성 공학, 품질관리, 제조프로세스 등 모든 배움이 그러했다. 전통적으로 사람, 자본, 제품을 시스템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경영하면 성공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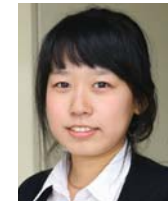
여기에 오늘날의 화두인 시간, 정보,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더한다면 금상첨화 아니 21세기의 꿈의 서석대가 된다. 이와 같이 산업공학은 늘 언제 어디서나 성공할 수 있는, 최고를 지향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색칠하고, 오리고 붙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꿈을 키우는 곳, 다정다감한 친구들이 모여 미래를 설계하는 곳, 서로 돕고 격려하는 곳, 3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수많은 선배들의 음성과 숨결과 발자취가 새겨져 있는 곳, 우리 한 번 그곳으로 달려가 보자. 뛰기 전에 갈 수 있을지 말지 이리 저리 재지 말고 먼저 뛰어가 보자. 분명 성공의 길이 보일 게다. 이제 저만치 뛰어 가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후배들에게 정성껏 가꾸고 쌓아 올린 산업공학의 혼과 열을 물려주자. 나와 나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 중시되는 곳, 우리 모두 그곳에 모여 아제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오늘로부터 내일을 향해 나아가자.

“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종 공학기술과 그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영학 원리 등을 조율하고 정리해 전체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한다.”

### 산업공학을 공부하는 재미 - 방현주 학생

처음 부모님께 산업공학과에 진학한다고 말씀 드렸을 때, 나에게 하신 첫 마디는 다음과 같다. “산업공학과가 무엇을 하는 곳이니?” 이러한 질문을 받은 나는 제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산업공학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이다. 나 또한 잘 몰랐다. 그저 ‘공대의 꽃 + CEO의 지름길’이라는 현수막의 글귀에 마음을 뺏겨 CEO가 되겠다는 크나큰 꿈을 안고 산업공학과에 진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 나에게 “산업공학과가 무엇을 하는 곳이니?”라는 질문을 다시금 한다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산업공학과는 ‘산업’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이다. 지휘자는 직접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다. 그저 여러 악기의 소리가 아름다운 연주가 되도록 이끈다. 이러한 지휘자와 같이 산업공학과 또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직접 생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종 공학기술과 그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영학 원리 등을 조율하고 정리해 전체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공학과는 회계나 경영에서 시작하여 제품 개발, 생산, 물류 등의 지식까지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운다. 흔히 말하는 T자형 인간이 바로 산업공학도를 보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공부하다 보니 유난히 산업공학과 학생들은 잡지식이 많다. 어느 학과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그게 바로 산업공학의 가장 큰 장점이다.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교실에서만 산업공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산업공학과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산업공학적인 고민을 하며 공부한다. 아침에 등교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학교에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며, 점심시간 식당 앞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저녁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는 어떤 시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야 흐름이 깨지지 않고 즐겁게 회식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도 혁신과 개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면서 일종의 기쁨을 느낀다. 이를 보면, 나는 이미 산업공학을 학문이라 보지 않고 삶의 일부라 보는 것 같다. 나의 두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산업공학과! 나는 산업공학과가 좋다.



### 이준웅 교수는

이곳에서 학생들에 둘러 싸여 지낸 지 11년째 되었다. 학교에 부임하기 이전에 자동차회사에서 보낸 15년여 세월보다 학교에서 얻은 즐거움이 더 크다고 한다. 멋진 제자들이 있어서 늘 영광스럽고 행복하다.

### 방현주 학생은

모든 학문을 아우르고 사람 냄새가 나는 공학을 공부하고 싶어 산업공학과에 입학했다. 지금은 영어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후배들의 영어회화공부를 도와주고 있다.

### ▶학과 개설 1980년

### ▶교수진(전공 분야)

김여근(시스템최적화)

장남기(생산관리)

정성욱(신뢰성분석)

이준웅(지능형정보시스템)

이재열(협업형 상호작용디자인)

김남기(확률 시스템분석)

### ▶졸업 후 진출 분야

-정부 부처, 과학기술부 등

-학계 및 연구소, 전남대, 전주대, 광주대, KIST, GST, 국방과학

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 광기술원 등.

-공무원 및 공기업, 중소기업지원센터,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도시철도공사, 경찰 등.

-금융, 증권, 보험업, 공인회계사, 신용평가, 미래에셋, 삼성생명 등

-국내기업, 삼성전자, 삼성SDS,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화학, 대우전자,

현대/대우/기아자동차, 금호/한국타이어,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오토넷, KT, CJLS, NHN, DAUM, 네오위즈, 포스코,

포스텍이더, 한국변마이크로시스템즈, 한국오리물, 한국후지쯔 등.

# 현대사회의 혈관 전기, 그 원리를 배운다 전기공학과

## 전기공학은 이런 학문 - 임영철 교수

우리는 공기나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전기의 고마움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정전이 되면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너무나 익숙하고 필수적인 것이기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전기현상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부족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다루기에 가장 편하고 깨끗해서 많이 이용하는 에너지가 전기에너지이고 우리 생활환경 및 산업현장은 모두 전기장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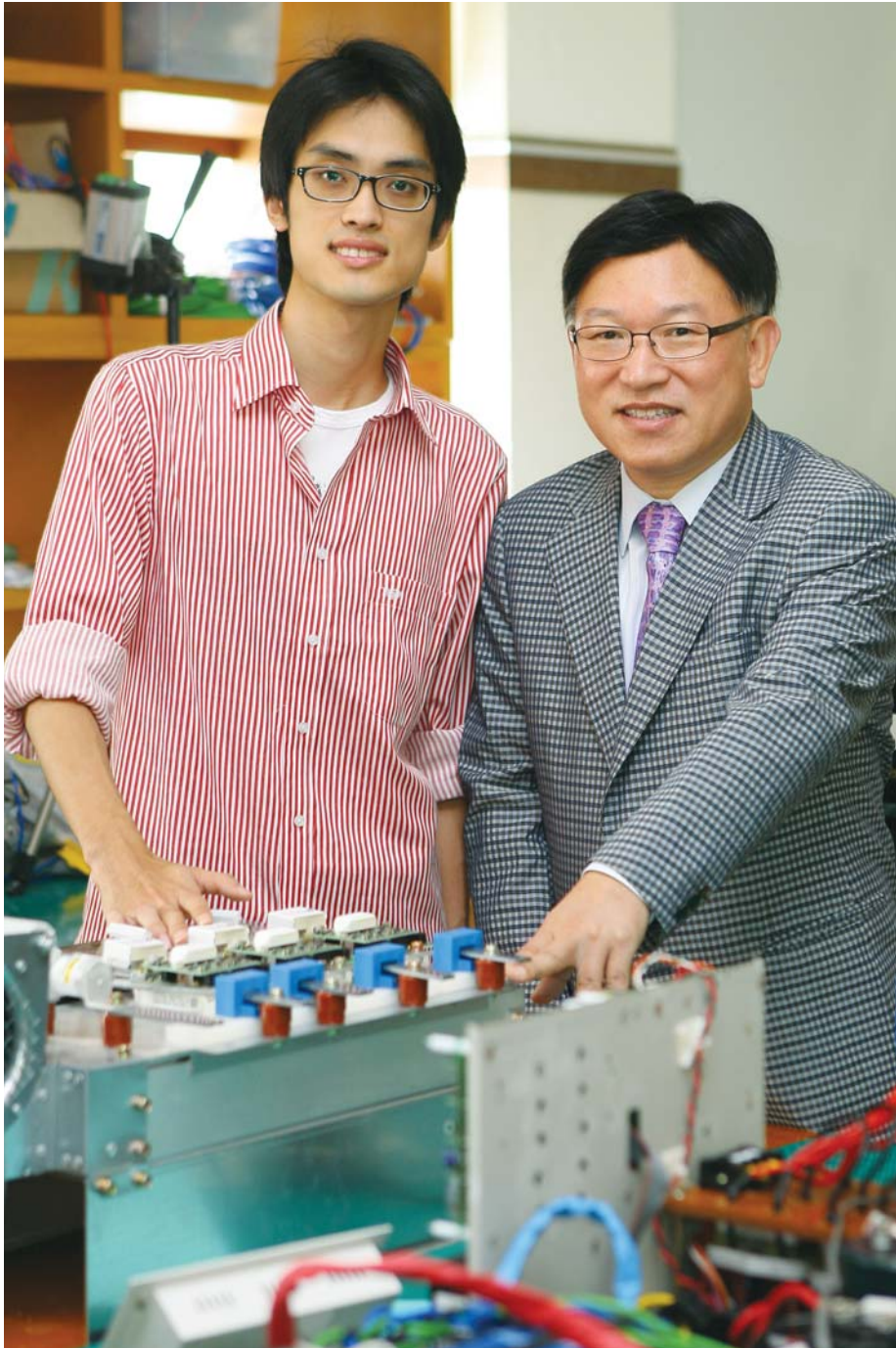
전기현상에 대해 일반인들이 몇 가지 궁금해 하는 이야기는 “전깃줄에 앉아서 놀고 있는 새들은 왜 감전을 당하지 않느냐?”, “전선 두선에는 살아있는 전기선과 죽어 있는 전기선이 있다” 등이다.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비교적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가 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논의가 아니라 전기와 자기의 복합적인 상호현상에 대한 통합적이고 질서정연한 논리를, 수학적 표현으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전기공학이다. 그래서 삼하게 표현하면 몇 십개의 수학적식을 이용하면 거의 모든 전기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기 현상의 이해를 기반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장치를 개발하고 세계 시장에 수출하여 국가의 부를 증대시켜서 우리나라민들의 경제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현실에서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졸업생들은 삼성, LG를 비롯한 가전메이커, 건설업체, 두산, 현대 등 중공업회사, 전기전문회사인 한국전력, 제철전문업체인 포항제철뿐만 아니라 국책연구소 및 기업 연구소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현시점에서 상징적으로 전기공학을 나타내 라면 전기자동차와 KTX 고속전철이 될 것이다. 이것들은 완전히 전기로 움직이고 제어되는 쾌적한 고속 수송장치이며, 우리 모두가 선호하는 미래의 핵심 지상 운송설비가 될 것이다. 또 한국전력에서는 해외에 원자력발전설비를 수출하는 기기를 올리고 있다. 앞으로 에너지가 국가의 경쟁력과 부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가 된다면 전기공학의 중요성은 더욱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자기현상의 이해와 응용기술의 개발능력을 신장하도록 적절한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등장하는 분야를 연구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기공학과 교수들은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스마트 그리드’가 녹색성장의 핵심 축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전력이라는 전기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발전된 에너지를 수용기에 공급하고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양한 발전 사업자, 전력거래소와 소비자가 연동되어 현시점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를 선택하고 구매하는 체제 즉, 일반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전기에너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정보통신 기술과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 그리고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조력발전 등 다양한 분산전원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양방향 통신에 의한 전력거래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항상 우리에게 상상 속의 세계가 언젠가는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부여된 것 같다. 따라서 전기공학의 미래는 우리가 꾸는 꿈이 무엇이나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그 꿈을 꾸는 사람은 바로 전남대 전기공학과에서 공부하는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다.

“**전기**와 자기의 복합적인 상호현상에 대한 통합적이고 질서정연한 논리를 수학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응용하는 것이 전기공학이다.”

## 전기공학을 공부하는 재미 - 허정 학생

내가 전기공학과에 매력을 느끼게 된 이유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이론에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바로 적용해보고 결과를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 크지 않았나 싶다. 고등학생 시절까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무조건 외우면 끝이었고, 내가 왜 이걸 알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넓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전기공학과에 오게 되어 전기라는 학문을 배우게 되고, 내가 배웠던 것들을 직접 구현해보고,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전기공학이란 학문에 매력을 느낀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다.

전자공학에서 ‘자’ 자는 ‘자’가 사용되었다. 즉 전기공학의 아들이 전자공학이다. 전기공학에서 전자공학이 나온 만큼 전기공학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학문이다. “그럼 배워야 하는 것도 많고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그만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한다.

전기공학과라고해서 발전소, 송전탑에서 연상되는 큰 전기만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가전제품, 로봇, MP3 Player 속에 들어가는 작은 회로들에도 모두 전기공학의 기술이 들어간다.

나는 무언가를 배우기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들어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입학 후 곧바로 ‘CNURE’라고 하는 학과 내 학술 소모임에 들었다. 전공 수업 내용을 소모임 내에서 심화학습으로 발전시켜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려 볼 수 있었고, 내가 평소에 상상하고 보지만 하던 것들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게 되었다. 매일 학교에 남아 선배님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후배들과 밤을 새며 작업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의 재미와 완성되었을 때의 성취감이 더 컸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자연스럽게 많은 작품이 생기게 되었고, 결과물을 전시하고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실력을 겨루는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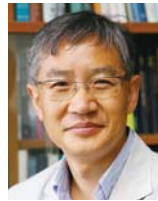
**임영철 교수**  
1983년부터 전남대에서 전자회로, 자동제어를 가르치고 있다. 전기에너지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를 하는 전력전자회로의 회장을 역임했고, 학생들의 실용적 개발 능력을 증진시키는 강의방법에 관심이 많다.

**허정 학생**  
회로설계에 관심이 많아 전기공학과에 입학했다. 학과 소모임인 무인 전기 자동차 연구회 ‘CNUREE’ 회장이며, 삼성전자가 창의력있는 SW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삼성SW멤버십 회원이다.

- ▶ 학과 개설 1952년
- ▶ 교수진 전공 분야  
임영철(전자공학 및 전력전자공학)  
여인선(조명공학 및 광응용)  
남해관(전력계통)  
구할본(전기전자재료)  
김광현(전기기기 및 전력전자)  
류경우(초전도 및 전력기기)  
최준호(전력계통 및 분산전원)  
박성준(에너지 변환, 제어)
- ▶ 졸업 후 진출 분야  
국가 기간산업체(에서부터)  
정보통신 벤처기업에 이르는 전 산업분야 진출.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통신공사/삼성전자  
LG전자/현대중공업/SK 등 취업.

# 문화의 상징, 숲을 연구하다 산림자원학부

“숲속에도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어 숲속의 다양한 인자들이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숲속 사회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숲속 사회가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들이 숲속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필요로 하는 것인가 대해 임학의 교육이 있고 임학의 연구가 위치하고 있다.”



**안기완 교수는**  
츠키도 대학에서 산림정책 박사학위를 받은 뒤, 전남대에서 산림경영·정책을 가르치고 있다. 대외적으로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과 산림청 산하의 일민인대상 '녹색체험교육사업'을 맡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전공수업과 다양한 진로·취업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김영미 학생은**  
'출세했네!' 라는 대동령에 '그러게요~' 말할 수 있는, 통통 튀어 다니며 더 먼 곳을 보고 뛰어갈 준비를 하는, '김사님은 학생시절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어보는, 새로운 것을 보면 해보고 싶어 안달이 나는 열혈청년이다.

## 산림자원학은 이런 학문 - 안기완 교수

내가 대학 3학년일 때 어떤 분이 “무슨 과에 다니십니까?”라는 질문에 “농대 임학과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예? 농대에 음학과가 있나요?” 즉, 임학이라는 전공분야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시절, 하지만 지금은 “좋은 전공분야를 연구하고 계십니다.”라고 답을 듣는다. 이런 대답의 변화는 아마도 세계 입업국가의 분류체계와 일맥상통하지는 않을까? 세계적으로 임학의 발전 국가를 크게 2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제 1그룹은 울창한 숲, 산림을 보유하고 있지만 산림을 다스리지 못해 산림이 황폐되고 찬란했던 문화가 쇠퇴한 시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중국 등이 이에 속하며, 또 한 그룹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울창하게 산림을 가꾸어 국토의 황폐를 방지해 온 독일, 일본,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등이 이에 속하는데 우리나라도 20세기 후반부터 국가의 치밀한 정책과 국민의 도움으로 짧은 시일 내에 산림자원을 구축한 세계적인 모범 국가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좋은 전공이라는 평을 받는 것은 아닐까 싶다.

임학? 생소하게 느끼겠지만 오히려 숲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과이라고 얘기하면 ‘아~’ 하고 쉽게 인지하고 반응도 한다.

임학은 다양한 연구 분야를 가진다. 가장 기본적인 체계는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두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응용과학 분야이다. 여기에는 산림기상·산림토양·지질·이수(利水)·동식물·수목생리·생태·측량·측수·통계학 등의 기초학문과 조림·보호·이용·임산·사방·산림·토목·임업기계·산림경영·산림정책학 등의 응용분야로 구분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숲속에도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어 숲속의 다양한 인자들이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숲속 사회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숲속 사회가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들이 숲속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필요로 하는 것인가 대해 임학의 교육이 있고 임학의 연구가 위치하고 있다.

인간이 산과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류의 문명과 운명이 달리하였다고 한다. 인류 문명은 나무를 베는 도끼 소리로부터 시작되었고, 나무를 다 베어 버리고 도끼 소리가 그칠 때 그 문명은 사라졌다고 한다. 그 위대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이 모두 멸망하여 모래 속에 묻혀 버린 것은 그들이 산을 지배하고 이용할 힘만 있었지 이를 인간과 조화 속에 더불어 사는 지혜도 없었고 숲을 가꾸는 지식도 기술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 세계 임학의 연구와 교육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대들은 이런 교육과 연구에 빠져보고 싶지 않은가? 그대들이 미래의 주인이다.

## 산림자원학을 공부하는 재미-김영미 학생

“젊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젊음은 대학생의 가장 큰 특권이다. 어떤 실수를 해도 웃을 수 있고 그 자체로 예쁨 받을 수 있는 나이인 것이다. 자신의 전공을 정말 원해서 선택한 고등학생은 과연 몇이나 될까? 수능 점수에 맞춰, 부모님의 뜻에 따라, 주위의 권유로 대학 문턱에 들어선 신입생들이 진정한 젊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처음 원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했을 땐 하루빨리 공무원 준비해서 사회에 진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인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 주신 지도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신입생 때 ‘이뻏고-교학상장’이라는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님과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우리 전공을 탐색하고 함께 축령산, 수목원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연 속에서 나이와 지위를 떠나 편안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음에 사람과 사람이 이어주는 ‘나무’를 느끼게 되었다.

전공 중 ‘영농정책’이라는 실습수업을 통해 실제로 나무와 함께 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서 전공에 더욱 친숙해지고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가졌다. 화순 산양 삼을 재배하며 역대 부자가 되신 분, 자연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고 하며 넓은 마음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분을 보며 임산물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모습을 본받게 되었다. 난대림 수종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던 원도 수목원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릉수목원에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수종을 눈으로 보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을 느끼고 왔다.

전공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지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나를 다시 찾게 되었다. 학교에 관심이 생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고 먼저 다가가는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홍보단 활동에서 최종발표대 1등을 해서 대학생 대표로 청와대 정치 토론회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 전남대, 이곳에서 잠재된 나의 능력을 찾아 즐겁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 ▶ 학과 개설 1952년
- ▶ 교수진(전공 분야)
- 임학전공
- 오광인(조림학/임목육종학/산림토양학)
- 박승천(산림보호학/야생동물학/산림곤충학)
- 안기완(산림정책학/산림경영학/산림휴양학/산림법률학)
- 이계현(산림생태학/수목학/산림수문 및 유역관리)
- 임산공학전공
- 소원택(목재물리학)
- 김윤수(목재해부학 및 보존학)
- 정우양(기구 및 약기공학)
- 이형우(목재 건조 및 절삭)
- 이재원(목재화학)
- ▶ 졸업 후 진출 분야
- 국가직 공무원/산림청/국립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국방부·교육인적자원부 임업직/국립산림과학원/농촌진흥청 연구사 등
- 지방직 공무원 서울특별시청·광역시·사·도·군의 농지계/산림과/국립산림과학원/산림환경연구소/박물관/문화재 복원연구소/교수
- 기업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농어촌공사/협업/파리클로드/MDF/한샘/리바트/원술/코린도 등 기구 및 목재 관련기업체
- 기타 산림조합중앙회(준공무원)/버섯관련회사/산림 특수법인체/산림기술

# 자연과 인간, 환경을 디자인하다

## 조경학과



“ 자연과 대화하며 인간의 문화를 창조하는, 살아있는 일상의 디자인. 다른 어느 디자인보다도 매력 있고 인간에게 가치 있고 의미에 찬 경관을 디자인 하는 것, 그것이 다시 말하는 조경의 의미이다. ”



**조동범 교수**는 조경학과에서 조경설계를 가르치고 있다. 틈틈이 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 등의 활동을 겸해가며 시민참여 공원만들기나 마을만들기에서 조경의 사회적 역할과 매개를 모색하고 있다. 랜드스케이프디자인의 시자(역), 내손으로 만드는 비오톱가든(역), LAND, 세계의 도시디자인 등의 공저가 있다.

**서은주 학생**은 도면위에 세상을 그린다는 꿈을 안고 조경학과에 입학했다. 현재 CAD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 실습을 통해 조경회사에서 일을 배우는 등 적극적으로 배움을 실천하고 있다.

### 조경학은 이런 학문 - 조동범 교수

조경학을 소개하는 글을 쓰거나 대화를 할 때, 특히 그 상대가 조경을 전공하려고 지원하는 학생이나 신입생일 때, 어렵게 느껴지는 점 중 하나는, 현재 사회에서 조경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고 미래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는지를 쉽게 설명하는 일이다. 본격적으로 조경학을 전공하기 전까지는, 조경=나무심는 일 정도로 알고 있고 조경이 만들어낸 공간은 집 주변의 작은 공원이나 아파트단지의 정원 외에는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그 좁디 좁은 신입생끼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기야 하기 때문이다.

조경학(landscape architecture)은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를 다루는 분야이다. 그 환경은 1차적으로는 자연이지만 인간이 개입된 환경이기에 인문·사회 환경을 포함한다. 따라서 조경학에서는 자연과학, 공학을 바탕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 인간 환경에 폭넓은 스펙트럼을 비추는 종합과학예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어느 대학 조경학과를 검색해도 이 정도의 정보야 접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접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정보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간혹 landscape architecture(조경)라는 영문을 “경관건축”으로 번역해 놓은 인터넷상의 표현을 보면 실수를 금치 못하면서도, 혹여나 조경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그런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하다. 막상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조차 조경의 정의나 조경작품을 소개하면 조금은 당황해 하는 반응이 느껴진다. 도로는 비닐하우스에 붙은 간판에서 많이 보아왔던 “○○조경” 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숯불갈비집 간판이나 호텔건물에 함부로 붙여져 있던 가든(garden)이니 파크(park)니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깊을 줄 몰랐던 것이다.

자연과 대화하며 인간의 문화를 창조하는, 살아있는 일상의 디자인 다른 어느 디자인보다도 매력 있고 인간에게 가치 있고 의미에 찬 경관을 디자인 하는 것, 그것이 다시 말하는 조경의 의미이다.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던 이야기처럼, “The Landscape is so vast and we have so much to say each other” 라는 표현은 어떨까? 경관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 그 모두이기에.

### 조경학을 공부하는 재미 - 서은주 학생

공원과 산책로가 거주지와 가까워지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즘 이른 저녁에 가족단위로 공원에 나와 산책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 집에 작은 화분을 두는 것부터 작은 정원을 꾸미기까지 다양한 ‘자연과 함께하기’ 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공원을 조성하는 일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함께하거나 같이 나무와 꽃을 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활동이 증가하면서 조경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경에 대한 생각이 단순히 ‘나무심기’ 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나도 처음에는 예쁘게, 보기 좋게 공간을 꾸미고 나무를 심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조경을 배우면서 나무는 조경의 일부이고, 잔디, 물과 같은 다른 요소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공간을 연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경은 지형분석부터 시



작해서 기후, 유동인구, 바다재, 시설물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고려하고 설계한다. 복잡해 보이지만 모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1다음에 2가 오듯 자연스럽게 함께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나무로 바람을 막아주고, 그들이 되어주는 나무 밑에는 벤치가 필요하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파고라나 벤치를 두어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조경은 여러 분야와 맞닿아 있고 우리생활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훼손했던 자연을 되살리고 복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 예로 청계천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성공한 사례이다. 청계천로의 구조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해소되고, 청계천 문화유적 복원 등 여러 이점을 남겼기 때문이다. 청계천 외에도 습지를 조성하거나 식물을 이용하여 수질을 정화하는 등 생태계 복원, 자연복원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조경에 대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책상, 의자, 집, 빌딩, 도로의 가로수 등 분야는 다르지만 우리 주변의 대부분이 설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설계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경은 때로 ‘현실감’ 과 ‘상상력’ 을 필요로 한다. 내가 그리는 도면은 평면이지만,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입체적인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내가 만든 공간 속에서 웃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상상하며 조경학을 배운다.

- ▶학과 개설 1979년
- ▶교수진(전공 분야)
  - 양홍도(조경 및 환경계획)
  - 조동범(조경설계 및 경관 계획)
  - 서성철(조경공학)
  - 백지성(조경식재설계)
  - 김은영(환경복지설계)
- ▶졸업 후 진출 분야
  - 조경직 공무원(국토해양부/문화재 관리청/서울특별시청 및 구청/광역시청 및 구청/도청/시청 및 군청 등)
  - 국영기업체 및 지방공사(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환경관리공단/한국공영관리공단 등. 지방공사 : 서울도시개발공사(SH공사)/광주광역시 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대구도시공사/부산도시공사/충남개발공사/충북개발공사/전북개발공사 등)
  - 연구직(국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울시장개발연구원/광주발전연구원/전남발전연구원/인천발전연구원/대구발전연구원/부산발전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충북발전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강원발전연구원 등)
  - 사기업체(종합건설업체/종합조경업체/전문조경업체/조경건축설계사무소/엔지니어링 업체 등)
  - 직업(식물소재사업/조경시공회사/조경설계사무소 등)

# 미래를 밝힐 자연에너지를 탐구하다 바이오에너지공학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사업에 선정되어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원료의 안정적 생산과 효율적 공정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본인은 이러한 연구 개발을 하는 일원으로서 높은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안성주 교수는**  
전남대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오카야마 대학에서 박사학위, 미국 Danforth Science Center에서 박사후기 과정을 마치고 2004년부터 본 대학에서 식물생리학, 환경스트레스 식물학, 에너지작물중장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2009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사업에 선정된 후, 다양한 환경스트레스 하에서 최적의 바이오에너지 작물의 생산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을 쓰고 있다.

**안다희 학생은**  
생물에 관심이 많아 바이오에너지공학과에 입학했다. 지금은 심화된 학과공부에 열중하며 학교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는 등 학과의 분위기를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바이오에너지공학과는 이런 학문 - 안성주 교수

요즘 들어 미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는 증거로, TV나 신문 등 다양한 방송 매체들로부터 식물에서 추출한 에너지를 비행기와 자동차와 같은 수송연료로 사용한다는 뉴스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바로 산재생에너지 중에서 바이오에너지(bioenergy)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유채종자로 만든 바이오디젤(biodiesel), 옥수수대나 사탕수수대로 만든 바이오에탄올(bioethanol), 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biogas) 등이 이에 속한다. 실제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석유, 즉 화석연료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근래에 와서 그 정도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고자 바이오에너지공학과는 2010년 네 분의 우수 교원과 네 분의 저명한 외국인 교원을 모시고 새롭게 신설되었다. 좀더 정확하게 지금처럼 에너지 소비가 지속된다면 전 세계에 매장된 화석 연료의 양은 약 205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석유고갈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가끔씩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가 서서히 수온이 올라가면서 끓는 물속에서도 그 뜨거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또 필요한 바이오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충분한 바이오매스(biomass)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이다. 본인의 견해는 바이오에너지 원료 식물을 재배하기에는 우리나라의 평평어리가 너무 좁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바이오에너지 원료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바이오연료(biofuel) 가격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해결 방안은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 및 특허 출원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최선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학과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사업에 선정되어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원료의 안정적 생산과 효율적 공정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본인은 이러한 연구 개발을 하는 일원으로서 높은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오에너지공학과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경계선 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바이오에너지공학과는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인류가 직면한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들이 우리학과에서 많이 배출될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 바이오에너지공학을 공부하는 재미 - 안다희 학생

내가 처음 바이오에너지공학과에 입학했을 때 신설과라는 부담감과 WCU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전공에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1년간 공부해 온 지금은 신설과이기에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해외학자 교수님들 강의 덕에 더욱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되었다. 내가 전공에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 중의 하나는 실험실 생활이었다. 입학 전 겨울방학 기간에 했던 실험실 생활은 전공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게 했고 1학기를 마치고 난 후 참여했던 실험실 생활은 본격적인 색을 칠하게 했다.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하시다보니 이해가 쉽고 진도 위주가 아닌 학생들의 흥미유발 위주의 수업이라 훨씬 재미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접해보지 않은 개념이라 지루하고 난해할 수 있는데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깊게 빠져든다.

바이오에너지공학, 이 말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물에서 기름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바이오에너지공학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바이오에너지 능력과 기능성의 끝은 예측할 수 없다. 우리 학과는 그런 무한함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우리에게 색다른 놀라움을 준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유기체에서 미래를 구원할 커다란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부터 그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어떤 에너지에도 뒤지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놀랍다. 또한 바이오에너지는 아직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내 손 안의 발전소가 나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힘차게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의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이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제한이 많은 바이오에너지 발전소를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과 재빠른 적응력으로 세차게 돌아가게 한다면 얼마나 짜릿할까? 사소한 것에서 혁신적인 에너지를 얻는다는 기쁨, 나만의 생각으로 답을 창조하는 짜릿함, 이것이 바로 내가 느끼는 우리 학과의 매력이다.

- ▶학과 개설 2010년
- ▶교수진(전공 분야)
- 김정목(식물분자세포학)
- 배현준(바이오에너지 생명공학)
- 서미정(식물분자생리학)
- 안성주(바이오에너지작물학)
- John E. Carison(생물정보학)
- Kyung-Hwan Han(바이오에너지수목학)
- C. P. Josh(바이오에너지학)
- Sheng Luan(식물분자세포학)
- ▶졸업 후 진출 분야
- 바이오연료 및 생물공학관련 산업체/식물생명과학 및 생물공학 관련 학계 연구원 및 교수직/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촌진흥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국가 및 지방농업직 공무원/농촌진흥청 연구사 및 지도사/국립식물검역소 연구사/국가 및 지방농업직/농촌공사 등의 공무원/생물공학관련 벤처기업/의·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

#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꿈꾸다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우리 학과는 생태주의와 지속 가능한 방식의 삶을 가능하도록 농촌지역 자원의 이용을 최적화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사라진 것들을 복원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새로운 농촌지역의 시스템 구성을 담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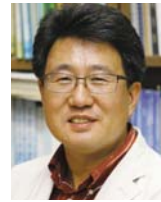
##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은 이런 학문 - 윤광식 교수

‘우리가 꿈꾸는 삶을 위한 지역시스템과 바이오시스템을 다루는 공학.’

영국은 왜 농림부와 환경부를 통합하여 농업식품환경부를 만들었을까? 작은 국토에 많은 인구, 집약적 토지 이용, 환경문제와 농업문제를 분리할 수 없었던 필연적인 선택이 아닐까? 우리가 사는 지역을 스위스와 같은 청정 자연환경과 첨단 기술을 가진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지역시스템과 바이오시스템을 다루는 학과가 있다.

우리 전공은 이제껏 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 노력해왔다. 힘든 농사일을 돕기 위해 파종부터 수확, 저장까지 각종 농업기계 제작, 농업을 위한 물 확보를 위해 장성호 등 수많은 저수지와 영산호 같은 담수호 건설, 이들로부터 농경지까지 수로 확보, 기계화 영농을 위한 경지정리 등에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쳐 왔고 졸업생들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IT 강국답게 드넓은 간척지의 물 관리를 위해 자동화된 시설을 원격제어 하고 있다. 과거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 현재는 이미 이룬 것들을 뒤로한 채 새로운 문제 해결에 매진하고 있다. 값싸고 튼튼하게만 설계하던 개념에서 벗어나 생태계 건강성과 아메니티를 추구하게 되었다. 농촌의 아메니티 자원 발굴과 계획, 녹색관광, 수질과 토양 환경 관리기술, 생태계 보전을 위한 농업용수의 다양한 이용, 정밀농업을 위한 원격탐사와 정밀 센서의 이용, 머신 비전, 식물공장, 농산물 비파괴 검사 기술, 바이오센서, 방역기계, 농산물 이력시스템 구축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변신하고 있다.

농촌이라는 공간은 전통적인 주곡 생산(Production) 공간에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이 쾌적한 삶을 꿈꾸는 공간(Place), 자연경관과 문화적 유산을 가진 여가 공간(Play), 홍수조절과 토양유실 경감, 탄소 저장 등 재해 경감의 공간(Protection)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 지역의 수자원 환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현대적인 과학을 동원하여도, 행복은 우리에게 허용된 토지에서 과하지 않게 농업생산을 하고 유기물을 취하고 이를 순환시키는 것이라는 선인들의 깨달음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우리 학과는 생태주의와 지속 가능한 방식의 삶을 가능하도록 농촌지역 자원의 이용을 최적화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사라진 것들을 복원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새로운 농촌지역의 시스템 구성을 담당할 것이다.



**윤광식 교수는**  
1999년부터 전남대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에서 지역물환경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외국어강의와 논술중심강의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외국어능력 및 사고력, 발표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면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교수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천건석 학생은**  
현재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으로서 학과 전공세미나, 발표회, 초청강연회 등 학과 행사에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을 공부하는 재미 - 천건석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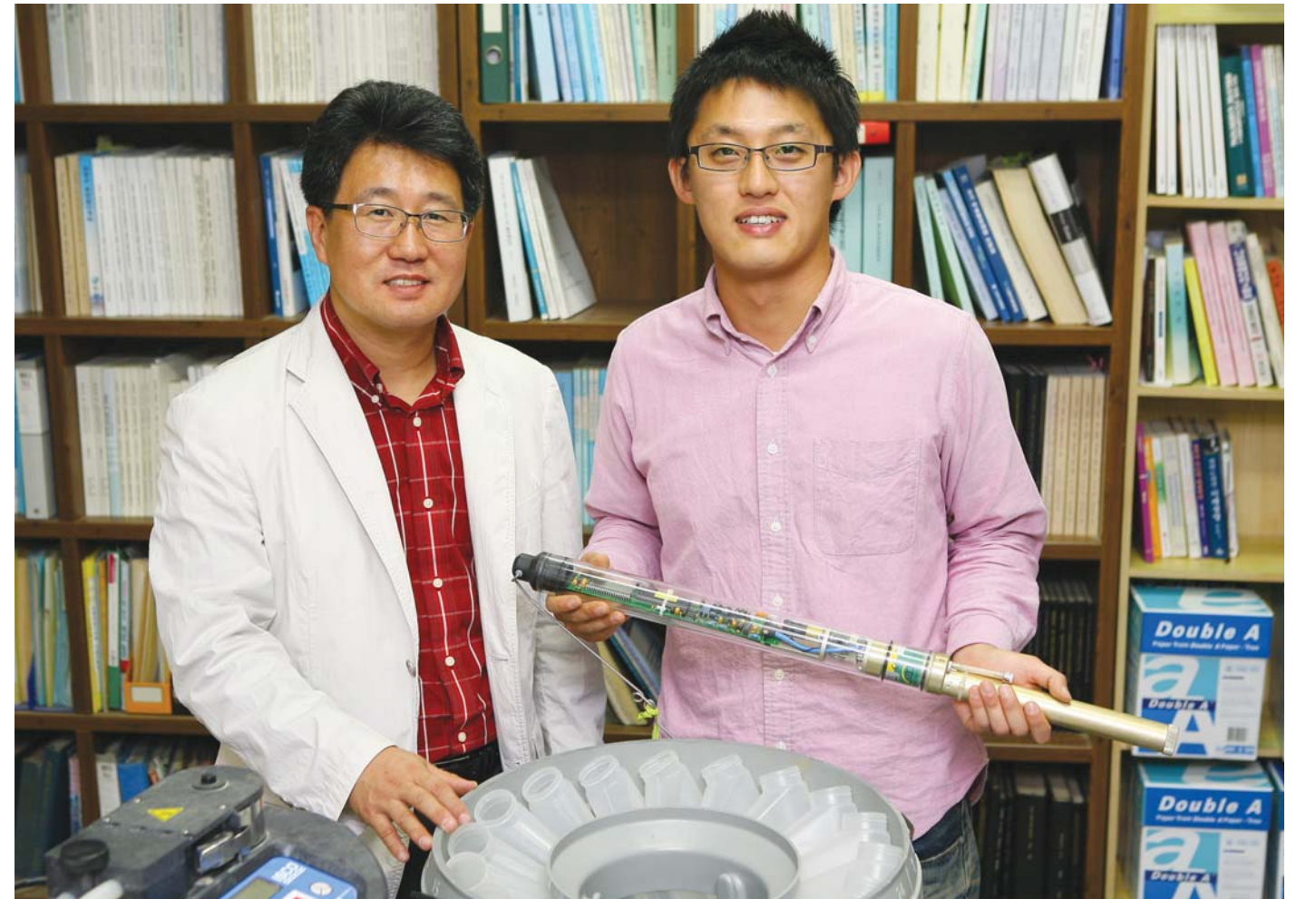
처음 우리 학과의 학과명을 접했을 때 학과의 특징과 진로를 쉽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학과 전공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학과는 농업에 필요한 활동 전반에 걸쳐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간단한 예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즉, '의·식·주'에서 '식'을 살펴보면 농업에서 기본적인 틀을 버리지 않으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임을 우리 학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평상시 관심 없이 지나쳤던 저수지, 관·배수로, 농기계, 그리고 무심결에 밟고 지나다니는 토양 등 생활 속 많은 부분이 학과 전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의·식·주'의 경우 '의·주'에 관련된 분야는 화학, 건축기술 등의 발달로 많은 변화를 이룩했고 본래의 특성이 사라진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식'의 경우 인류 생존에 있어 절대적인 분야로 예나 지금이나 중요성이 항상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무분별한 발전과 농업 분야의 천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 농업 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뿐 아니라 그에 맞춰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학과의 비전과 목표에 맞는 능력을 겸비한다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학 생활에 관한 조언을 더하자면 어디에서든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는 건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했으면 좋겠다.

- ▶학과 개설 1978년
- ▶교수진전공 분야)
  - 최수 명농촌정책·계획)
  - 윤광식관개배수)
  - 최우 정토지개발 및 복원)
  - 백원진농촌기반공학)
  - 서상룡농업동력파에너지)
  - 유수남농업기계학)
  - 최영수농업기계제어)
  - 이경환정밀농업)
- ▶졸업 후 진출 분야
  - 기술직 공무원토목직/기계직)
  - 연구직 공무원농촌진흥청/농어촌연구원/국립환경과학원)
  - 공사(한국농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 한국도로공사/대한지적공사)
  - 기업체 건설분야/식품분야/기계분야)
  - 교육기관중·고등학교/대학교)



# 식량·농업 위기 해법 찾는다 농업경제학과



**조규대 교수는**  
농업정책, 농산물무역론, 농업금융론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수의 권위보다는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문수 학생은**  
평소에 농산물 유통에 관심이 많아 농업경제학에 입학했다. 자신의 전공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자 농산물 쇼핑물을 만들어 CEO로 활동하고 있다.

## 농업경제학은 이런 학문 - 조규대 교수

어느 날 우리 과 학생과 면담을 하면서 학생이 심각하게 고민을 털어냈다. 주변에서 농업경제학과에 대해 물어오는데 우리 과를 어떻게 소개해야 하느냐고.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농업경제학.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농업경제학’을 들었을 때 ‘농업’이라는 용어 때문인지, “이 학과를 졸업하면 농사를 짓게 되는 건가요?”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농사를 지을 때 농업경제학을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경영으로 일명 ‘대박’ 농사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농업경제학을 활용하는 한 예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학교 농업경제학과에서 배우는 농업경제학은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농업과 연관된 산업에 대한 제반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사회과학 계열의 학과라고 소개하겠다. 최근에는 세계 식량 위기가 대두되면서, 학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농업경제학으로 연구하는 분야는 실로 많다. 일간 신문을 뒤져 볼 때, 채소 가격 급등, FTA-쌀 협상, 올해 채소 생산량과 전망 등이 헤드라인으로 걸쳐 지는데, 모두 농업경제학에서 다루는 문제들이다. 모두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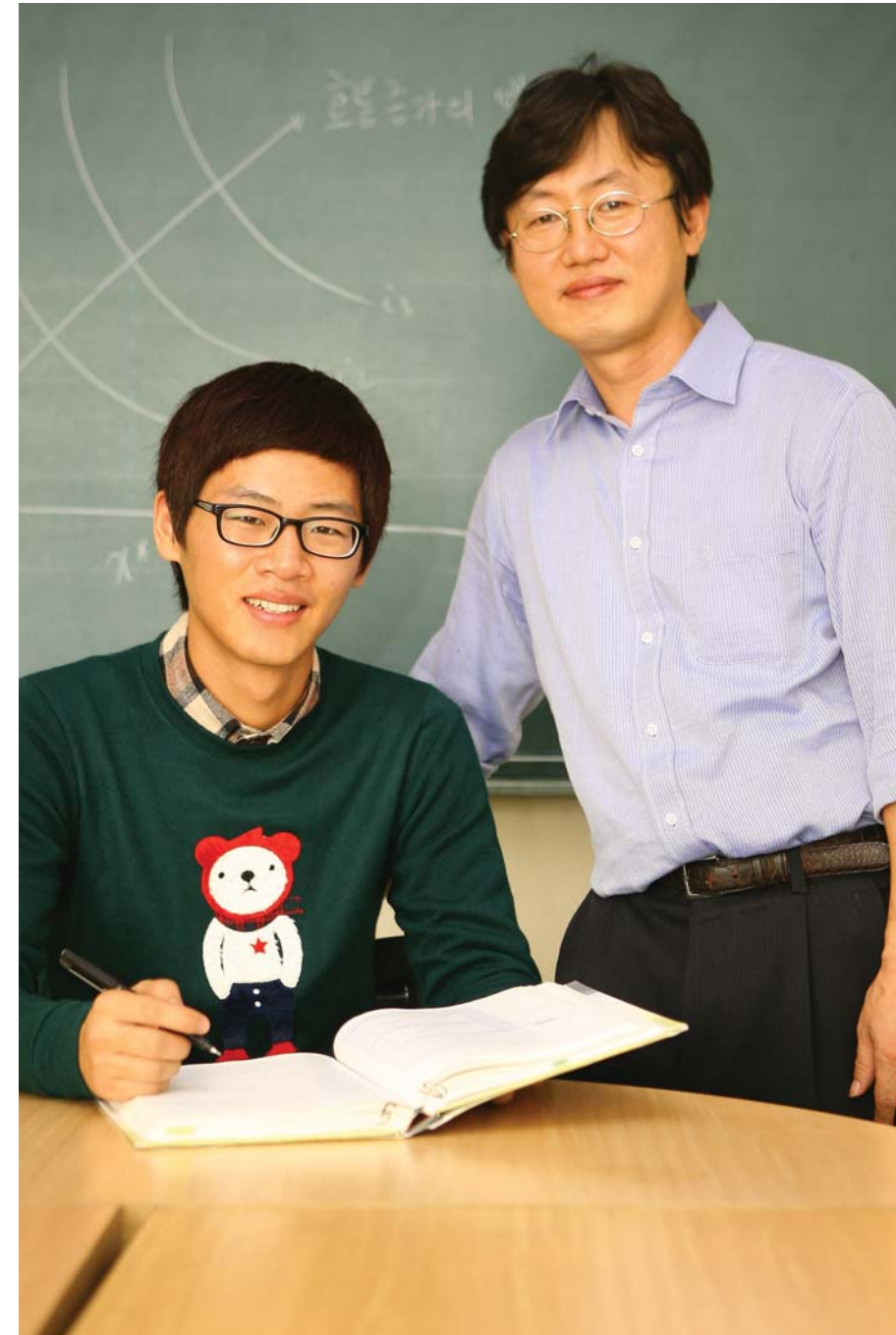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폭넓은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경영, 통계, 농촌조사, 유통, 무역, 정책 등 그 분야 또한 다양하다. 농산업·농촌사회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르치고 역량을 길러 한국 농업의 발전 및 농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농업경제학을 연구하는 목표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농업은 1차 산업이라는 편견을 버렸으면 한다. 2차, 3차 산업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 현재 활발히 진출중이다. 농업에 관심 있고, 농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번이라도 가져본 적 있다면 도전해 볼만한 분야이다.

## 농업경제학을 공부하는 재미 - 정문수 학생

내가 이 과를 들어오게 된 계기를 떠올려 보면 현재 하고 있는 나의 제2직업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업계열고를 다니며 진로를 정해가고 있을 고2때 우연치 않게 학교의 지원을 받아 농산물 쇼핑물 운영사업을 시작했다. 쇼핑물을 운영하면서 나는 ‘농산물 유통 CEO’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을 위해 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차에 성적위주의 입시에서 벗어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농업경제학과에 들어오게 되었다.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달리 좀 더 깊이 있는 농업경제를 배우고 있는 나는 매 강의시간에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다. 농업경제학과의 주요 교과목은 농업경영학, 생산경제학, 농산물 가격론, Agribusiness 경영 등이 있는데 그 중 농업경영학은 항상 나에게 재미와 새로운 자극을 준다. 한 가지를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 쇼핑물 운영에도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과 공부를 할 때 나만의 비법이 있다. 전공시험 때문에 공부해야 하는 학문으로 보지 않고 지금 당장에 쇼핑볼과 부모님의



농사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나를 보면 정말 이 학과를 잘 선택한 것 같고, 우리사회의 일부인 현 농업사회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하지만 아직은 농업경제학과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가 않다. 사람들이 “무슨 과에 다녀요?”라고 물을 때 “농업경제학과”라고 말하면 “예?” 아니면 “농사짓는 법 배우는 거예요?”라는 반응을 보일 때 나오는 무척 안타깝다. 농업경제학과는 졸업 후 일반기업체, 농협, 금융기관, 농업연구기관,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는데 전공학생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크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 어떤 것도 빠질 수 없고 버릴 수도 없는 다양한 농업경제, 경영 학문들이 모여 멋진 우리 농업의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학과가 농업경제학과다.

“ 농업경제학은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농업과 연관된 산업에 대한 제반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사회과학 계열의 학과라고 소개하겠다. 최근에는 세계 식량 위기가 대두되면서, 학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 학과 개설 1962년  
▶ 교수진(전공분야)  
서용석(수리·계량경제학)  
박준근(농산물가격론)  
김석현(지역경제학)  
조규대(농업정책학)  
강혜정(농업경영학/생산경제학)  
▶ 졸업 후 진출 분야  
농림부/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국·공영기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업 관련 연구기관/농업협동조합/기업체/  
금융계/언론계/대학원 진학 및 유학/FAO 등 국제기구

# 정치철학과 비판의식, 토대를 만든다 정치외교학과



## 정치외교학은 이런 학문 - 박의경 교수

학문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배움이 배움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적용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전공을 선택할 때 많은 학생들은 마치 학문의 매력과 취업이라는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인 양 고민한다. 그러나 십 수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정치외교학과야말로 학문적 이론과 현실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이처럼 중립적인 학문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정치외교는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정치사상을 통해 원칙과 진리를 습득하게 되고, 국제문제·외교문제를 포함한 국내외의 정치발전 과정과 이슈는 물론, 국회와 선거와 정당이라는 현실정치를 배우고 토론한다. 교내에서 학습한 여러 정치적 지식들은 다양한 현장 학습 등을 통해 견고해지고 졸업 후 정당이나 의회, 외교분야는 물론 각종 국가기관으로의 진출도 활발하다. 올바른 것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정립하고, 현실 정치사회에 대한 비판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던 학과 커리큘럼의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대학 4년은 사회로 비상하기 위한 준비단계이고, 이것은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일련의 기쁨과 고난의 반복과 연속이다. 입시의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취업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는 일이야말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일 것이다. 정치외교학과는 전남대 개교 60년과 함께 해 온 뿌리 깊은 나무다. 정치외교학과와 깊은 역사에 대한 뿌리, 정치철학을 정립할 수 있는 내 신념에 대한 견고한 뿌리를 통해 세상 밖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이곳에서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지난하게 들었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치이고, 살아가는 곳이 정치 '판' (세상)이며, 좀 더 잘 살기 위해 배우는 학문이 바로 정치외교학이기 때문이다.

##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재미 - 정은선 학생

“넌 무슨 과니?” “네? 저~정치외교학과요.” “아~그래? 미래에 정치인이 되겠구나.” 사람들이 과에 대해 물어와, 정치외교학과라 대답하면 그 이름적 특성 때문에서인지, 갑탄사와 함께 미래에 정치인이 될거냐고 되물어 보신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계진출과 같은 한정적인 범위로 정치외교학과를 바라본다. 하지만 우리학과는 미래에 정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곳은 아니다. 물론, 정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초석을 만들어 주는 곳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치인이라는 제한적인 범위를 뛰어넘어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 그리고 한국정치라는 다양한 영역을 학습하며, 학문적 깊이와 현실적 감각을 동시에 다루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외교학과라 하면, 매우 어렵고, 고지식한 학문만을 배우는 곳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학과가 단순히 이론적 지식만을 배우는 곳일까? 나는 이 물음에 “아니요”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다. 우리학과는 이론적 지식의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정치적 이슈들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우리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든 다양한 학문들을 다뤄 현대 사회에 가장 적합한 인재로 만들어 주는 곳이 바로 우리 정치외교학과이다.

나 역시 위와 같은 편견으로 인해, 처음 학과생활 시작할 때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국회와 청와대를 다녀오는 등과 같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재미와 더불어 지식을 얻을 수도 있었다. 평소에는 만나보기 힘든 국회의원 등과 같이 다양한 유명인사들의 세미나들이 자주 개최되어, 그들의 말을 듣고, 미래에 대한 거대한 포부를 가질 수도 있었다.

편견을 버리고, 정치외교학과라는 문에 용기있게 다가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정치외교는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정치사상을 통해 원칙과 진리를 습득하게 되고, 국제문제·외교문제를 포함한 국내외의 정치발전 과정과 이슈는 물론, 국회와 선거와 정당이라는 현실정치를 배우고 토론한다.**”



**박의경** 교수는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사상분야를 강의하고 있다. 고중세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적인 흐름들을 연구하고 강의하며 현실정치가 좀 더 잘(Good) 가는 방법을 탐구한다.

**정은선** 학생은 학과 전공과 학외 활동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생이다. 전공공부는 물론 독서토론 활동과 학과 홍보대사 활동 등으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

- ▶ 학과 개설 1952년
- ▶ 교수진 전공 분야
  - 임채완(국제관계사/북한정치/사외한인)
  - 자범 문(정치학 방법론/지방정부론/정치와 대중매체/미국정치론)
  - 김용철(한국정치론/비교정치론/인터넷과 정치과정/노동정치론)
  - 윤성석(국제정치경제/중남미정치경제/외교정책론)
  - 오경택(국제관계론/미국외교정책/국제기구 및 NGO 환경의 국제정치)
  - 박의경(고중세정치사상사/여성정치/근대정치사상사/현대정치사상)
  - 조정관(정치과정/민주주의/한국정치/비교정치)
  - 김재관(중국정치/중국외교/동아시아 정치경제/동북아 국제관계)
  - 김재기(diaspora politics/국제지역분쟁론/한반도와 국제정치/세계한민족의 이해)
- ▶ 졸업 후 진출 분야
  - 국회사무처/지방자치단체/정당/지방의회는 물론이고
  - 국제기구/공무원 등 정부기관에서 근무.
  - 현재 정치외교학과 출신 국가기관 공무원은 200여명에 달한다.

# 복잡한 현대사회, 그 속살을 파헤친다 사회학과



## 사회학은 이런 학문 - 박해광 교수

인간의 삶은 일견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우리는 개인적 관계에서 한 사람의 성격조차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독특한 규칙성과 질서, 일정한 유형을 드러낸다. 이러한 규칙성과 질서를 가진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사회학이다. 사회학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적 삶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는 학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학은 모든 사회과학의 기초 학문인 동시에 또한 매우 현실적인 학문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빈곤'이 우리 사회의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여긴다면, 사회학은 이 빈곤이 왜 발생하며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현상을 탐구하고 그것의 논리와 규칙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사회학은 두 가지 자질을 필요로 한다. 하나는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논리적 이성이고, 다른 하나는 풍부한 감성, 즉 사회학적 상상력이다.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이성을 발휘할 때 우리는 사회현상을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으며, 풍부한 상상력은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할 수 있게 한다.

사회학의 학문적 훈련은 그렇게 쉽지 않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사회학적 분석능력과 식견을 갖게 될 때 사회학은 현실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사회학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다른 사회와의 비교적 위치가 어디이며, 또 사회

의 주요 정책에 어떻게 개입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아주 직접적으로는 사회학을 배운 학생들은 일반 기업의 기획, 노무관리, 사무 등의 업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리서치 업계, 연구소, 신문 및 방송국 등의 언론에도 광범위하게 진출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학적 연구의 필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복잡한 사회현상의 분석과 해석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회의 방향을 상상하는 사회학은 그래서 여전히 매력적인 전공인 것이다.

## 사회학을 공부하는 재미 - 양성열 학생

사회학이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여러 개인들이 '사회'라는 집합체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고,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며 보다 나은 사회를 모색하는 학문이다.

사회학과에는 학과 내에 서로 소통하고 공부하는 소모임인 '쏘백'이 있다. Sociology 脈(맥) ← '쏘백'이라고 부른다. '쏘백'은 세상에 대한 사회학맥 짚기인 동시에 우리들 자신의 사회학과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맥을 이어가자는 의미이다. 이 소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사회학과 지도교수님의 조언과 사회학과 학우가 소모임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club.cyworld.com/enusocio)

'쏘백'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사회학적 접근이 가능한 영화를 통하여 소모임 구성원들 간의 토의처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한다.

또한 '한울학습'이라는 학습 공동체를 통해 자율적인 소모임에서 약간은 틀이 정해진 모임을 만들어 학생들의 보고서 작성 기회를 얻기도 한다. 이러한 학습 공동체는 예를 들어 '정보화 시대와 대안운동'을 통해 생태공동체와 정보화 시대를 논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모임과 학습공동체를 통해 학생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나도 뭔가 하고 싶다는 동기 부여의 기회가 된다.

이러한 학술적인 성격의 소모임과 학습 공동체도 있고, 몸으로 부딪치며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축구 소모임 '좋은 친구들(GF)'이 있다. '좋은 친구들'을 통해 예비역 선배들과 현역 후배들 간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이 마련되어 있다. '좋은 친구들'은 남자 학우들만의 축구 소모임에 그치지 않고, 매니저나 응원단과 같이 여자 학우들의 참여를 높여 현재는 사회학과 전체의 친목을 도모하는 열린 장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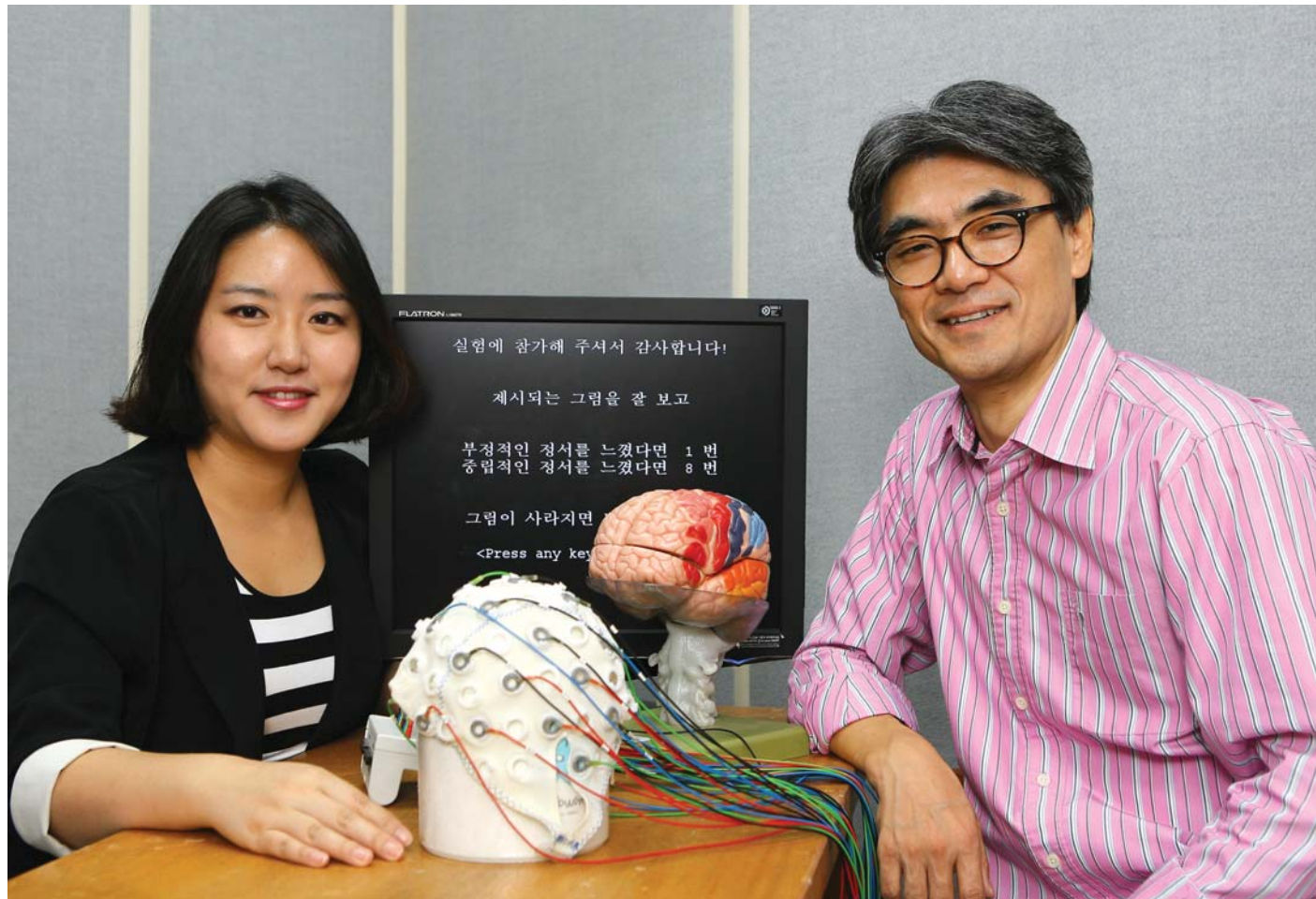
“사회학은 두 가지 자질을 필요로 한다.  
하나는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논리적 이성이고,  
다른 하나는 풍부한 감성, 즉 사회학적 상상력이다.”



**박해광 교수**  
2004년부터 전남대에서 문화, 여가, 산업, 정보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BK21창의적 지역전문기 양성사업팀 단장을 맡고 있으며, 학부 및 대학원생과 함께 지역사회현안에 대한 사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양성열 학생**  
2009년 사회학과 학생회장을 맡았으며, 사회학과 전공소모임 쏘백에서 활동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학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였다. 2010년 8월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얻는 쾌거를 달성했다.

▶ 학과 개설 1976년  
▶ 교수진(전공 분야)  
니간채(사회운동론)  
최석만(사회사상사)  
국민호(비교사회학)  
윤수중(농촌사회학)  
김준우(사회통계학)  
최정기(현대사회와 인권)  
박해광(문화사회학)  
▶ 졸업 후 진출 분야  
사회학과 졸업생들은 주로 언론계, 학계, 연구기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또는 정부기관, 기업체 등 다양한 조직체에 진출하여 행정 및 경영관리 부문에 종사함. 최근 사회조사분석사 취득한 학생들은 광고/마케팅/리서치 회사 등에 진출.



## 감정의 존재, 인간을 밝힌다 심리학과



### 심리학은 이런 학문 - 김문수 교수

지금 선생이랍시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교를 좋아한 적이 없고 나중에 선생이 될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그렇지만 대학교에 와서 심리학을 배우면서부터는 공부가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장기적인 계획 없이 재미로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심리학의 어떤 점이 내게 그다지도 재미있었던 걸까? 심리학을 배운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는 없지만 왜 사람이 어떤 특정 행동을 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는 있게 된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말이다. 계룡산 도사들처럼 사람을 척 한번 보고 그 마음을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을 따르다 보니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을 연구하게 되고 따라서 심리학이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인생과 사회의 굽직한 문제들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그건 심리학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내게는 인간에 대한 과학적 연구과정 자체가 재미있었고, 신비로워 보였던 인간의 여러 측면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부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심리학이 오로지 과학적 연구만 하는 건 아니다. 기초심리학이 지금까지 밝혀놓은 여러 원리들을 토대로 다양한 응용심리학 분야들이 인간과 사회의 문제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감정적 존재이기도 해서 인간이 겪는 많은 문제들은 개인의 이성적 통제를 벗어난 감정적인 것이다. 그런 문제들의 해결에 심리학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최근에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긍정심리학이라는 분야도 탄생했다. 우리 생활에서 심리학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심리학 연구결과들은 더 큰 재미를 줄 것이다.

“  
1+1=2 라는 수학 공식처럼 사람도 A라는 생각을 할 때  
B라는 행동을 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심리학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쉬워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심리학도들의 역할이 더욱 무게감 있지 않을까.”

### 심리학을 공부하는 재미 - 이겨레 학생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저는 심리학 전공입니다”라고 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 아마 많은 심리학도들이 (심지어는 교수님들까지도!) 질려할 만한 얘기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 봐요.”라든지 “나 상담 좀 해줘”- 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는 심리학이 관심분야로 떠올라 예전에 비해 알려져서 많이들 편견을 버리고 바라봐 주지만 특히 기성세대 중에는 아직도 심리학을 철학이라거나 심지어 접치는 학문으로 알고 계셔서 거기 나오면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사냐고 묻는 분들도 많다.

심리학은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맞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인 욕망, 충동, 무의식, 사랑 등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사람을 알려면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마음은 무형(無形)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행동의 근간이라는 가정 하에 눈에 보이는 행동을 측정하고 관찰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을 공부한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특별하므로 심리학이 아니라 심리학 할아버지가 와도 그 모든 속내를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심리학은 흥미로운 공부이지만 어렵고 조심스럽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 학문이다. 1+1=2 라는 수학 공식처럼 사람도 A라는 생각을 할 때 B라는 행동을 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심리학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쉬워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심리학도들의 역할이 더욱 무게감 있지 않을까.

학교 공부 도중에 휴학하고 가려던 유학계획이 좌절되어 한참 아르바이트 생활을 할 때도 주위 사람들은 전공이 심리학이라는 말에 ‘그럼 사람 대하는 방법 좀 알겠네.’ 라는 반응들이 많았다. 말했듯이 우리는 그런 기교를 배우지는 않기 때문에 방법은 모르지만, 단지 심리학도라는 입장에 있다 보니 사람관계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볼 기회가 늘어 그 점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얻은 간단한 결론 하나는 진심은 통한다는 것과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리학은 과학이자 소통이다. 학문적 기본기를 충실히 닦고 내 마음도 다스려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함께하고 같이 풀어가려면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를 생각해볼게 된다.

새내기 때 어느 선배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면 길이 보인다.’ 라는 말을 해 준 적이 있다. 그때는 그저 좋은 말이거나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심리학이 그 길 위에 있지 않나 싶다.



**김문수 교수**  
1996년부터 생리심리학과 학습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심리학과 최고 인기 교수인 그는 요즘 자신의 주전공 분야 외에 심리학과 관련한 다양한 소재의 책을 번역하며 심리학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겨레 학생**  
인간의 행동과 그 이면에 숨겨진 것들을 발견하고자 심리학과에 입학했다. 현재는 졸업을 앞두고 심리학도로서의 인생 두 번째 정을 열기 위해 전공 공부와 실습에 매진하고 있다.

▶ 학과 개설 1977년  
▶ 교수진(전공 분야)  
오수 성(임상심리학)  
박태진(인지심리학)  
한규 석(사회심리학)  
윤기 현(발달심리학)  
노안영(상담심리학)  
김문수(생리 및 학습 심리학)  
신현교(임상심리학)

▶ 졸업 후 진출 분야  
소정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임상심리사/전문상담사/학습치료사 등으로 근무. 통계분석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을 취득, 광고/마케팅/인공지능심리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 정보자원 조직하는 창조적 일꾼 만든다 문헌정보학과

“ 21세기 사이버 세상의 위대한 전사, 그가 곧 사서인 것이다. 관찰과 기획, 그리고 실천을 통한 21세기 창조산업의 일꾼을 키워내는 학문이기에는 이제 도서관의 울타리를 벗어난 지 오래다. ”



**문헌정보학은 이런 학문 - 정준민 교수**  
문헌정보학이 뭔지도 모른 채 대학을 진학하곤 벌써 30년이 지났다. 그런데 이제야 알 것 같은 전공이 참 야속하기만 하다. 진작 알았으면 지금쯤 노벨상은 따 놓은 대상인데... 여전히 많은 학생이 책이 좋아 문헌정보학을 지원하지만 실제 문헌정보학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어우러진 종합학문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고 깊은 학문이다. 타 전공이 그들의 전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의 행태와 결과를 관찰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학문이 바로 문헌정보학이다.  
흔히 문헌정보학을 도서관학이라 일컫는다. 물론 시대적으로 도서관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기에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서관은 진화하여 우리가 아는 인터넷 세상이 되었고 문헌정보학이 배출하는 사서는 도서관 울타리를 넘어 인터넷의 정보 서비스 첨병으로 거듭났다. 21세기 사이버 세상의 위대한 전사, 그가 곧 사서인 것이다. 관찰과 기획, 그리고 실천을 통한 21세기 창조산업의 일꾼을 키워내는 학문이기에는 이제 도서관의 울타리를 벗어난 지 오래다.  
학문도 진화한다. 그러기에 더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문헌정보학이 아닌데가. 수 천년 전 우리의 기록을 탐구하고 첨단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선도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커뮤니케이션으로 표출되는 인간의 정보행위, 그

것이야말로 우리 문헌정보학의 화두이자 대상이다. 인간의 정보 요구를 풀어주는 정보 서비스 행위가 곧 우리 문헌정보학의 목적이자 미래인 것이다. '정보자원을 조직하고 그것을 서비스하는 학문', 문헌정보학의 실체다.  
문헌정보학 출신자들이 갖는 자부심 하나, "나(사서)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그들의 편익과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새롭게 조직해 낼 줄 아는 지혜를 가르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의 차이가 만들어 주는 작은 차이 하나,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학문, 그것이 문헌정보학인 것이다. 그렇게 문헌정보학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준다. 그런데 실제 세상은 우리를 잘 모른다.  
20세기 최고의 공공 서비스 매체로서의 도서관이 보여준 완결성에 그만 우리의 기능을 물어 버려 우리 정체성이 모호해져 버리고 말았다. 너무 진화하여 더 이상의 변화가 용납되지 않은 도서관, 그러나 잠시의 자만으로 지금은 약간 뒤쳐진 서비스. 그래도 우리가 있기에 다시 그 영광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이게 우리다.

##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는 재미 - 정현미 학생

여러분은 '도서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곳?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3학년인 나도 우물쭈물 거리며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할 것 같다. '도서관은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곳?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기 전까지는 정말 이것이 도서관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었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나서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공자가 아니었을 때 갖는 관심과는 약간 달랐다. 도서관에 있는 책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들을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분류하여 정리하고, 관리하며,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 이용자들을 짝사랑 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런 이론적인 면 외에도 나는 학과 소모임인 '학도봉(학교도서관 봉사동아리의 준말임)'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키워 나갔다. 학도봉의 회원들은 매년 여름에 순천시립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여름독서캠프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 캠프는 순천시립도서관과 우리 과가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3박4일 동안 초5학년부터 중2학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서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흥미를 북돋아주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 캠프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참여하며, 인솔자의 역할로 봉사활동을 해왔고, 지금은 작은 도서관에서 초등부를 맡아서 독서지도를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공과 관련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강의실에서 이론으로만 공부했던 것을 실제로 현장에 나가 적용해보는 실습 덕분에 전공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준민 교수**  
연세대학교를 거쳐 미국에서 정보검색을 전공하였으며 도서관 부관장, 관장을 역임하였다. 한때 프로그래머로도 활동하는 등 친취직 성향을 보이는 진정한 문헌정보학도이다.

**정현미 학생**  
현재 문헌정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학업뿐 아니라 학교도서관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며,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가득한 학생이다.

- ▶ 학과 개설 1979년
- ▶ 교수진(전공분야)  
사공복희 정보학(이용자연구)  
정준민 정보학/정보검색  
홍현진 도서관경영/정보서비스  
김정현 자료조직  
이명규 자료조직/독서연구  
장우관 정보학/정보관리
- ▶ 졸업 후 진출 분야  
-사서(정사서 2급 자격을 통해 여러 관공 도서관 및 기업의 정보지도실 등)  
-사서교사(2학년 재학 중에 교직선발 후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졸업시 정사서교사 2급을 취득 가능)  
-기록관리사(문헌정보학을 전공한 후 기록관리 대학원에 진학)  
-사지학재문헌에 대한 조사, 수집, 비평 연구하는 사지학을 전공한 후 박물관 학예사, 대학도서관 고서실 및 문화재 관련 기관의 연구원으로 진출)  
-독서지도사(정규 교과과정에서 독서지도론과 독서지도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독서지도에 관한 능력을 바탕으로 사서로서의 더 큰 역량발휘를 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원 등의 기관을 통해 독서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전문 독서지도사로 활동)

# 소통으로 세상 바꾸는 언론인이 자란다 신문방송학과



## 신문방송학은 이런 학문 - 이오현 교수

신문방송학과라고 하면 흔히 기자나 피디가 되기 위해 기사작성이나 영상제작 등의 기술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만을 이해한 것으로 학과 이름에서 비롯된 오해일 것이다. 신문방송학과는 개인, 집단, 조직, 사회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소통(커뮤니케이션)방식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소통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곳이다. 신문방송학의 세부 분야로 자아커뮤니케이션, 대인커뮤니케이션, 조직커뮤니케이션, 사회커뮤니케이션, 국제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는 것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은 이러한 소통들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소통방식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대중매체의 생산물들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소통방식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깊은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에 자신의 이야기를 유통시킬 능력을 가지지 못한 개인, 집단, 또는 조직에 대한 큰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통은 기본적으로 쌍방향적인 평등함을 전제로 하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신문방송학과는 무엇보다도 인간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마음, 깊은 이해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키우는 곳이다. 인간과 사

“ 신문방송학은 행복한 삶과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평등하고 다양성이 살아있는 소통을 지향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배양시키는 분야이다. ”

회와 소통함으로써 모두가 어우러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진정한 '시민'이 되어야만, 사회를 소통시킬 수 있는 진정한 '언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학문은 결국 행복한 삶과 사회를 위한 것이다. 신문방송학 또한 행복한 삶과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평등하고 다양성이 살아있는 소통을 지향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배양시키는 분야이다. 실질적으로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소통능력은 개인의 평가에 있어서 점점 더 핵심적인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문방송학과는 단순히 신문기사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기술인'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다. 다양한 개인들, 집단들, 조직들, 사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한 이들을 서로 소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은 물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진정한 '시민'이자 '언론인'이 성장하는 곳이다.

## 신문방송학을 공부하는 재미 - 노송용 학생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문방송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저 신문방송학에 진학하면 사진이나 찍고 영상이나 만들면서 모두가 신문사나 방송국에 취직하기 위해 열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은 1학년 전공 수업에서부터 비참하게 짓밟혔다. 첫 전공 수업, 선생님께서는 칠판에 크게 'Communication'이라고 쓰셨다.

흔히들 신문방송학과라 하면 언론계통만을 생각한다. 우리의 진로도 기자, PD, 아나운서로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일할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배우는 학문으로 작게는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넓게는 매스 미디어를 통한 소통의 총체적인 현상을 학습하고 연구하게 된다. 그래서 가끔 교수님들께서 과 이름을 신문방송학과가 아닌 커뮤니케이션학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 학문이 단편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고 난 뒤부터 나는 더욱 커뮤니케이션학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일상생활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현상들을 탐구하고 그 현상에 대해 연구해 볼 때면 나의 눈에서는 이글이글 불꽃이 타오른다. 이러한 모든 학습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열린 생각과 자신의 시각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교수님들의 수업이 대부분이다. 우리 학과 수업을 일반선택으로 듣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확실히 신빙과 수업은 뭔가 다르다는 평을 많이 듣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아마도 텔레비전을 많이 보라고 잔소리하는 곳은 우리 과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많은 남자 학우들이 드라마에 빠져 사는 곳도 우리 밖에 없을 것이다. 드라마를 보며 영상 언어에 대해 배우고 앞으로의 전개에 대해 예측해 보기도 한다. 주변에서는 드라마도 시끄럽게 보는 나에게 그저 텔레비전을 즐기라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나에게 즐기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학문이 바로 우리의 신문방송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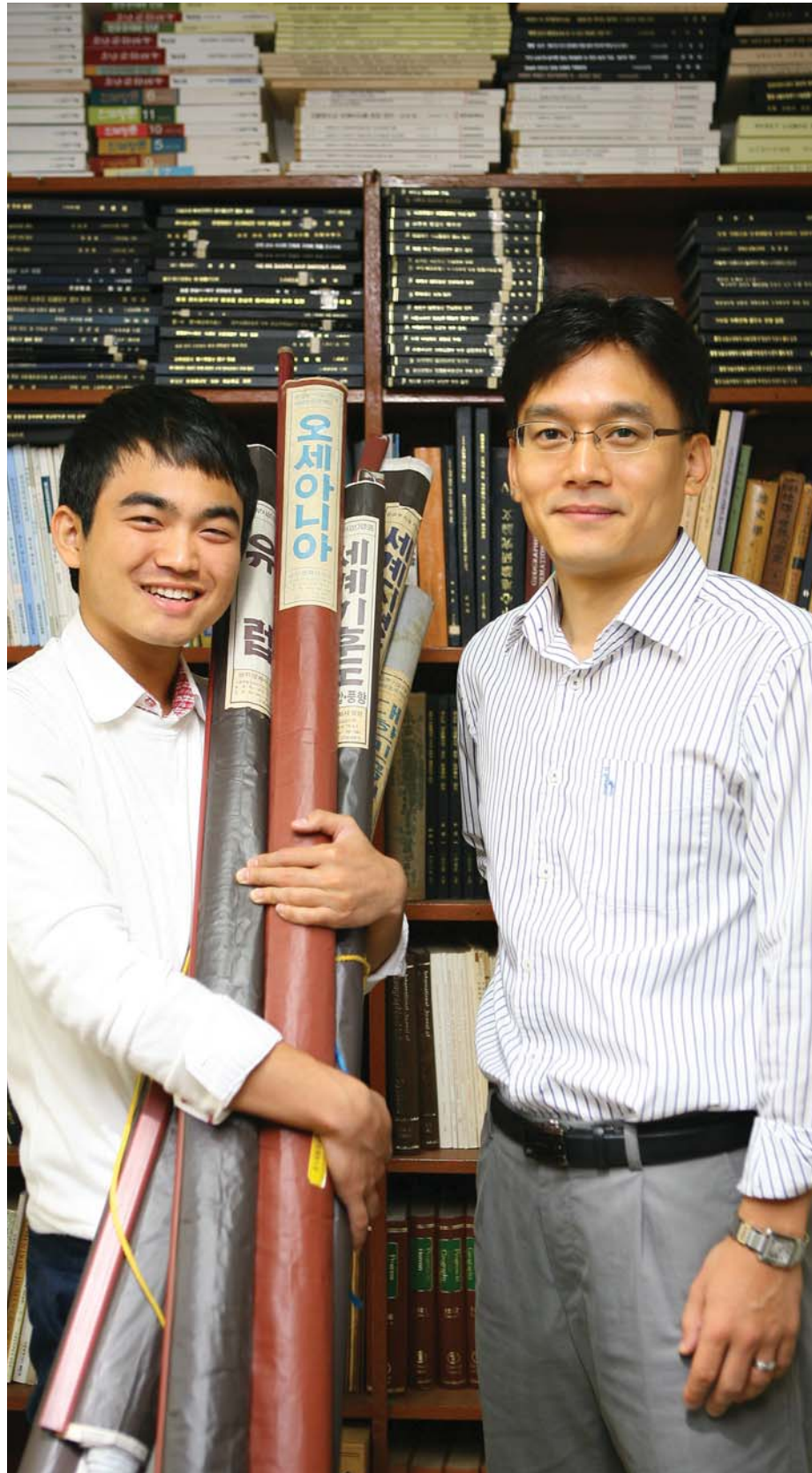


**이오현 교수**  
학사모를 쓰면 해리포터를 닮았다. 현재 신문방송학과에서 학생들에게 다르게 보는 시선을 가르치고 있다. 더불어 지금 그는 슈퍼스타 K 시즌 2에 열광하고 있다.

**노송용 학생**  
TV에 관심이 많아 청운의 꿈을 안고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했다. 3학년 지난 지금은 그의 지도 교수님과 함께 슈퍼스타 K 시즌 2에 열광하고 있다. 시즌 3라도 만들 테세로... 언젠가는 만들 것이다.

- ▶학과 개설 1981년
- ▶교수진(전공 분야)
- 김원태(대중문화)
- 송정민(저널리즘)
- 이의정(인간커뮤니케이션)
- 유종원(언론사상)
- 김영기(비평커뮤니케이션)
- 주정민(멀티미디어)
- 이오현(문화연구)
- ▶졸업 후 진출 분야
- 종합일간지/전문지(방송사/방송프로덕션/광고회사/출판사/기업체 홍보/사보 담당/정부기관 공보 담당/프리랜서 분야 등

# 지구와 인간, 그 총체적 관계를 탐구한다 지리학과



## 지리학과는 이런 학문 - 박정재 교수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인 에드워드 윌슨이 집필한 유명한 저서 'Consilience'가 국내에서 번역된 이후 'Consilience' 즉 '통섭'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되었다.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지리학의 하위 분야인 섬생물지리학의 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한 사람으로 지리학자로 바라봐도 어색함이 없다. 사실 그가 내세운 '통섭'이라는 개념은 인문과 자연을 포괄하는 '지리학'에서 오래전부터 추구해 온 것으로 지리학자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총·균·쇠'의 저자로 유명한 제어드 다리아몬드 박사는 원래 생리학을 공부한 자연과학자였다. 이후 자연과 인문을 넘나들며 -지리학, 생물학, 고고학 등- 많은 업적을 남기고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 UCLA 대학의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명저 '총·균·쇠'와 '문명의 몰락'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의 사고방식과 지식이 지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지리학은 다양한 하위학문 분야를 포괄하며 크게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으로 나뉜다. 인문지리학은 경제지리, 사회지리, 도시지리, 정치지리, 문화지리, 역사지리, 교통지리 등으로 구성되고, 자연지리학은 지형학, 생물지리학, 기후학, 토양지리학, 수문학 등으로 구성된다. 지리학은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종합학문으로써의 효용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학문의 세분화 경향에 밀려 사회적으로 매력을 잃고 그 중요성이 폄하되어 왔다. 지리학이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학문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악점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지구(땅)와 인간의 관계를 시공간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지리학은 현대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복잡해질수록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학문이다.”

를 구성하는 개개 요소를 파악한 후 통합하여 종합적인 결과물을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재해 문제에서 지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재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결과들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하여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총괄자의 능력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능력은 단기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훈련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지리학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지구(땅)와 인간의 관계를 시공간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지리학은 현대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복잡해질수록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학문이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지리학자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자신한다.

## 지리학을 공부하는 재미 - 윤원재 학생

지리학을 배운 지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은 내가 전공에 대해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은 웃긴 것 같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2년 동안 전공을 이해하고자 열심히 노력했다. 지리학이 백과사전식 학문이란 소리를 많이 듣는다. 그렇지만 지리학과에 입학 후,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회과학분야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학문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 개인의 삶은 공간에서 시작해 공간에서 끝난다. 일상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공간에서 일어난다. 인간의 모든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 또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또 지표상의 모든 자연환경들 역시 공간위에 나타나며 이런 자연환경들은 인간생활에 꾸준한 영향을 주고받았다. 기후현상도 단지 하늘위에서 나타나는 과학현상의 일종이 아니라 기후현상으로 인해 인간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요즘은 기후의 급변으로 인해 기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리학은 모든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대상이자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라 생각한다.

지리학을 배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지리학 내에 많은 분야가 있어서인지 다른 분야들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고 그에 대한 이해도 빠르다는 것이다. 또 이는 사회 전반적인 시사 등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지리학의 장점 중 하나는 이렇듯 폭넓은 분야를 공부함으로써 다른 분야와의 연계가 쉽다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전공수업을 들으면서 그와 관련된 다른 전공분야를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을 신청하여 공부한다면 차후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할 때, 가깝게는 학교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더 폭넓은 이해를 통해 더 재밌게 학교공부를 할 수 있다.

또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답사는 지리학과만의 매력이다. 정기답사를 통해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을 직접 체험하고 관찰해 봄으로써 현실적 적응력 배양을 꾀할 수 있다. 책에서만 보던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인문 및 사회과학계열의 학문으로서 는 쉽지 않지만 지리학과에서 그 과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다. 지리는 지극히 일상적인 곳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실용적이다. 나의 진로가 아직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전담대 지리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나의 전공, 지리는 나의 갈 길을 제시해 인생의 길을 잃지 않게 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



### 박정재 교수는

2007년부터 전남대에서 자연지리학, 생물지리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과거 식생 및 기후 변화 그리고 인간이 환경에 미친 영향 등에 관심이 있다. 학생들과 함께 답사를 다니고, 실형을 하면서 늘 소통하며 공유하길 원하는 선생님이고 싶다.

### 윤원재 학생은

'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공부해 보고자 멀리 경남에서 유학을 왔다. 사회봉사부를 공부하는 학과 소모임 사과연(사회과학연구회)에서 활동 중이다. 인문지리와 자연지리 양 분야를 함께 응용하며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 ▶학과 개설 1980년

### ▶교수진(전공분야)

- 박승필(지형학)
- 이현욱(도시지리)
- 이정록(지역개발)
- 안영진(경제지리)
- 박정재(생물지리)

### ▶졸업 후 진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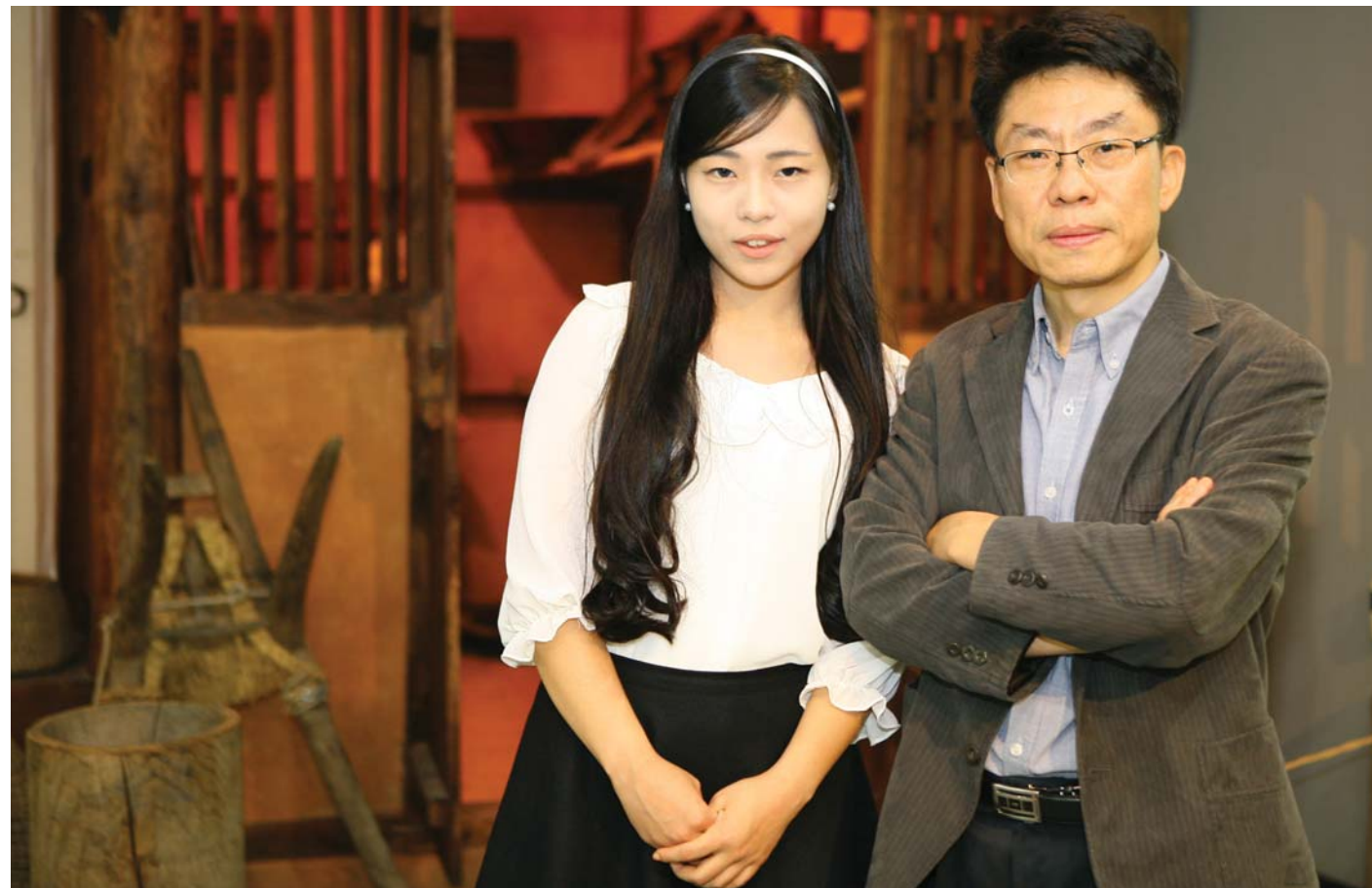
- 교육 기관/행정 기관(인문 기관/각종 연구소/기업/지도 제작사/여행사/특급호텔/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 심화교육을 통하여 지역 연구자/국제 지역전문가/지도 제작 및 GIS 전문가 진출
-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CAD자격증/지적기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 취득 가능

# 다양한 인류의 삶 그 의미를 묻는다 인류학과

## 인류학은 이런 학문 - 김경학 교수

흔히 문화인류학을 소위 원시인과 인간 진화 과정만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인류학에 매력을 느끼고 공부를 시작한 것은 이것만은 아니었다. 문화는 삶의 양식이고 관념체계라고 간단히 정의된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나는 인류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알고자 선택한 사회와 문화가 인도사회와 인도문화였고, 지난 20여 년 동안 난 인도를 방문하고 늘 인도문화를 생각하며 지내게 되었다.

내가 속해 있는 인류학과 교수진은 문화인류학과 고고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인류학과 교수들은 시대적으로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사회를, 공간적으로는 우리사회와 세계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인간의 보편성과 차이를 발굴된 유물과 직접적인 행위 관찰을 통해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은 4년 동안 고고학 발굴 현장과 박물관 등에서 유물을 발굴하고 탐구함으로써 오래된 과거의 삶의 양식과 행위 및 관념을 이해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의 도시와 농촌에서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도 하고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참여관찰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인터넷 등 통신수단과 글로벌 관광산업의 발달로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 한국에도 다양한 이유로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더욱 늘어갈 전망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차별이 아닌 차이의 존중과 이해를 강조하는 문화인류학적 훈련을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인류학과 교수들은 시대적으로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사회를, 공간적으로는 우리사회와 세계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인간의 보편성과 차이를 발굴된 유물과 직접적인 행위 관찰을 통해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강의실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인류학과에서 고고학과 문화인류학을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매력은 졸업 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각계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문화 간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분야나 국제 협력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박물관과 발굴 기관은 인류학 훈련을 받은 졸업생이 진출 가능한 영역들이다. 특히 광주를 아시아문화발전의 선도적 교류, 창조, 연구, 교육 중심도시로 육성하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탐구에 특별히 관심 있는 문화연구자는 자신의 꿈에 도전해 볼만하지 않을까 싶다.

## 인류학을 공부하는 재미-송아름 학생

‘과거를 아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현재를 아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이것이 내가 문화인류학과 고고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 느끼는 가장 큰 매력이다. 문화인류학은 현재의 다양한 세계문화를 연구하고, 고고학은 과거 역사를 구체적 사물로써 추측해보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인류학과는 고고학과, 문화인류학과 전공으로 나뉘어 인간의 시간 축과 공간 축을 탐구하는 학과이다. 한 학과 내에서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내가 인류학과를 지원한 가장 큰 동기였다.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는 시각이다. 친숙한 일상 속 아무런 의심 없이 행해지던 일에 대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낯설음에서 우리 생활 전반은 문화인류학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여러 지역, 계층의 생활과 문화를 인터뷰와 설문조사와 같은 현지조사를 통해 연구한다. 현지조사에서는 낯선 현지인들과의 친화감을 형성하여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배우며, 나아가 세계 문화와 민족을 연구하기 위해 해외에도 진출하여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보통 고고학하면 ‘인디아나 존스’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고고학은 단순한 보물찾기가 아닌 인류가 남긴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중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들을 기록하는 일련의 규격화된 작업이다. 고고학은 실외와 실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나뉜다. 먼저 실외에선 여러 지역의 유적을 실제로 답사하거나, 중국·일본 등의 답사를 통해 동북아시아 고고학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방학을 이용해서 (재단법인)호남문화재연구원과 같은 발굴 전담연구원의 실습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발굴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울 수 있다. 발굴한 유구와 유물은 실내에서 분류·정리·해석과 같은 일련의 작업을 거친다. 인류학과 학생은 박물관 근로 장학생과 실내연구실습생 등을 통해 이를 경험할 수 있다.

전공뿐만 아니라 인류학과 학생들은 교육역량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일반취업 준비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최근 학교에서 주관하여 지원하는 필리핀·호주 등 해외어학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보유한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김경학 교수**  
1996년부터 전남대 인류학과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다. 특별히 인도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관념체계를 탐구하기 위해 인도와 호주, 캐나다, 피지 등의 인도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다.

**송아름 학생**  
‘시간을 달리는 소녀’ 다. 구체적인 사물을 통한 과거연구와 다양한 현재문화를 조사하는 문화인류학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이 시대 경쟁력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 ▶학과 개설 1992년
- ▶교수진(전공분야)  
최혜민 문화변동론/응용인류학/민족문제/해외지역 현인연구  
임영진(현) 백제 고고학/동북아시아 교류고고학)  
김경학 도시문화/다문화주의/성화 문화/노동과 사회불평등/  
가족과 친족/문화와 정치·경제/지역과 재현  
김경희 문화와 종교/인도인 디아스포라/국제아주 남아시아 지역연구  
홍상원 경제인류학/일본문화/농민사회학/문화이론/조직(집단)과 개인  
이기원 영상인류학/시간인류학/미디어인류학/다큐멘터리영화/사건인류학)  
조진선(정동기시대 고고학(정동기))  
김민구(식물고고학/수렵채집사회/농경)
- ▶졸업 후 진출 분야  
국·공·사립·대학박물관/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  
각종 문화재조사기관/문화관광부 등으로 진출하여  
문화 전시·기획·발굴 및 학예직공무원 등으로 근무.  
언론사/기업체/연구소/공무원/사회복지기관/교육기관 등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 대학원으로 진학.

# ‘국가 경영’의 넓은 시야를 키운다 행정학과

## 행정학은 이런 학문 - 송충근 교수

행정학은 행정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해 행정학은 개인, 집단, 사회, 국가단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행정학은 사회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하여 보다 나은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행정(行政)이 정(政)을 행(行)하는 것이라고 보면 행정학은 바르게 권력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행정이 정부중심이었다면 오늘날 그것은 정부, 시민, 시장의 상호협력력을 특징으로 한다. 일례로서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후보자들이 직책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가리는 국회정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위공직자들에게는 흔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들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될 것이므로 그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예로 배추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중간도매상들만 폭리를 얻고 있는데, 좋은 정부라면 중간도매상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한 대표적인 예로 2004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가격폭리제한법(price-gouging law)을 통해 부당한 폭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부공직자라면 이러한 문제를 공공의식에 적합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의제가 작은 정부가 효율적인가, 아니면 거대한 정부가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다. 하이에크(J. Hyek)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은 정부가 개입할 경우 경제적인 번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많은 경우 시장 내의 자생적인 질서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시 미국정부

가 자동차회사나 시중은행의 파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해결한 사실은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여러 가지 예상되는 실패를 막고 보완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러한 문제들은 행정학에 있어서 중요한 의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학도는 이론적, 경험적인 방법으로 특정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이해집단 간의 관계, 경제적인 위기 시 정부개입의 수준등을 연구해야 한다.

행정학도들은 졸업 후 행정고시를 비롯한 공무원시험을 통해 정부조직은 물론이고 국제기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일반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변호사나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수도 있다. 최근 비정부조직(NGO)에도 행정학도를 다수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학도들이 사회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보다 잘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행정학은 사회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하여  
보다 나은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행정(行政)이 정(政)을 행(行)하는 것이라고 보면  
행정학은 바르게 권력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 행정학을 공부하는 재미 - 진이지 학생

행정학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와 연관되어 생각한다. 물론 시험 관련과목이 많아, 공직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거치기 좋은 ‘정통 코스’라고 할 수 있지만, 행정학도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멋없고 단순한 학문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 같아 속상하다. 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공무원의 역할을 보고, 공직진출의 목표를 가지고 행정학과에 진학하였지만,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그 이상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행정학은 국가를 경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국가 및 세계 경영이라는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 감각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인접학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론적인 틀을 갖추어 나가는 학문이다. 학부생활을 하며 우리는 국가라는 큰 틀을 움직이는 원리뿐 아니라 조직의 관리, 예산, 운영 등의 세부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공공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 덕분에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국제적 감각, 넓은 시야,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 진출의 폭이 넓고, 어느 분야에서나 능력 있는 관리자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행정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공익 이념에 바탕을 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학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은 행정은 정해진 학문적 영역을 벗어나 실제 생활에 적용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멋진 학문이라는 것이다. 사회가 날로 다양·복잡해짐에 따라 행정현상은 광범위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우리는 행정학을 통해 사회 속 다양한 행정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며, 나아가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송충근 교수**  
정책분석과 지식정보관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항상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 ‘내가 학생에게 다가서자’라는 생각으로 가르침의 희열을 느끼고 있다.

**진이지 학생**  
경제학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총장명예학생과 공공행정연구소에서 국가 근로 장학생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학문분야와 활동에 열심인 이유는, 행정학도로서 다양한 경험과 문제해결 역량을 갖추고 싶다는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 ▶ 학과 개설 1954년
- ▶ 교수진(전공 분야)
- 김성기(행정조직론·행정철학)
- 신원형(행정관리·한국행정)
- 임두택(인사행정·정책학)
- 장건준(정책평가·계량행정)
- 오재일(지방행정·지방자치)
- 복문수(재무행정·공기업론)
- 이영철(행정조직론·노동정책)
- 최성욱(행정학)
- 송충근(정책분석·지식정보관리)
- 김호근(조직론·공공관리)
- 서준(과도시정책·도시계획)
- 삼미(송북지행정)
- ▶ 졸업 후 진출 분야
- 국회/감사원/정부 부처(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노동부/법무부/법제처/국방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보건복지부 등)/식품의약품/통계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국가인권위원회/금융기관/일반 기업체/특허청/공사/법조인/교사/교수/연론사/법원/세무·회계 등



## 세상을 보는 눈 실천하는 지성 키운다 생활환경복지학과



### 생활환경복지학은 이런 학문 - 이정화 교수

생활환경복지학과를 어떻게 설명할까? 생활환경복지학은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사회 속에서의 '나', '가족' 안에서의 '나'로 살면서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으로 따뜻하고 기특한 학문이라고 하면 설명이 될지. 학부를 다닐 때 아동발달과 성인발달을 배울 때, '아~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해왔고, 앞으로의 내 삶은 어떤 궤적을 그리겠구나' 하면서 미래의 내 일과 가족, 부모로서의 삶을 꿈꾸었다. 가족학 시간에는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 같이 아주 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학문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음에 즐거웠다. 주거학, 실내디자인 수업은 보다 쾌적한 삶과 멋진 생활에 대한 심미안을 갖게 해주었고,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공부할 때는 적극적 소비자로서의 자세를 다잡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세상을 향한 뜨거운 가슴뿐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지성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고민하게 했다.

생활복지학은 실천과 응용을 중요시한다. '이론에 대한 지식' 보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를 더 강조하게 된다. 가족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알아야 할 의사소통의 공식을 연습해 본다거나, '저출산 고령사회' 이슈를 다루면서 개인과 사회의 책임, '부모됨의 의미'에 대해 설전(舌戰)을 벌이기도 한다.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뿐 아

니라 실습과목을 통해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도 해보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분쟁을 조정할 것인지도 토론해본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낸 석학 자크 아탈리는 '관계자산(relation capital)'을 키우라 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가난은 '갖지 못한 것'을 의미했으나, 가까운 장래에는 네트워크에 '소속되지 못한 것'으로 바뀐다고 한다. 네트워크에 소속되는 것, 관계자산을 키우는 것은 주도적으로 성취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선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생활환경복지학은 개인간, 가족간, 사회구성원간 '소통'을 골자로 한다. 미래사회에 돈이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진, 네트워크를 통한 타인과의 소통이 원활한, 주위 사람을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화목한 가정과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탁월한 전문기를 키우는 학문이 생활환경복지학이라면, 생활환경복지학을 전공한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어찌 각광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활복지학은 실천과 응용을 중요시한다. 가족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알아야 할 의사소통의 공식을 연습해 본다거나, '저출산 고령사회' 이슈를 다루면서 개인과 사회의 책임, '부모됨의 의미'에 대해 설전(舌戰)을 벌이기도 한다.”

### 생활환경복지학을 공부하는 재미 - 권수영 학생

우리 학과는 주거학, 소비자학, 아동학, 가족학, 노년학, 사회복지학 등등 매우 다양한 학문을 배운다. 그래서 가끔 그해 TV에서 방영하는 인기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아 우리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다. '신동엽의 러브하우스'가 한창 인기 있었을 때에는 주거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지원하는 학생이 많았고, '소비자 고발'이 인기였을 때에는 소비자학,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가 방송될 때에는 아동학을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전해 들었다. 다양한 학문을 배우는 만큼 그 학문마다 전해지는 매력이 각각 다르다는 게 우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다. 가끔은 인간으로 완성되는 듯한 느낌도 받는다. 아동학부터 가족학, 노년학까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회까지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갖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무슨 과에 다녀요?"라고 물을 때 "생활환경복지학과"라고 말하면 대부분 "예?" 아니면 "네~(모르겠다는 의미)라"는 반응을 보인다. 너무 안타깝다. 전공 학생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크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대답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가정의 재정관리 방법과 우리가 사는 주거환경을 공부하고요, 아동에 관해서도 공부하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요, 가족학을 배우기 때문에 부부 또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방법과 가족법 등 실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정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학문들을 배우는 학과랍니다."라고 말해 드리고 싶다. 그 어떤 것도 빠질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다양한 학문들이 모여 어색한 만남이 아닌, 멋진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어내는 학과가 생활환경복지학과다.

학과 공부도 정말 재미있다. 나만의 비법이 있다. 전공을 시험때문에 공부해야 하는 학문으로 보지 않고 지금 당장 실생활에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의 틀을 바꿔보는 것이다. 아동상담가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배운 학문을 아이들에게 활용해보기도 하고, 소비자 권익 운동가가 되어 나의 소비자로서 권익을 찾아가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도 한다. 이렇게 일상의 삶과 연결시켜 공부를 하다보면 이미 학문이 아니라 즐거운 생활이 되고 자연스럽게 공부에도 재미와 열정을 갖게 된다.



**이정화 교수**  
2006년부터 전남대에서 가족복지 및 노인복지를 가르치고 있다. 전남대 여성연구소장, 한국가족관계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고, 최근 이훙고 교학상장, 진로지도교수, 다독다독공동체 U-makers 프로그램 등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과 소통하고자 하며 새로운 교수법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권수영 학생**  
가족 및 아동 상담에 관심이 많아 생활환경복지학과에 입학했다. 2010년 8월 졸업 후 상담분야에 관심을 갖고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학과 개설 1979년  
▶교수진(전공분야)  
황덕순(소비자경제)  
김미혜(주거계획 및 복지)  
이숙아(동성상담)  
김경신(가족복지 및 정책)  
홍은(실소비자학)  
이정화(노인복지)  
이주연(아동발달 및 영유아보육)  
▶졸업 후 진출 분야  
보육교사와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실내의장기사/소비자전문상담사/이상 국가자격증/가족상담사/주거환경사/아동상담사/인지행동치료사/놀이치료사/소비자재무설계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재학생의 10%는 가정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일반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와 사회복지 협동과정, 실내디자인 협동과정, 교육대학원 가정교육학과에 진학할 수 있다. 졸업생은 전공분야의 교수/연구원/아동·가족·사회복지기관 기관장/전문강사/사회복지전문연구원 등에 진출해 있다.

# 우리말과 문학 한국인의 정체성 찾는다 국어국문학과

“국문과 학생들은 우리 말과 문학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읽고 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전공보다도 뛰어난 해독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 국어국문학은 이런 학문 - 이진호 교수

국어국문학과를 줄여 흔히 '국문과'라고 한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굶는과(‘굶는 학과’라는 의미)라고도 한다. 요즘 식의 경제 논리로 본다면 그저 그런, 아니 가면 안 되는 학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3 때 학과를 결정하면서 국문과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주위에서 반대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을 수도 있다.

왜 사람들은 국문과를 나오면 힘들다고 생각할까? 가만 생각해 보면 국문과의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적은 것 같기도 하다. 국문과 졸업생의 진로로는 우선 국어교사, 기자, 문인 등을 떠올리는데 모두 되기가 무척 어렵고 자리도 많지가 않다. 물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국문과 졸업생은 어디든 취업할 수 있기도 하다. 우리 말과 우리 글이 있는 한 국문과 졸업생들은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문과 진학을 말리는 것 같다.

국문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직장에서 곧장 써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어 문법이나 문학 작품에 대한 지식은 직장 생활에서 절실하게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국문과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안 된다. 대학은 사회생활을 훌륭히 잘 해 낼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동시에 어떤 상황이든지 대처할 수 있고 어떤 정보든지 습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곳이다. 국문과 학생들은 우리 말과 문학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읽고 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전공보다도 뛰어난 해독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이처럼 국문과에서는 장래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능력을 배울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잘 습득하여 자신의 노력을 덧붙인 국문과 졸업생 중에는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존경 받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국문과를 나오면 굶는다고 말하면서도 국문과 출신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묻는 것도 참 많다. 어려운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는 물론 올바른 발음, 맞춤법, 심지어 한국 민속이나 역사까지도 묻는다. 이것만 봐도 국문과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의 정체성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는 우리 말과 우리 문학을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기에 국문과 구성원들은 세속의 욕망을 잊은 채 정말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다.

## 국어국문학을 공부하는 재미 - 신동원 학생

국문과에 다닌다고 하면 한국말 할 줄 알겠지 도대체 대학까지 가서 국어를 뭘 배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은근슬쩍 넘겼지만 비단 국어 전공자인 나뿐 아니라 다른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역시 한 번쯤은 자신에게 해박하



**이진호 교수는**  
2003년부터 전남대 국문과에서 국어 문법을 가르쳐 왔다. 가르치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배우는 사람도 저절로 열심히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학생들이 재미없어 하는 문법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가르칠지를 늘 고민한다.

**신동원 학생은**  
지난 2006년도에 전남대 국문과에 입학하였다. 현재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감동 있는 시나리오를 쓸까 고민하며, 열심히 언어를 배우고 있다.



국어국문학은  
한국인의 정체성 찾는다  
국어국문학과  
이진호 교수  
신동원 학생

는 질문인 것 같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렇다면 국문학 전공자인 나의 대답은 무엇일까? '나는 언어의 본질과 그 응용에 대해 탐구한다.'라고 하면 거칠지만 그럴 듯한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말소리와 그 의미 그리고 그 소리와 의미를 규약하는 문법규칙, 언어의 변천사, 언어를 기록하는 문자, 언어로 쓰여진 문학작품, 화법, 언어 문화까지 언어 전반에 걸친 모든 학문을 탐구한다. 물리학 법칙은 학문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유효한 것 같다. 개체들은 불규칙성과 혼돈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항상 질서화하려는 경향 때문에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엔트로피 법칙이다. 나는 전공을 택하는 것은 인생에 엔트로피 법칙을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기 많은 혼란과 망설임이 있겠지만 일단 무엇인가 선택하고 나면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기고 길이 보인다. 나 역시 국문과에 입학하면서 많은 기회를 제공받았다. 한문학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도 생기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스토리텔링 교육과정도 참여하고 소설창작에 관한 논문지도도 받는다. 학문의 상아탑 속에 갇혀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살아있는 언어를 체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생각한다. 취업이 어렵거나 혹은 기초학문에 대한 편견으로 국문학을 선택하기를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다. 동기는 기회를 낚고 기회는 또 다른 동기를 낚는다. 일단 들어서기만 하면, 그리고 좋아한다면 서서히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자, 시작하라!

- ▶학과 개설 1952년
- ▶교수진(전공 분야)  
윤평현(의미론)  
송하진(국어사)  
김신영(고전사)  
손희해(중세국어)  
임환도(문학이론)  
김내현(한문학)  
신해진(고전전문)  
표인주(비문학)
- ▶졸업 후 진출 분야  
-언론계(PD/아나운서/기자/방송 및 시나리오 작가/카피라이터)  
-학계(대학교수/학예 연구사/문화전문 연구원)  
-교육계(중·고등학교 교사/한국어교사)  
-출판계(편집 기획자/공무원(교육·행정직))  
-기업체(인사·마케팅 부서)/문학계(시인/소설가/수필가/평론가)  
최근에는 스타트업 분야에도 진출.



# 유럽 경제대국 그 저력을 읽는다 독일언어문학과

“ 현재 1억 5000만 명 이상이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실제로 유럽연합(EU)의  
21개 공식어 중에서 독일어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서  
유럽 제1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



**김홍섭 교수**  
2004년도부터 모교인 전남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독일문학과 문화 예술 분야를 담당하는  
그는 강의준비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인다.  
늘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시간을 기다린다.

**이인정 학생**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전공공부와 학과 생활을 밑바탕으로,  
앞으로 한국과 유럽대륙 사이의 다리가 되어, 우리의  
경제·문화 영토를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specialist가 되려고 한다.

## 독일언어문학은 이런 학문 - 김홍섭 교수

우리 '독일언어문학과'는 명칭 그대로 우선 독일어를 공부하는 곳이다. 흔히 독일어는 독일에서만 사용하는 언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독일 이외에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에서는 국어로 사용되고,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공용어로 사용된다. 현재 1억 5000만 명이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실제로 유럽연합(EU)의 21개 공식어 중에서 독일어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서 유럽 제1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 통계에 의하면 독일어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외국어과목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다른 언어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는 독일이 유럽연합의 중추국가로 활약하고 있고, 독일 경제가 유럽 경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어의 중요성 또한 더욱 높아진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사실은 곧 독일어가 유럽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언어보다 유용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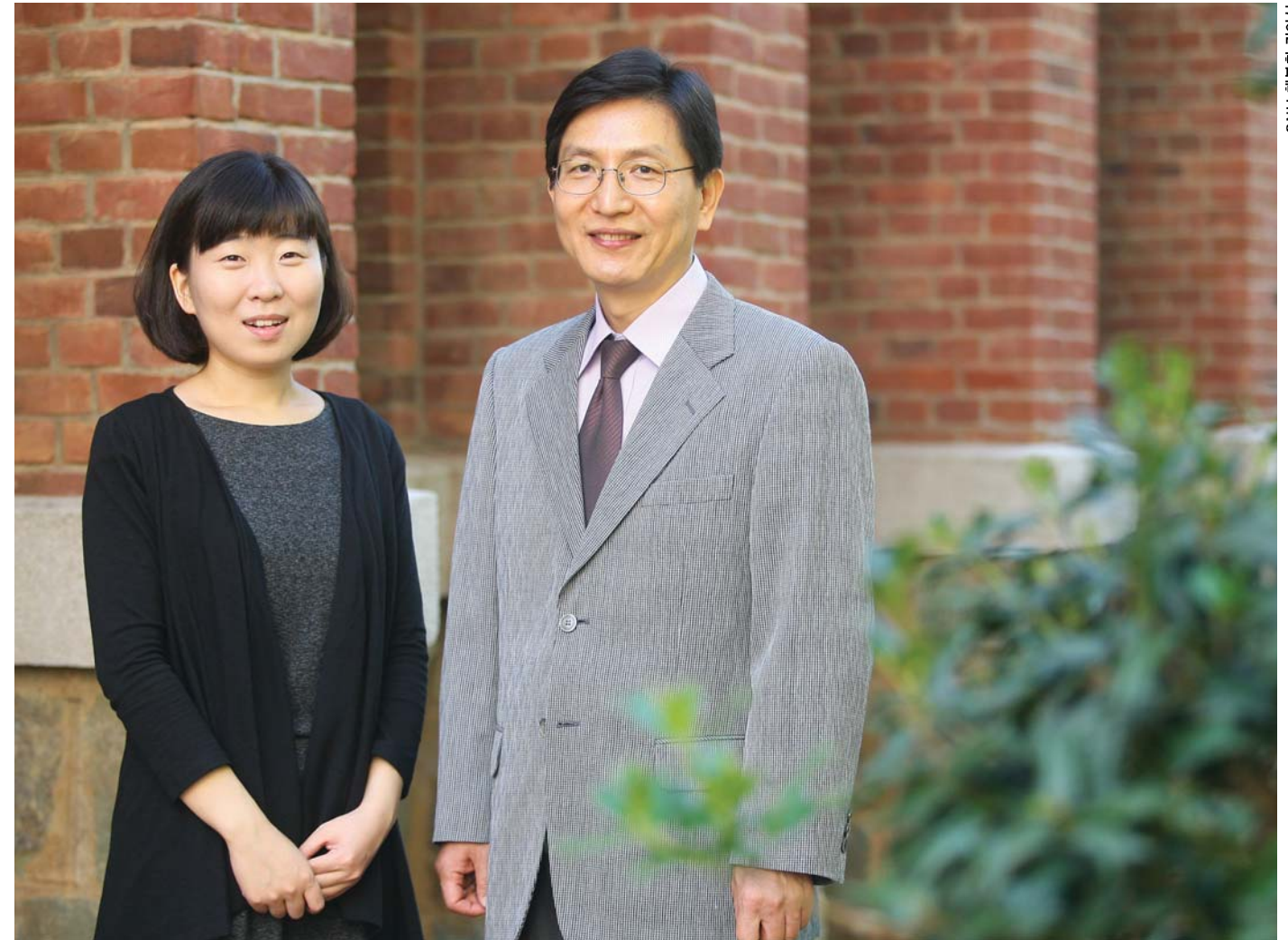
우리 독일언어문학과는 독일어는 물론 무엇보다도 독일문학을 공부하는 곳이다. 독일문학은 여타 서양문학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과 위상을 지니고 있다. 독일문학은 19세기 이래 세계문학의 정점을 유지하면서 일반 독자들은 물론 세계의 많은 작가들을 매료시켜 왔다. 우리나라에도 카프카, 릴케, 토마스만, 브레히트 등을 자기 작품의 모범으로 삼은 작가들이 많다. 이런 독일문학의 매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찰적이라는 것이다. 독일문학은 독자로 하여금 인간과 삶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도록 한다. 특히 독일문학은 어떤 소재, 어떤 구성으로 글을 쓰든 결국 작가 자신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예술과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성찰, 이것이 독자를 매료시키는 독일문학의 가장 큰 힘이고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독일언어문학과는 '독어독문학 전공'과 '독어교수법 전공' 두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두 전공 모두에서 독일어 교육은 필수에 해당된다. 나아가 '독어독문학 전공'에서는 독일문학을 통해 인간과 삶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도록 교육한다. '독어교수법 전공'에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독일어 교육을 통해 정확한 독일어 구사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두 전공 모두 영화나 미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일문화와 독일사회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독일 및 독일어권에 대한 이해를 더욱 증진시킨다. 이런 다양한 교육을 바탕으로 독일언어문학과 졸업생들은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외교 및 통상 분야, 독일 관련 기업 등 여러 전문 분야에 진출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독일언어문학을 공부하는 재미 - 이인정 학생

'취업'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인 요즘, 독일어와 독문학은 학문으로서의 그 귀한 가치를 인정 받기보다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의 공용어인 영어와 비교하자면, 독일어는 우리 사회에서 수요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전남대학교 독일언어문학과에서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방향과 길을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런 안타까운 시선이 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학과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전공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전공어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는 심화수



업, 원어민 선생님과 독일어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Stammtisch, 전공 공부에 대한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한울학습 등 수업 시간 이외에도 언제든지 즐겁게 독일어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신입생 때부터 교수님과 진로탐구를 할 수 있는 이밋과 프로그램에 매년 참가하고 있고, 방학기간 동안 학교의 지원금을 받고 독일의 문화와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어학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독일 예나 대학에서 직접 독일의 대학생활을 해볼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전공심화와 진로에 대해 서로 함께 고민해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독일이 중심부에 위치한 유럽지역과 한국 간의 무역에 대해 관심이 많아 우리 학과에서 마련해 준 위와 같은 기회들을 빠짐없이 모두 참여했다. 2008년 가을에는 학과의 도움으로 ASEM DUO KOREA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독일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올해 한국전산업진흥회에서 주최하는 해외전시회인턴에 선발이 되어 이번 겨울은 독일에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ITA) 지사에서 인턴을 하며 보낼 계획이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독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경제 강국이다. 독일어 전공자가 많지 않은 만큼, 오히려 깊이 있게 공부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 분야에 몇 없는 전문가가 될 기회가 크다고 믿는다.

- ▶ 학과 개설 1995년
- ▶ 교수전공분야  
송경안(독일언어학)  
김형국(독일드라마)  
김동중(독일사)  
조김예(독일드라마, 영화)  
김순임(독일언어학)  
김용대(독일소설, 문학이론)  
조자경(독일언어학)  
김홍섭(독일소설, 문화)
- ▶ 졸업 후 진출 분야  
독일통일과 유럽연합의 확대에 의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비중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독일 지역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교사/교수/번역사/통역사 등의 전통적인 분야 뿐만 아니라 방송국/신문사 등 언론기판/출판계/문화계 그리고 국제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금융회사/무역회사 등으로 진출하여 활동한다.

# 세계 문화의 보고 여는 열쇠를 얻는다 불어불문학과

“프랑스어를 배운다는 것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면서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도구, 즉 프랑스어권의 세계에 ‘접속’ 할 수 있는 열쇠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하영동 교수는**  
프랑스 루앙대학교에서 프랑스어(사전학) 학사·석사를 받았고, 2003년부터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새한불사전> <대학프랑스어> 등을 공동 집필하였다. 학생들에게 언제나 밝은 미소와 재미있는 유머로 불어불문학과에서 가장 인기있는 선생님이다.

**이수진 학생은**  
2007년도에 입학하여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다. '지지자 불어호지자, 호지자 불어리리지자'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매순간 '즐거움'이라는 열정을 가지고 언론인으로서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 불어불문학은 이런 학문 - 하영동 교수

내가 프랑스어를 처음 접한 것은 불문과 전공 진입을 앞둔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다. 그땐 2학년에 오르면서 전공학과를 선택했는데 불문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프랑스어 실력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프랑스어를 배우고 대학입학고사에서 영어 대신에 프랑스어를 선택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1년 동안 프랑스어를 수강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안에 4년의 공백을 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본 실력이 안 돼 그룹 스터디에 끼지도 못했다. 그때의 참담함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프랑스어에 매달려야 했다. “미치지(既) 않으면 미치지(及) 못한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불문과 교수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동기생 중 가장 늦게 프랑스어에 입문하여 가장 오랫동안 프랑스어를 붙들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데 불문과에 입학하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나요? 불문과에서는 뭘 배워요? 불문과 나오면 뭐해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는 명쾌하게 답해줄 수 있다. 가능하다.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고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발음부터 시작하여 문법, 회화, 독해, 작문까지 프랑스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과 프랑스어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로 어학연수도 보낸다.

두 번째 질문에 “불문과니까, 당연히 불어불문학을 공부하죠.”라고 답한다면, 그건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불문과에선 프랑스어를 배운다. 프랑스어는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모국어나 공용어로 통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여러 국제기구에서 공용어로 사용되는 언어다. 프랑스어를 배운다는 것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면서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도구, 즉 프랑스어권의 세계에 ‘접속’ 할 수 있는 열쇠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접속의 세기’를 사는 우리 학생들에게 뛰어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 불문학과에서 프랑스어만을 배우는 것은 아니다. 유구한 역사를 통해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프랑스의 문학과 사상, 문화, 예술 등도 탐구한다. 한마디로 프랑스어를 기반으로 하여 프랑스의 문학과 사회,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우리 문화의 토양 위에서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 세 번째 질문에 답하기는 아주 난감하다. 불문과를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 프랑스인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로, “짜 데뽕”(그것은 나름이다)이기 때문이다. 대학 교수부터 교사, 문인, 언론인, 정치인, 영화감독, 광고 기획자, 예술가, 소블리에, 파티쉬에, 문화산업 관련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 졸업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실로 다양하다.

## 불어불문학을 공부하는 재미 - 이수진 학생

아는 프랑스어라곤 코미디 프로그램 ‘남자 셋, 여자 셋’에서 이경실이 외쳤던 ‘봉주르’ 뿐이었다. 사람들이 무슨 전공이냐는 질문에 언제나 당혹스러웠다. 잇따라 들리는 대답은 “프랑스어 잘 하시겠네요.”이기 때문이다. 영어에 익숙해 있던 신입생 시절 ‘에이, 비, 씨’라고 읽던 알파벳을 아, 베, 세 라고 읽기 시작하면서 프랑스어와의 첫 만남은 시작되었다. 제2외국어조차 다른 언어를 배웠던 나에게 프랑스어는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것과 같았다. 처음엔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즐겨 하는 성격이 동기가 되어 누구보다 프랑스어를 잘 하고 싶었다. 고등학교 때 인·적성 검사를 할 때면 언어는 항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른 공부할 때는 짜증나기도 하고 시간도 더디게 흘러갔는데 프랑스어를 공부할 땐 항상 재미있다. ‘백문이 불여일견’. 책에서 배우는 프랑스어는 한



계가 있어서 실제로 프랑스에 가서 그들의 세상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 ‘외국어 완전 정복’이라는 과내 프로그램에서 대표가 되어 9명의 친구들과 프랑스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다. 각종 책자와 인터넷으로 사전 조사를 하고, 실제 어학연수를 다녀온 선배들을 만나서 정보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된 곳은 라옹 2대학. 수많은 외국인들이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도록 어학코스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 포르투갈 친구와 기숙사 파티를 계획하게 되었다. 미국, 중국, 베트남,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나라 대표 음식을 만들게 되었다.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들도 떡볶이와 비빔밥으로 하나 될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 내가 프랑스에 가서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원래부터 프랑스어를 잘 했기 때문도 아니고 프랑스를 잘 알았기 때문도 아니었다. ‘지지자는 불어호지자, 호지자는 불어낙지자’라고 했던가. 프랑스를 좋아했고 그들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다. 남들처럼 소위 ‘스펙’을 쌓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프랑스어를 배우면서 느꼈던 학문의 즐거움을 놓쳤을 것이다. ‘인기가 많으니까, 남들이 하나씩’ 라는 생각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친구들에게는 자신 있게 불어불문학과를 권유하지 않겠다.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면 뭐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전에 불어불문학과에 들어가서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친구라면 언제든 Bienvenue(환영한다)!

- ▶학과 개설 1978년
- ▶교수진(전공 분야)  
정혜숙(20세기 프랑스소설)  
조영환(20세기 프랑스소설)  
이철(19세기 프랑스소설)  
강성영(프랑스어학(어미·회용론))  
심을식(프랑스어학(통사론))  
최민(프랑스문학(시))  
류재현(19세기 프랑스소설)  
임채원(프랑스문학(연극))  
하영동(프랑스어학(사전학))  
김태훈(프랑스문학)  
배태기(디스토피아프랑스어회화)
- ▶졸업 후 진출 분야  
졸업생들은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최근 많은 곳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일반 기업을 비롯하여 금융계/항공사(연료사/방송사)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거나 교직과목 이수를 통하여 교사의 길을 걸을 수 있다.

# 부상하는 강대국 그 심층에 다가간다 중어중문학과

“ 지금의 정치 상황은 중국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직결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운명적 관계로 부상한 실정이다.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 정치적 현실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중국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



**이등연 교수**는 타이완 푸린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한국외국어대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991년부터 전남대 중문과에서 중국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주로 중국 고전문학사와 고전소설, 현대문학과 영화 비교에 관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한중 비교문학작품 발굴과 연구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과 중국 영화 지막 제작작업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중국어 능력과 중국 영화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공기영 학생**은 진취적일 뿐만 아니라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강한 지도력을 지니고 있다. 2010년에는 중어중문 학회장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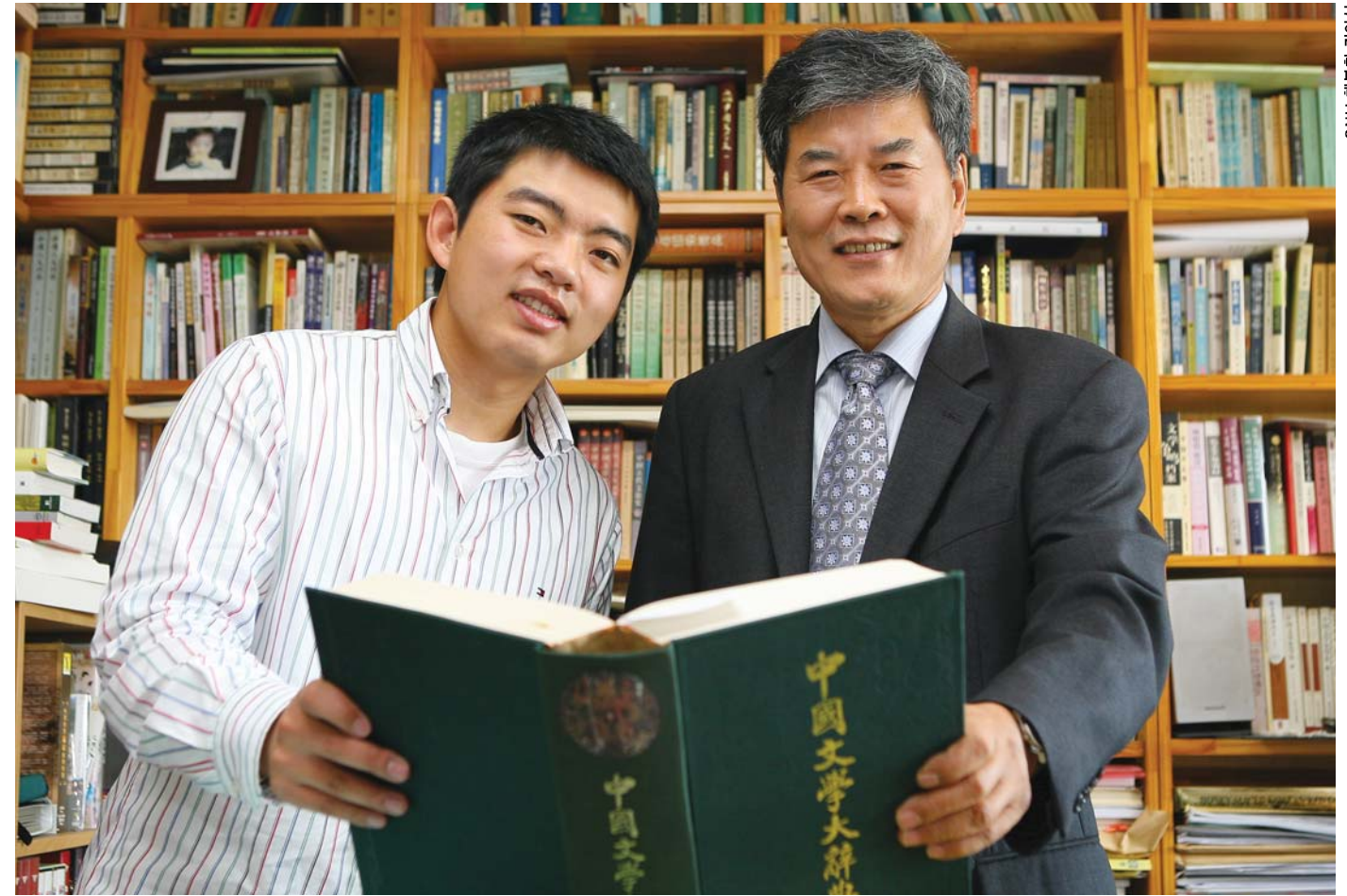
## 중어중문학은 이런 학문 - 이등연 교수

지금부터 30여 년 전, 가로막혀 있던 중국 대륙과의 미래 관계를 생각하며 중국어문학을 공부하던 시절, 어학 교재라고는 허름하게 엮은 서너 권 밖에 없었다. 각종 동영상과 MP3 파일을 제공하는 중국어 교재가 무수히 넘쳐나는 지금, 간체자로 된 중국대학 학보를 우연히 구해 읽다가 갑자기 정보부원에게 연행되어 이를 동안 옥고(?)를 치르고 지도교수의 보증으로 겨우 풀려나기도 했던 당시 경험을 되새기며 중국어문학 공부 환경 변화의 금식지감을 실감하곤 한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그때 죽의 장막 속에서 문화대혁명이라는 혼란을 겪던 중국은 이제 명실공히 세계의 정상에 우뚝 서서 세계 경제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강대국이 되어 우리 옆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지금, 중국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근현대사건과 과정에서 갖은 굴욕과 남다른 투쟁과 시행착오를 겪은 후 ‘대국굴기(大國崛起)’한 중국은 이제 우리와 오래 교류해온 이웃나라인지라 서로 잘 알았던 사이이면서도 사실은 그 속내를 가늠치 못하게 된 이웃, 결국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한층 더 그 힘의 장에서 자유롭지 못할 이웃나라다. 그렇다. 오래된 이웃 나라 중국, 근현대 이후 새롭게 만나게 된 서구나 미국과의 교류가 백년 남짓에 지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이전부터 넘는 긴 시간 동안 서로 갖가지 애증을 주고받은 사이였고, 또한 서로의 살림살이나 문화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웃나라였기 때문에 주고받은 교류나 영향도 직접적이었고 다양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상황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직결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운명적 관계로 부상한 실정이다.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 정치적 현실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중국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중국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국어를 온전하게 구사해야 하고, 중국의 갖가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 4년 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온갖 분야를 두루 통틀어 학습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럼 이 가운데 무엇부터 공부해야 할까? 제한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문화의 이해가 가장 지름길이라고 여긴다. 문화는 말하자면 오늘날 이 나라의 현실을 세우고 있는 깊은 뿌리층이기 때문이다. 우리 학과는 이런 인식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교과목을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진행한다. 중국 이해의 선결이 되는 중국어 분야, 중국 문화 이해의 핵심 통로인 어문학분야, 그리고 현재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 분야 등이다. 중국에서 삼천년 전의 노래인 <시경(詩經)>은 골동품처럼 박물관에 유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생활에서도 여전히 낭송되고 인용된다. 마찬가지로 도연명(陶淵明), 이백(李白), 두보(杜甫), 백거이(白居易)같은 시인들의 시,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홍루몽(紅樓夢)> 같은 소설도 옛것으로 박제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문화, 일상생활 속에서 펄펄 살아 숨쉬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예를 찾기 어려운 이러한 중국문화의 특징 때문에 우리 학과는 고금(古今)의 어문학에 대한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 중어중문학을 공부하는 재미 - 공기영 학생

중국은 이미 대륙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우리 중어중문학과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힘을 가진 중국의 모든 것에 대해 공부한다. 중문과에 다닌다고 하면 흔히 “중국어 잘하겠네요?”라는 질문을 한다. “중국어 한 수 읊어주실래요?”라고 묻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중문과 출신이거나 어문학을 전공한 사람일 것이다. 뜨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꿈을 이루고자 ‘중국어’ 공부를 목적으로 중문과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도 처음에는 중국어가 재밌어서, 중국어가 적



성에 맞아서 중문과에 진학을 했다. 중국어만 배워도 중국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틀렸다. 우리 중어중문과에서는 중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의 역사, 문학, 문화, 영화 등을 통해 중국을 알아가고 있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중국을 상대로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중국인의 기질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기질은 중국의 역사, 문학, 문화 등에 걸쳐 묻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꼭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통’이 되어야 한다. 처음 중문과에 와서 중국어를 배웠을 때가 생각난다. 말에 높낮이가 있는 중국어를 발음하는 것이 너무 쑥스러워서 키득거리고 혹여 교수님이 읽어보라고 시키기라도 하면 친구들 앞에서 틀리더라도 할까봐 쭈뼛쭈뼛 읽었던 그 때. 지금은 어느덧 중국 원어민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고, 한자로 이루어진 중국 고전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지금의 중국어로 이루어진 중국 현대 문학을 감상하고 있다. 나는 아직 유학도 다녀오지 않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 물론 내 스스로 중국을 알아가는 데 힘쓰기도 했지만, 중국인 친구들의 도움도 컸다. 전남대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매우 많아서 전공 공부를 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때로는 교수님의 소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알게 된다. 이 유학생들을 친구삼아 수업 시간 이외에도 만나서 중국어로 대화하면서 회화 실력도 향상시키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와는 다른 그들의 문화 또한 배우고 알게 된다. 이런 말이 있다. “不怕慢 只怕站”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단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이다. 중국통이 되는 일은 쉽지않은 것이다. 천천히 한걸음씩 나가면 어느새 세계 시장에 우뚝 선 중국의 중심에 내가, 중국통이 되기를 희망하는 여러분이 서 있을 것이다.

- ▶학과 개설 1979년
- ▶교수진(전공분야) 양희석(중국문학-중국학파) 안기섭(중국어학-중국어음운론 및 고대중국어문법) 이등연(중국문학-중국소설) 이주노(중국문학-중국현대소설) 오만중(중국문학-중국고대시가) 김태완(중국어학-중국어음운론 및 문자학) 장준석(중국문학-중국토론행문학) 김정익(중국문학-중국언어영화)
- ▶졸업 후 진출 분야 중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어 문학도의 수요가 급증하여 국내외의 여러 방면에서 본과의 출신들이 활동하고 있다. 졸업생은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중국관계 학문 연구를 계속하거나 공무원/무역입/외교관/항공사/해외주재 상무관/회사원/기자/작가 활동 등에 진출하고 있다.

# 가깝고도 먼 나라, 속마음을 들여다 본다 일어일문학과

“일본어학을 습득하고 연구하면서 한일 양국민이 서로 무엇을 좋아하는 것인지, 왜 좋아하는 것인지, 무엇을 미워하는 것인지, 왜 미워하는 것인지를 인문과학적으로 연구한다.”



**정승운 교수**  
전남대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관서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 저서는 《나카노 시게하루의 고찰》, 《나카하라 주야 시선》 등이 있다.

**김명지 학생**  
초등학교 때까지는 얼굴로 유명세를 날렸으나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외모의 변화로 공부에 매진했다. 하고 싶은 일은 하고, 그른 것은 보지 못하는 성격으로 미움을 사고, 걸모습은 좀 차갑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다. 첫 인상과 알고 나서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점도 많고 눈물도 많지만 맺고 고통이 확실하다.

## 일어일문학은 이런 학문 - 정승운 교수

2010년은 일제에 의한 한일강제합방 100년이 되는 해이다. 일어일문학도들은 일제가 남긴 상흔을 깊이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대중문화 개방은 일본에 대한 일종의 햇볕정책으로서 양국민의 몸과 마음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일본에서는 온사마 돌풍, 한국 신예 가수의 일본 진출, 드라마, 영화, 김치를 비롯한 한국음식의 보편화, 막걸리 보급, 한국어 강좌의 인기와 더불어 재일한국인의 위상이 강화된다. 한국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소설, 드라마, 영화, 회전초밥, 라면, 일본어간판, 일본인 유학생과 정주자의 증가 등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교류가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독도, 종군위안부, 조선인강제동원, 역사교과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격렬한 분노와 함께 일본을 성토했고 꺾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제교류기금에 의하면 한국이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을 연구하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고 한다.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미워하는 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 동전의 양면을 생각하게 한다.

일어일문학과에서는 일본어학을 습득하고 연구하면서 한일 양국민이 서로 무엇을 좋아하는 것인지, 왜 좋아하는 것인지, 무엇을 미워하는 것인지, 왜 미워하는 것인지를 인문과학적으로(사회과학을 보조적으로 응용하기도 하며) 연구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한중일 해저터널의 기술적 가능성을 연내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EU연합, 미함중국 등 세계가 블록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3국의 연합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과거의 내셔널리즘이나 패권주의, 우월비하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파괴적이지 아닌 미래건설적인 한일관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우선해서 일어일문학도들의 손과 땀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이 능동적으로 세심하고 정교하게 찾아가야겠다.

## 일어일문학을 공부하는 재미 - 김명지 학생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대부분 전공에 대해 묻는다. '일문과입니다.' 라고 답변하면 상대방 대답은 거의 두 갈래로 나뉜다.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노래 좋아하나 보네요~', '일본어 쉽잖아요, 못하는 사람 있나?'. 처음엔 이런 대답들이 싫고, 거기다 일본어는 문외한이어서 전공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1학년 1학기까지 그저 방황하는 나날만 보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에는 언제나 전환점이 찾아오는 법. 나는 운이 좋게도 여름방학에 찾아왔는데 '일본인과의 1박 2일 홈스테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 하루가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 이후부터 시간 나는 대로 공부했던 것 같다. 친구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으니 배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법이나 이론적 지식은 책과 수업으로, 청취나 역양은 학과의 원어 강연에 참석해서 들었다. 매년 학과에 원어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서 많은 도움이 됐다. 사실 기준에 판매하는 교재의 청취는 평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이런 강연에 참석하여 원어민의 발음, 억양, 토씨를 들으니 부족함이 채워졌다. 이러한 강연들이 자양분이 되니 청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쟁겨 들길 권한다.



우리 학과는 국제협력과와 연관이 깊으므로 그 주최의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올해는 국제어림학교에 참가했다. 이 국제어림학교는 내가 전공 공부를 하는데 기폭제가 되었다. 여기서 만난 일본인 친구는 친구이자 선생님이로 나의 회화, 청취, 작문공부에 살아 있는 학습을 경험하게 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우정도 나누고 서로의 나라에 대해 공부를 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런 기회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역시 실력보다는 열정으로 도전했고 많은 것을 얻었다. 이처럼 학과 주최의 행사에는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지향하는 '국제화 인재'를 목표로 눈을 넓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어를 배워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쉽고 재미있다. 한국어와 어순도 같고 발음도 재미있고, 문화는 어찌나 신기한지. 하지만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턱 막히는 순간이 있다. 한자는 어렵고, 능력시험은 어려워지고, 주변에 잘하는 사람은 많아서고. 그러나 이 순간을 잘 참고 이겨내면 일본어학의 놓칠 수 없는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마치 양의 털을 쓴 '매력적인 늑대' 같다.

올해는 한일합방 1세기가 된 해이다. 일어일문학과 학생으로서 참 여러 생각이 든다. 물론 이는 전공을 떠나서 양국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일이지만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말을 배우고 문화를 익히는 지일인(知日人)이므로 서로의 대립은 줄여나가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우리뿐이 아닌 양국 국민이 손을 잡고 해나가야 할 것이다.

- ▶ 학과개설 1980년
- ▶ 교수진(전공 분야)  
김순전(일본근현대문학)  
이덕배(일본어학, 일본어 교육)  
김정래(일본고전문학)  
김용의(일본문화학)  
김내성(일본어학-음성/음운론)  
정승운(일본근현대문학(일본근현대사), 문헌(일본어학))
- ▶ 졸업 후 진출 분야  
-회사취업(다양한 회사에 취업이 가능. 외국어 자체가 목적이던 시대는 지났음. 일본어 외에도 전산관련 정보 자격증 취득, 영어, 경제, 경영학 등의 부전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근에는 영어와 경제학과 등 부전공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말해 줌)  
-공무원시험  
-교사(2004학년도 기준 입학정원의 10%인 5명을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로 선발함. 1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므로 교직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1학년 때 성적을 관리해야 함. 교직을 이수하면 임용고사를 거쳐 공립학교 일본어 교사로 발령이 되며, 사립학교는 임용고사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함)  
-대학원 진학(석사과정 2년과 박사과정 3년을 마치는 것이 필수적인 본 대학 일어일문학과에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진학할 수 있으며, 일본의 대학원으로 유학하는 길도 있음)

# 세상과 자신 바라보는 혜안 얻는다 사학과

“ 역사를 공부하는 까닭이 단순하게 많이 알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인식’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인식은 현실즉각적이거나, 즉물적 혹은 즉자적인 태도와 다른 지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을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김병인 교수는**  
대학 1학년 때 1980년 5월 광주를 겪으면서 위기에 처한 조국과 민족을 구해야겠다는 가열찬 포부를 갖고 역사 공부를 시작하였다.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학교 나오는 것이 가장 즐거운 ‘반가장적 중독증’에 빠졌으며, 여전히 청년의 열정으로 학생들에게 ‘德時(德時)상시분숙’ 하는 지식인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강훈(講訓)은 “꽃들이, 네 마음대로 피거라”이며, 사실에 대한 궁구(窮究), 철학적 사유, 문학적 상상력, 예술적 심미안을 갖추는 것이 인문학도의 본원적 사명임을 설파하고자 노력 중이다.

**정유선 학생은**  
드라마 PD라는 직업을 꿈꿔 그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역사를 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방송국 제작부에서 활동 중이다.

## 역사학은 이런 학문 - 김병인 교수

영어에 Erudite라는 단어가 있는데, ‘유식한’ 혹은 ‘박식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처럼’이라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박식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식한 사람이 되려면 역사학자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역사학을 공부하면 박식하고 유식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박식(博識)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한다. 돈을 자랑하기도 하고 건강을 과시하기도 하며 미모를 내세우기도 한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이 좋고 미모가 뛰어난 사람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지적 매력이고 지성인의 풍모이다. 사람이 배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당당한 목소리로 이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저자 박은식 선생께서 “학문은 세상을 개벽시킨다”고 언명한 것도 같은 백락일 것이다. 안중근 의사 역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생긴다”고 했으며, 성경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진정 지식은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큰 무기임에 틀림없다. 역사를 공부해서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니 이 어찌 황홀하지 않겠는가?

한편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까닭이 단순하게 많이 알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인식’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인식은 현실즉각적이거나, 즉물적 혹은 즉자적인 태도와 다른 지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을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여기에서 말하는 ‘역사적’이란 시작-중간-끝이 있는 생명적 사건임을 뜻한다. 때문에 역사인식이 있다면 권력의 무상함을 직관할 수 있으며, 진실의 위대함에 대한 현재적 당위성을 거의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박식하고 역사인식을 갖춘 사학과 학생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위해 어떠한 직업적 전망을 가질 수 있을까? 우선 역사학자가 되어서 자신만의 역사를 서술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다. 또한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조인을, 신문사와 방송국에 들어가서 언론인을 꿈꿀 수 있다. 아울러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일할 수 있으며, 혹은 축제기획자가 되거나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에 종사할 수도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직업적 전망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사학과에 진학하여 진정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문익환 선생의 ‘꿈을 비는 마음’ 한 구절을 화두로 남겨주고 싶다. “개똥같은 내일이야 꿈 아닌들 안 오리오마는 조개속 보드라운 살 바늘에 찔린듯 한 상처에서 저도 몰래 남도 몰래 자라는 진주 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이야 꿈 아닌곤 오는 법이 없다네.”

## 사학을 공부하는 재미 - 정유선 학생

역사란 인간의 자기인식과 사회의 이해를 목표로 하며, 인간사회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록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역사학의 목적으로는 인류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당대 사회와 인간을 분석해 인간과 사회, 각각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인간행위와 사회발전의 지표와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방식의 역사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역사가 위의 글처럼 두 번쯤 읽어야 이해될 것 같은, 다가서면서부터 어렵다 여겨지고 부담스러운 것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게 역사는 ‘다모’에 설레고 ‘서울1945’에 눈물 흘리며 ‘대장군’을 맞보면서 즐거워했던, 조금은 가벼운 접근으로 인해 생긴 관심으로 다가왔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 내가 생각하는 역사학은 그 다양한 분야와 방대한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고 다가가기 힘든 학문이 아니라 생각거리,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는 매력적인 학문이다.

역사에 대해 조금은 쉽고 가볍게 생각했던 내가, 가장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될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드라마 PD가 되고 싶기 때문이었다. PD란 직업은 무엇보다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일이다. 더욱이 ‘드라마’라는 장르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작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야기’가 필요했다. 역사를 통해서라면 이 같은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

흔히들 역사라고 하면 먼 과거의 이야기만을 떠올릴지 모른다. 물론 ‘환웅이 3천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에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건국 신화도 역사의 모습 중 하나이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 당시 온 국민이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태극전사들을 응원했던 것도 지금의 우리가 함께 겪은 아주 열정적인 역사적 광경이며 우리가 지나쳐 온 ‘어제’의 모습도 역사라 할 수 있다. 또한 역사는 ‘지나간 것 만의 학문이 아니다. 역사는 살아있는 것, 변화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고 ‘내일’을 만드는 학문이다.

지금 내 위치에서 역사는 이야기들을 통해 생각하는 힘과 표현하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그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마치 ‘타임캡슐’과 같다.

- ▶학과 개설 1952년
- ▶교수진(전공분야)
  - 김동수(한국근대사)
  - 이강래(한국고대사)
  - 최정태(독일사)
  - 김용중(미국사)
  - 윤선재(한국/현대사)
  - 최혜영(그리스/로마사)
  - 송하영(중국현대사)
  - 김명인(고려사/사대사/호남학/역사문화기획)
  - 임종영(한국현대사)
  - 이성영(동양고대사)
- ▶졸업 후 진출 분야
  - 중고교 교사/공무원(국가사편찬위원회) 판수관/박물관 연구원/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문화공보담당 공무원/문화공보부 산하 공무원(문인/외교관/정치인 등)
  - 여러 직종으로 진출해 활동할 수 있으며, 또한 대학원에 진학해 더욱 수준 높은 전문 지식을 습득해 교수나 역사학자/저술기로서 활동할 수 있다.

# 세상을 바로 보는 눈 본질을 고찰한다 철학과

“ 동서양의 전통적인 사상과 현대의 다양한 이론들을 폭넓게 가르침으로써 논리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능력을 기르게 하고, 창의성을 함양하고,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하도록 교육한다. ”



**김양현 교수**는 독일 문스타대 학교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Post-Do.c 한국칸트학회 편집위원장 역임 현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소장 현 범한철학회 편집위원장

**김수중 학생**은 철학과 03학번 2010년 8월 졸업 졸업논문 <다문화 사회에서의 한국문화의 정체성> 현재 해외유학(대학원 진학) 준비중

## 철학은 이런 학문 - 김양현 교수

철학은 십인십색(十人十色)이다. 철학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대한 답이 사람마다 각양각색이라는 뜻이다. 여러 권으로 된 철학사전을 뒤져봐도 딱 떨어지는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다. 난감한 질문일수록 흔히 쓰는 상투적인 말로 간단하고 쉽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철학은 인간, 자연, 세계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며 삶의 지혜를 추구한다. 철학은 존재의 근원을 규명하고, 지식의 가능성과 한계를 밝히며, 윤리와 가치의 근거를 정립한다. 나아가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찰하며, 종교와 예술의 의미를 다룬다. 이렇게 보면 사실 철학이 다루지 않은 문제는 거의 없다. 모든 학문의 기초이며 학문 중의 학문이라는 철학의 오랜 전통과 위상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

철학에 대해 널리 퍼진 오해와 편견은 정당하지 않다. 철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애매모호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 동서양의 전통적인 사상과 현대의 다양한 이론들을 폭넓게 가르침으로써 논리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능력을 기르게 하고, 창의성을 함양하고,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하도록 교육한다. 철학과를 나오면 '철학관' 이란 상호의 점집을 차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철학과 졸업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대학교수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학계, 교육계, 예술계, 언론계, 출판계 등 전통적으로 철학 전공자가 주로 진출하던 영역에서부터 최근에는 문화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철학 전공자의 수요는 증대되고 있다. 가끔 한 둘의 기인이 있지만, 철학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저 보통 사람들일 뿐이다. 누구에게나 철학은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다. 반면에 철학이 없다는 것은 비하이머 비난의 암묵적 표현이다.

## 철학을 공부하는 재미 - 김수중 학생

철학과에 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종종 듣는다. “굉장히 어려운 학문하시네요?” 또 “철학과 나오면 뭐 할 거예요?” 하지만 철학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은 아니다. 철학을 깊이 알고 싶다면 할수록, 그 깊이가 느껴지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4학년인 나조차도 누가 나에게 철학이 무어냐고 묻는다면 부끄럽기만 할 것 같다. 하지만, 철학이 보통사람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향유물은 아니다.

나도 1학년 때 철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지만, 당시 이슈화되고 있던 박근혜들과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교양수업들을 들으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고 상당한 재미를 느꼈었다. 철학은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다. 다만 현실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그 밑에 있는 뿌리와 원인들을 파헤치기에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온 세계가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된 지구촌 시대이고, 다국적 기업들 간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악조건 속에서, 우리는 사회와 기

업이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상황과 경쟁시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연성과 창의성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 것인가? 철학은 이러한 능력들을 기를 수 있는 곳이다. 표면적인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닌,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철학공부하면서 기를 수 있다.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원한다면 논리학에 관련된 수업을, 철학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서양·동양철학 전공수업도 괜찮다.

하지만 앞서 말한 현실적인 효용만을 목적으로 철학을 공부하는 철학과생들은 실제로 많지 않다. 단지 학문이 좋고 삶의 목적과 인생을 깊이 다루고 싶어 하는 순수한 목적을 가진 친구들이 많다. 또한 낭만적인 교수님들도 많으시다. 원승룡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은, 학기에도 여러 번 자연을 벗 삼아 야외수업을 하고, 수업 후에도 함께 막걸리를 걸치고 음악을 음미하곤 한다. 현실적인 문제에만 치우치면서 대학 4년을 보내기 보다는, 한번쯤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며 두고두고 기억할 추억을 만드는 것도 꽤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 ▶ 학과 개설 1952년
- ▶ 교수진(전공 분야)
  - 최대우(유학사상)
  - 위상백(독일 관념론)
  - 원승룡(현상학)
  - 이종표(불교 철학)
  - 노양지(언어 철학)
  - 이강서(고대 철학)
  - 백은기(주역 철학)
  - 김양현(실천 철학)
  - 조윤호(불교 철학)
  - 박구영(정치 철학)
  - 김상봉(형이상학)
  - 정미리(사회 철학)
- ▶ 졸업 후 진출 분야
  - 교육(교수/고교 교사(교직 이수자)/사상 및 문화 관련 연구원/기업 내 재교육 담당자/철학적 경영 카운셀링/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도서 및 논술 지도자/교육 콘텐츠 제작자/인성 개발사 등)
  - 언론(기자/출판자/PD/영화 및 방송 제작자/광고 기획자/저널리스트/문화 관련 구성 작가/사회비평가 등)
  - 행정 및 경영(국제 회의 기획 운영자/컨설턴트/기업 관리자/마케팅 기획자/정책 수립기/공무원 등)
  - 기타(법조인/게임 시나리오 작가/영업직/종교인 등)



## 자연과학의 핵심 논리의 절정 맛보다 수학과



### 수학은 이런 학문 - 주형관 교수

수학을, 그리고 수학과를 소개하라는 말에 뭐를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지 막막했다. 수학이란 자연현상을 추상화하고 수량화해서 과학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의 언어라거나, 인간정신에 순수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지적놀이라거나, 아니면 더 거창하게 수, 집합, 공간들의 성질과 구조를 다양한 기호를 포함한 수식으로 표현해서 논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등의 수식어는 그만 쓰고 간단히 다음을 보자.

너를 깨우는 휴대폰으로부터 시작하여 잠들기 전 불을 끄는 스위치까지 네가 만지작거리고 마주치는 그 모든 것이 수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것 다 물리학이나 공학의 산물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거기에는 수학적 아이디어가 내재되어 있다. 각종 자연과학과 공학이나 경영 및 경제학, 언어학, 철학, 심리학, 암호학, 지리학, 의학, 환경과학, 뇌과학 등은 일정수준의 수학을 필요로 하며, 특히 자연과학은 수학적 없으면 의견교환을 할 수 없는 언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외국친구와 네가 단둘이 있을 때 손발짓을 하지만 속이 답답하듯이 말이다.

그런데 수학 그거, 고리타분하고 천재들이나 골방에 앉아서 하는 것 아니야? 미적분학이면 충분치 않아? 물론 라마누잔 같은 천재의 존재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극소수의 천재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다들 인정한다. 다만, 누가 집착력을 갖고 더

오래 생각하고 버티는가의 차이뿐이다. 그리고 미적분학이 수학의 전부는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분야가 심심찮게 생기니 말이다. 최근에는 컴퓨터의 발전으로 이런 경향은 한층 진일보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정직'이 수학에서 가장 큰 매력임을 곧 감지할 것이고 이것이 가장 그대를 강하게 붙들어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릴 것이다. 매순간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이에 대하여 추측해보고 답하기 위해 거듭거듭 생각하고, 하찮은 거지만 스스로 찾아냈을 때 세상은 모두 그대의 것이고 그 쾌감을 만끽하기 위해 그 일을 또 시작하게 되고, 그리하여 수학이라는 이름의 게임중독에 빠지면 그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다. 그러다가 모 졸업생처럼 전국대학생수학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타기도 하고 4년이 지난 후에 Math-holic 환자가 되면 대학원이나 유학을 가지 않고는 못 견디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물론 교직이나 금융수학 등 수학 관련 분야로 다양하게 진출하기도 한다. 이 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네 해 동안 이곳에 머물다가 이 문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엄밀한 논리와 사고 훈련으로 철저히 단련되고 변화된 모습의 차이는 실로 현저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다.

“너를 깨우는 휴대폰으로부터 잠들기 전 불을 끄는 스위치까지 네가 만지작거리고 마주치는 그 모든 것이 수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거기에는 수학적 아이디어가 내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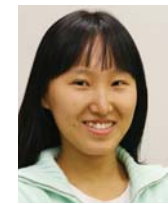
### 수학을 공부하는 재미 - 손예지 학생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학과에 오면 고리타분한 과목들을 공부하고 수학문제만 풀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수학과에 지원을 했을 때에도 고등학교 수학을 좀 더 깊이있게만 공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학과에 들어오고 전공과목을 여러 개 듣다보니, 정말 생각보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문제들과 여러 수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 처음의 딱딱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지난 학기 때 들었던 이야기이다. 수학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 중에는 10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 있는 7개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문제만이 풀렸다. 그레고리 페렐만이라는 수학자는 그 한 문제를 2003년에 풀어내고 2006년에 최중 검토틀 받아 필즈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는 수상을 거부했다. (수학에는 노벨상이 없기 때문에 필즈상이라는 것이 있다. 필즈상은 국제 수학자 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수학자 회의에서 40세가 되지 않은 두서너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수학이 멋있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학과에 진학을 하면 수학공부도 고등학교 때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들로 가득하다. 먼저, 수학공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수학적란 절대 딱딱한 과목이 아니다. 스터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해 보면서 새로운 것을 느끼고 깊이 생각할 수 있어진다. 또 나는 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도 하고 지원금도 받아서 회식도 하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

또 수학이라는 과목은 답을 내는 과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학에선 답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다보면 마치 내가 수학자가 된 것 같고, 뚝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 주형관 교수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9년 이후 전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수학의 여러 분야 중 조합론(Combinatorics)과 그래프이론(Graph Theory)에 폭 빠져 수학의 밑바닥 속을 헤매이면서 살고 있다.

### 손예지 학생은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과에 입학했다. 수학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직을 이수했고, 대학원 진학도 생각하고 있다. 학생회 활동 및 학과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다.

### ▶학과 개설 1952년

### ▶교수진(전공 분야)

- 김선부(기하학)
- 반청호(해석학)
- 안승희(위상수학)
- 김동수(기하학)
- 임복해(대수학)
- 주형관(조합론)
- 김정욱(응용수학)
- 곽민규(편미분방정식)
- 정영택(복소해석학)
- 조종택(기하학)
- 산형훈(응용수학)
- 이영주(복소해석학)
- 박내희(위상수학)
- 권도원(정수론)

### ▶졸업 후 진출 분야

- 교육분야(대학교수/교직과정 이수 후 중·고교 교사)
- 연구분야(수학의 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나 기업체)
- 컴퓨터 분야(기업체 전산요원/소프트웨어 디자인과 개발·설계를 담당하는 프로그래머)
- 금융분야(재무 위험관리사/금융자산관리사/피생상품 전문가)
- 보험분야(보험료 책정 등 보험상품 운영을 관리하는 보험계리사/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손해사정인)
- 정보기술(IT)분야(e-Business 통합기술/응용기술 등 분야를 다루는 전자상거래 관리자/금융/통신 등 각 분야의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보보호 전문가)



## 복잡한 세상 숫자로 읽는다 통계학과



### 통계학은 이런 학문 - 박정수 교수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아이폰과 국제화 시대가 되어 우리네 삶의 양상도 매우 다양해졌다. 이처럼 급변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통계를 알아야 한다. 통계는 복잡 다양한 세계를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하면서 이해 가능한 핵심 정보를 제공해준다.

'통계는 거짓이다'는 말이 있다. 이는 사람들이 통계를 참값 또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잘못 때문에 생겼다. 대부분의 통계는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추측이다. 참값에 대한 그럴듯한 근사값이며 그 이면에는 항상 오차가 존재한다. 통계는 참값 그 자체라고 우리가 오해함으로써 '통계는 거짓이다'는 말이 나왔다. 통계를 접할 때 우리는 그 숫자의 의미와 함께 얼마만큼의 오차가 들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세상은 불확실하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우연히 행운이 다가오기도 한다. 미래는 잘 모르지만 과거 자료에 바탕하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불확실과 우연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확률 이론에 기초한 통계학은 자료에 근거하여 확실성과 필연성을 찾아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기술하는 하나의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표본의 자료에 바탕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통계적 모형을 적용하여 귀납적 일반화

를 시도하는 방법론적 학문이다.

"아이고, 딱딱하고 복잡한 통계학을 뭐 하러 해요?"라고 묻는 이도 있다. 나는 "사람들이 통계학을 싫어하니까 내가 밥 먹고 산다."라고 농담조로 대답한다. 흥미롭고 덜 어려운 전공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성공하기 힘들다. 반면 통계학은 건조하고 복잡하며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하지만 그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취업 측면에서 유리한 전공이다.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학문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야 그 학문을 통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복잡한 통계학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보화시대라고 불리는 21세기에 들어서서 컴퓨터와 융합된 통계학은 세상이 빨라지고 복잡해질수록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기술하는 하나의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표본의 자료에 바탕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통계적 모형을 적용하여 귀납적 일반화를 시도하는 방법론적 학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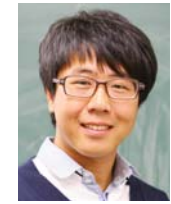
### 통계학을 공부하는 재미 - 허진 학생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통계를 사용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군가는 통계는 국가나 기업과 같은 곳에서만 사용하거나 그나마도 수학책에서나 볼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쉽고 친숙한 일상적인 경험이 바로 통계임을 알 수 있다.

<이른 아침, 철수는 떠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비비고 일어나 시계를 봤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 9시에 1교시 수업이 시작하는데 벌써 8시가 아닌가? 30분 만에 부랴부랴 씻고 옷 갈아입고 책가방을 손에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갔는데 세상에! 그곳은 이미 등교를 하려는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철수는 생각했다. '처럼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버스를 타면 수업시간에 난 분명 기절하고 말텐데, 어찌지? 아! 버스가 오는 간격이 평균 6분인데  $\pm 2$ 분정도 오차가 있으니까 아무리 늦어도 8분이면 다음 버스가 오겠네? 그러면 지금 오는 버스를 보내더라도 다음 버스를 타고 가면 수업시간에 딱 맞게 도착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만원 버스를 보내고 다음 버스를 탄 철수는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등교를 했고, 수업에도 늦지 않게 도착했다.>

이 일화를 보면 철수는 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통계의 기본이 되는 평균과 편차를 가지고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하면 버스가 오는 간격 6분을 평균으로 놓고  $\pm 2$ 분이라는 변동성을 이용하여 다음 버스가 오는 데 최대 걸리는 시간 8분을 계산해 낸 것이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철수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통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어느 샌가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 통계는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있음을 알 것이다.

내게 통계라는 용어가 낯설었던 처음과는 다르게 지금은 통계가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 많아졌다. 나도 모르게 통계적으로 사고하려는 버릇이 생겼다. 마치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경제학자들이 경제적으로 사고하면서 일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다. 통계는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달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렵게만 생각하고 나 몰라라 했던 통계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 박정수 교수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1년부터 통계학을 가르친다. 기상통계학과 전산통계학 분야를 주로 연구하며,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학에도 관심이 많다. 자율전공 학부 자연계열 지도교수를 겸한다.

#### 허진 학생은

처음에는 통계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도 잘 모르는 학생이었다. 지금은 통계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학·석사 연계 과정을 통해 통계학 전공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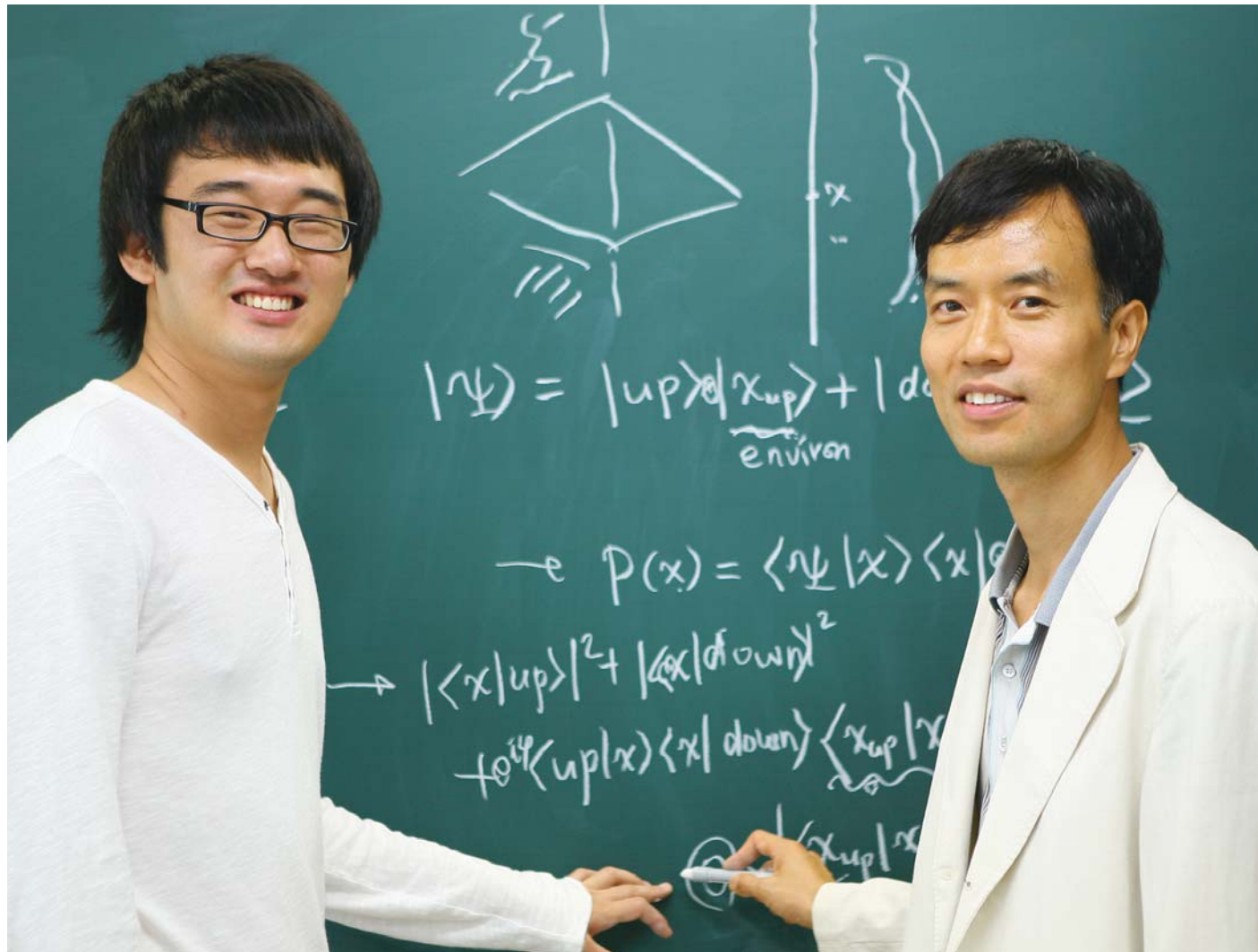
#### ▶학과 개설 1977년

#### ▶교수진(전공 분야)

배중성(실용계측법)  
조완현(배터닌식 및 영상 처리)  
손영숙(시계열분석 및 베이지안)  
박정수(전산통계 및 확률론)  
백장선(비모수통계 및 판별분석)  
니명행(신뢰성분석 및 품질관리)  
박은식(생명과학통계)  
김민수(다변량 통계)  
상정옥(명예교수 회귀분석 선행모델)

#### ▶졸업 후 진출 분야

통계학과 졸업생들은 정보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금융기관, 여론조사기관, 기업체의 연구조사분야, 정보통신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정보사회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연구조사 기관이 많이 생겨 연구조사 분야에 대한 활발한 진출이 기대된다.  
삼성/LG/현대 등 주요 대기업과 SAS/SPSS 등 통계패키지 개발 회사/주요 생명보험회사와 은행권/증권사/카드사/닐슨 미디어리서치 등 주요 리서치 회사/한국금융연구원 등 주요 금융기관/메이커마이닝 컨설팅 회사/한국신용평가원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국내 대학원 진학 및 해외 유학/통계청/노동청을 비롯한 공무원



## 논리적 상상력으로 현상의 원리 찾는다 물리학과

### 물리학은 이런 학문 - 강기천 교수

일반인들에게 '물리학자' 하면 떠오르는 것을 꼽아 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아인슈타인, 천재, 상대성 이론, 빅뱅, 어두침침한 연구실, 뜻 모를 기호와 뻑뻑한 수식, 엄밀함, 과학함, 등등.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나름대로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정도로 요약이 되겠다. 그러나 상당 부분 이는 오해와 편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오해와 편견도 현실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만이 물리학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1명의 천재와 수 만명의 재미들이 모여서 한다고 보면 무난하겠겠다. 빅뱅 이론과 같은 거창한 대상만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는 매우 소수이다. 모든 사소한 자연현상, 때로는 사회현상이 물리학 연구의 대상이다. 대상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의문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가령, "열을 받으면 왜 뜨거울까?"라는 상식적인 질문을 "열은 무엇이고 뜨겁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좀 더 세련된 질문으로 바꾸는 작업이 물리학적 발견의 시작이다. 또한 20세기 IT 문명의 최대 발명품인 트랜지스터와 인터넷이 물리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의외로 드물다. 사소한 현상에 대해 많은 눈으로 관찰하고 많은 정신으로 생각한 결과가 물리학의 진보로,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발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엄밀함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발달한 상상력이 물리학의 생명이다. 상상력

이 빠진 양자이론과 인터넷은 상상이 불가능하다. 만약 엄밀함만을 추구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는 좀 아둔한 학생으로서 반문한다. "그렇다면 항상 입을 다물고 있으란 말입니까?" 소통을 위해서는 틀린 말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지 않은가.

물리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원인은 학문 자체의 성격, 미디어의 역할(TV나 신문, 대중 과학 잡지의 물리학 관련기사는 대부분 빅뱅, 끈 이론, 우주론, 아니면 아인슈타인, 호킹 같은 천재 물리학자들의 신변잡기에 관한 것이다!)도 한 몫을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물리학자들의 소통 노력의 부족에 있는 것 같다. 아인슈타인은 "그것(물리학 이론)을 당신의 할머니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며 강의와 학생들과의 토론에 임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할머니는 교사하고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물리학을 전공한 나의 아내에게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 물리학을 공부하는 재미 - 문 준 학생

내가 물리를 좋아하게 된 계기를 떠올려 보면 학교에서 배우던 교과목으로 내가 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다. 고등학교 야간자율 학습시간을 도망치고 싶어서 선택했던 과학 스티디는 내가 좋아하는 수학을 '물리'라는 과목에 응용할 기회를 주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운동, 현상들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흥미는 나에게 '많은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목표를 주었고 물리교사의 꿈을 갖게 되었다.

물리학과에 들어온 후 교직을 염두에 두고 공부했지만 그 과정에서 물리의 참 매력을 알게 됐다. 전공공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해왔던 주입식 교육으로서 공부 아닌 수업을 듣고 책을 읽으며, 문제를 풀며 많은 새로운 현상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그렇게 나는 물리를 배우고 이해하며 더욱 깊이 빠져들어 갔다.

물리는 항상 새로운 자극을 준다. 마치 마인드맵이 퍼지는 것처럼 한 개를 배우면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닌 다음 문제를 제공해주며, 더욱 깊숙한 새로운 것을 제공한다. 물리를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늘어난 건 지식이나 계산력이 아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앞뒤의 상관관계를 의심하는 논리성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 전과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현상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숫자로 이루어진 계산식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학문. 지루 새로운 것이 궁금하고, 공부했던 내용도 다시 공부하게 되고, 그것이 풀리거나 이해했을 때 정말 큰 성취감을 주는 학문. 하루 종일 안 풀리는 문제를 잡고 풀어본 적이 있는가? 자고 일어났을 때 전날 풀지 못했던 문제를 30분 만에 풀어냈을 때의 기분을 아는가? 정말 짜릿하면서도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 즐거움. 이것이 내가 느끼는 물리다.

“물리학은 1명의 천재와 수 만명의 재미들이 모여서 한다고 보면 무난하겠겠다. '빅뱅 이론'과 같은 거창한 대상만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는 매우 소수이다. 모든 사소한 자연현상, 때로는 사회현상이 물리학 연구의 대상이다. 대상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의문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 강기천 교수는

전남대에 부임 (2003년) 하기 수 년 전부터 지금까지 늘 매우 작고 (nano) 이성한 (quantum) 세계에 대해서 고민해 왔다. 지금은 독일에서 연구원으로 체류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의 할머니'에게 그의 세계를 이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 중이다.

#### 문 준 학생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은 더 깊은 공부와 연구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다.

#### ▶학과 개설 1952년

#### ▶교수진(전공분야)

- 정창섭(응용광학)
- 김사률(고에너지물리실험)
- 우정주(반물질소재)
- 임기건(레이저광학, 포토닉스)
- 이형중(집적광학)
- 이강석(핵물리이론)
- 김창섭(집적물리이론)
- 박내웅(양자이론물리)
- 방윤규(응집물리이론(초전도체))
- 윤선현(양자광학)
- 조은진(고체물리이론)
- 노홍렬(양자광학)
- 강기천(응집물리이론(공시계))
- 류성안(응집물리실험)
- 황인각(응용광학)
- 노한진(응집물리실험)
- 주강평(고에너지물리실험)

#### ▶졸업 후 진출 분야

- 물리학과 졸업생은 주로 산업체 및 정부기관에 그리고 대학원 학위과정을 거쳐서 교육기관 및 연구소 등에 취업하고 있다. 주요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기관: 국공립사립대학/국공립사립 중등학교
- 국공립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포항기술연구소/전주통신연구소/한국철저연구소/표준연구소/국립과학사연구소 등 주요연구소
- 산업체: 금호타이어/LG중앙연구소/현대/삼성/LG 등 대기업
- 정부기관: 한국전력공사/한국통신공사/과학기술기술훈/지능차세대 등.



## 지구환경 잠재력 키우고 위기에 맞선다

### 지구환경과학부



#### 지구환경과학은 이런 학문 - 노 열 교수

바다가 따뜻해지면 태풍도 점차 거세진다. 쓰레기와 오염물질을 마구 버리면 토양과 지하수도 병들어 간다. 거대한 지진과 해일 그리고 화산의 폭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인류의 멸망을 소재로 한 공상영화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구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중심학문이 지구환경과학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더워질까? 지구가 더워져 빙하가 녹고 바다가 따뜻해지면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할까? 지진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왜 일어나며 예측 가능한가? 우리나라와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 자원은 어디에 있는가?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미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

“생동하는 지구의 모든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 지구환경과학이며, 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구환경과학자이다.

지구환경과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20세기 후반에 대두되기 시작한 지구 온난화, 사막화, 성층권과 오존층 파괴, 대재앙적 기상이변 그리고 지진과 해일을 포함한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 해양오염, 수자원오염, 토양오염 및 대기오염 등과 같은 지구환경문제는 광역적 및 국지적인 문제로 국가와 산업체 및 개인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일

상생활에까지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국가 경쟁력의 기반으로 육성되어야 할 학문이다.

지구환경과학자의 한 사람으로 강의실에서 환경지질학과 토양환경학을 가르치고, 연구실에서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의 정화와 이산화탄소의 저장방법을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토의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재미있다.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석유공사에 취업하여 석유자원을 찾아 나서고, 농어촌공사에 취업하여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을 정화하고, 기상청에 취업하여 지진과 날씨를 관측하고 예보하는 일을 담당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의 미래 꿈이 지진을 연구하는 지구환경과학자가 되는 것이다. 아들에게 수학과 물리 등 기초가 되는 다양한 과목을 지금부터 충실하게 공부하여야 미래에 훌륭한 지진학자가 될 수 있다고 잔소리를 하곤 한다.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공상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미래지구환경과학자의 지식과 노력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더워질까?  
지구가 더워져 빙하가 녹고 바다가 따뜻해지면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할까? 지진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왜 일어나며 예측 가능한가?  
“생동하는 지구의 모든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 지구환경과학이며,  
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구환경과학자이다.”

#### 지구환경과학을 공부하는 재미 - 박계룡 학생

최근 들어 지진과 화산폭발, 쓰나미,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지구촌 곳곳 이슈화되고 있다. 자연 과학도로서 이런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과제물들은 불청객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이에 비례하여 쌓여가는 지식은 피약벌아래를 걷다 만 난 나무그늘처럼, 훗날의 햇볕처럼 반갑다.

몇 년 전 북한의 핵실험이 지질 환경 전공인 나에게 가져다 준 교훈은 세계정세 속에서 위태위태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계기로 다가왔다. 얼마 전 멕시코만의 원유 유출사태는 총 1000억 달러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 왔지만 해양 환경 전공의 어떤 이에게는 부유생물의 식생 변화의 시발점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지구환경과학은 지구과학은 물론이고 물리학, 화학, 생물학, 수학 등 여러 가지 학문의 기초를 필요로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전 해양의 박테리아부터 전 지구적인 자연 현상까지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게 해준다.

1학년 학부생에서 2학년 전공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질 환경 전공을 택할 것인지 해양 환경 전공을 택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가볍게는 남은 3학년을 산으로 가느냐, 바다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었고, 무겁게는 적어도 향후 30년의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고민이었다. 선배들에게 많은 귀뜸을 받았는데 그런 힌트를 주었던 선배들은 각자의 전공을 살려서 공무원이나 공사 혹은 메이저 기업에 입사를 하겠다. 저 선배들도 나와 같은 고민을 했겠지 라고 생각하며 기라성 같은 선배들의 뒤를 이어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노 열 교수**  
2004년부터 전남대에서 환경지질학을 가르치고 있다. 지질학회지 편집위원장과 연구재단 전문위원, 전남대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역할을 하며 연구와 가르침에 열정을 쏟고 있다.

**박계룡 학생**  
지구환경과학부의 학생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공석인 자연대 학생회장직을 대신하여 자연대 협의체장을 맡고 있다.

- ▶ 학과 개설
  - 1978년 지질학과 신설
  - 1982년 해양학과 신설
  - 1996년 지질학과와 해양학과를 지구환경과학부로 통합
- ▶ 교수진(전공분야)
  - 지질환경전공
    - 김용준(암석화학) / 박배영(암석학) / 신성은(광상학)
    - 허민(고생물학) / 전승수(퇴적지질학) / 여인옥(지하수환경학)
    - 노 열(지구미생물/토양오염) / 신동원(지구물리/지진학)
    - 김성규(명예 교수) 지진학
  - 해양환경전공
    - 김주용(지질해양학) / 차성식(어류생태학) / 서해립(부유생물학)
    - 김광용(해양저생태학) / 조양기(물리해양학)
    - 이병권(해양환경독성학) / 박명길(생물해양학) / 최경식(퇴적학)
- ▶ 졸업 후 진출 분야
  - 교육 및 연구분야: 과학교사(중, 고등)/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국립수신과학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립해양조사원 등)/대학원 진학
  - 공무원: 기상청/수신직/환경직/해양직/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의 학예연구 및 학예사 등.
  - 공사 및 정부기관: 한국석유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환경관리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등.
  - 일반기업체: 토목·건설회사/정유·가스회사/지질·지반·지하수 컨설팅 회사/환경엔지니어링 회사/해양관련 컨설팅 회사/대우조선해양/SIX 조선 등.

# 생명 현상 실체와 의미 찾아간다 생물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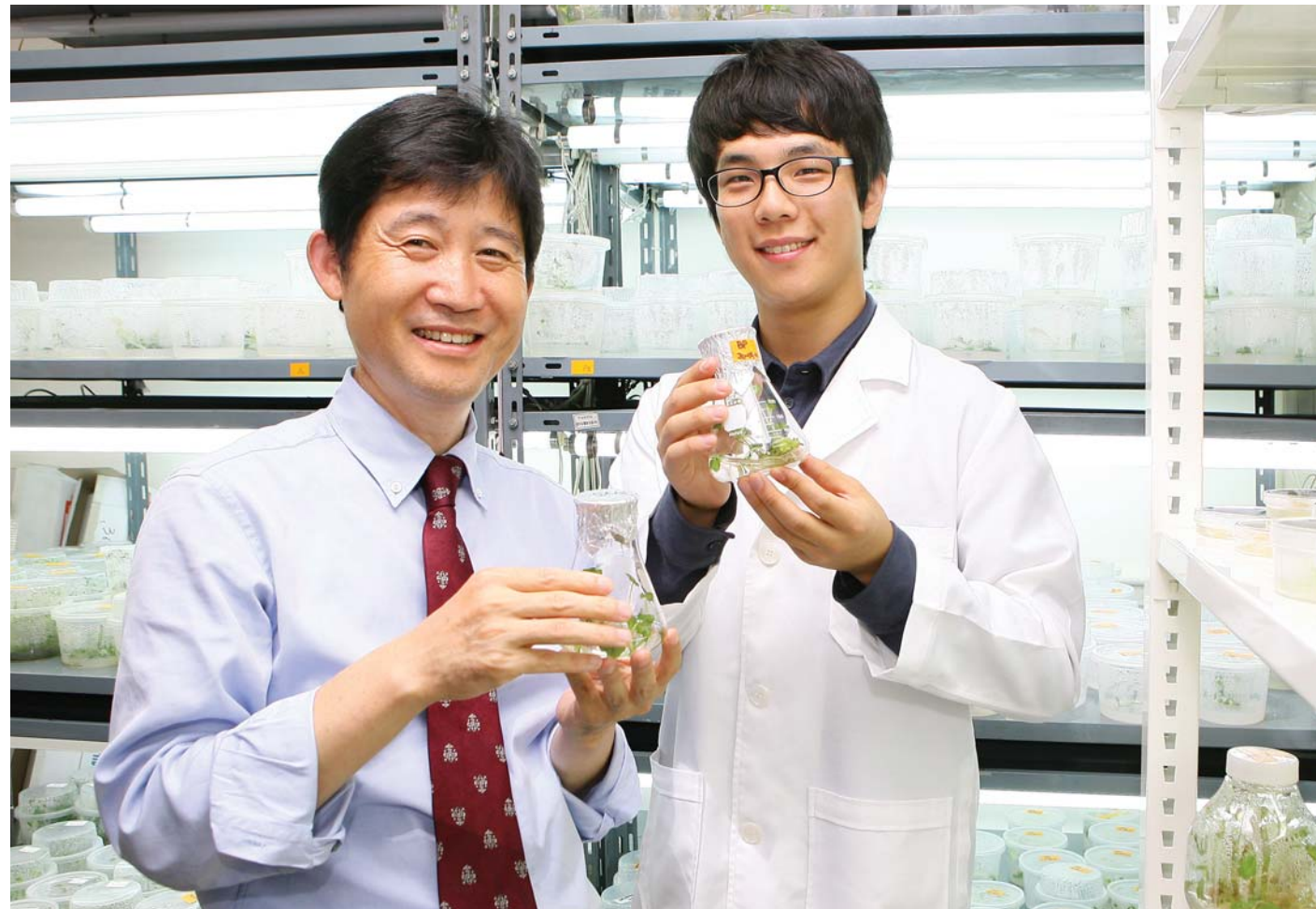
## 생물학은 이런 학문 - 황성진 교수

대학원 시절에 '생물체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라는 문장에 매료된 적이 있다. 세상 또한 생물처럼 진화하고 있다. 요즘 들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가끔은 적응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버릇 하나가 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가끔씩 지나 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일인데 그럴 때마다 마치 짧은 글 한편을 읽는 느낌이 들어 참으로 좋다.

작년 이맘때 학술세미나 참석 차 스위스 제네바에 며칠을 머무른 적이 있다. 마침 회의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수목원이 있어 자주 찾아 가곤 했는데 문득 '나는 언제부터 식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생물 시간이면 칠판 가득히 적혀져 있는 밑줄 그어진 형형색색의 단어와 그림들이 내겐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한 도구로만 느껴졌던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식물학에 대한 열정은 대학 진학 이후인 것임이 분명하다. 대학에 합격하던 날 시골에서 올라오신 아버지께서 1년 후 전공학과 선택에서 취업을 고려해 전산과를 가야 한다는 당신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내비추시고 내려 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건 아마도 몇 번의 계기가 있었던 것 같다. 발생학 교수님의 만남, 생물 실험 시간의 설렘, 그리고 생리학 실험실 체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하게 된 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일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생물학이 쉬운 학문은 아니다. 생명현상의 실체를 밝혀 나가기 위해 수학, 물리, 화학, 전산, 인문학, 공학과 같은 다양한 기초와 응용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합성에 대해 배우기 전에 '나무는 뭘 먹길래 저렇게 빨리 자랄까?' 라는 생각부터 해 보자. 어렵게 느껴졌던 생물학 이론이 퍼즐 게임을 하듯이 무척 흥미로워진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의 생물학 분야는 너무 거대해진 느낌이 든다. 요즘엔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생명과학은 물론 의학, 약학, 공학, 농학, 교육학, 법학, 인문사회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사회의 변혁이 가져온 결과다.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만남이 필요하다.

“**생물학이 쉬운 학문은 아니다. 생명현상의 실체를 밝혀 나가기 위해 다양한 기초와 응용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광합성에 대해 배우기 전에 '나무는 뭘 먹길래 저렇게 빨리 자랄까?' 라는 생각부터 해 보자. 어렵게 느껴졌던 생물학 이론이 퍼즐 게임을 하듯이 무척 흥미로워진다.**”

## 생물학을 공부하는 재미 - 황태호 학생

나는 생물이란 학문을 고등학교 담임선생님 덕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물리 전공이었던 선생님께서 가장 어려워하셨던 과목이 바로 생물이었다고 선생님께 묘한 라이벌 의식이랄까, 승부욕이랄까,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흥미가 유발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생물공부는 하면 할수록 일어나는 참을 수 없는 궁금증과 그것을 해결했을 때 느끼는 희열 때문에 지금 나의 전공이 되어 버렸다.

“생물학은 뭐니?”라는 질문에 나는 “제상에서 가장 넓고 가장 배울 것이 많으면서도 가장 재미있는 학문이야.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아있다는 것의 정의를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물학은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과학적으로 찾는 학문이야”라고 이야기한다.

생물학과에서 전공과목을 통해 배우는 내용도 정말 즐겁다. 그리고 산으로 바다로 떠나 채집활동을 하는 표본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는 경이로운 자연과 실험실에서 느낄 수 있는 생물의 신비로움은 결코 생물학도가 아니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경험들이다.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 주변에서 “넌 어떤 방향으로 취업을 하려고 생물학과를 갔니?” 라고 자주 물어온다. 물론 걱정이 앞서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리를 못 찾아서가 아니라 너무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서 수많은 갈래 길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순수기초과학인 만큼 생물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고민이지 “배워서 뭐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포 속에서 펼쳐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는 세상부터,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 한눈에 담을 수 없는 대자연의 신비에 다가가는 일, 과거의 생물과 현재의 생물을 통해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여행까지! 이 모든 것이 시작만 한다면 끝내고 싶지 않을 여행인 생물학이 아닐까?



**황성진** 교수는 전남대를 졸업하고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식물분자생리학으로 학부과 대학원에서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그리고 유전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현재 형질전환 식물세포에서 인체단백질 생합성조절과 관련한 연구를 코넬대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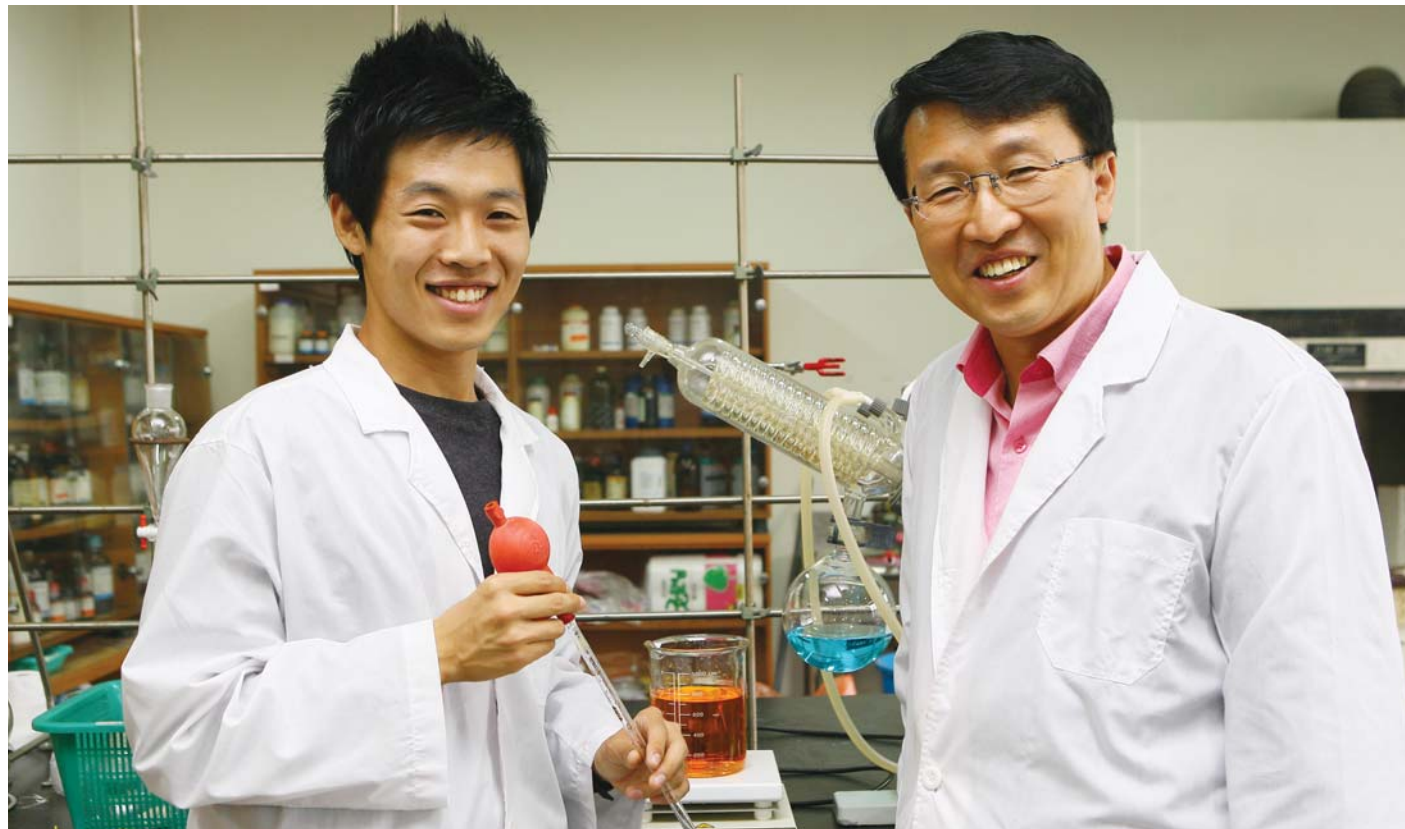
**황태호** 학생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생물이 어느새 전공으로까지 연결되어 생물에 목 빠져있는 학생이다. 순수기초과학인 생물학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 어떤 길로 가야할지 고민 중인 행복한 생물학도이다.

▶학과 개설 1958년  
▶교수진(전공분야)  
황 백식물생리학  
배 식미생물학, 균류학  
양형택(식물분류학)  
임선영(면역학)  
이항혜(생화학)  
이학영(조류학)  
김응석(분자생리학)  
김근중(분자미생물학)  
김일철(기능유전체학)  
황성진(식물분자생리학)  
성하철(동물행동생태학)  
▶졸업 후 진출 분야  
생물산업분야 기업체/생명과학기술분야 연구소/  
생명공학 관련 벤처기업/의·치·약학 전문대학원 진학/  
중·고등학교 교사/과학관 및 박물관 학예연구사/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학/공무원 농촌진흥청 등 각종 국가기관/  
환경관련 기업  
생물 다양성 기사/생물 분류기(새, 동물, 식물)/자연생태대 역기사/  
식물보호기사/생물공학기사 자격증 등 취득 가능

# 인류발전 이끌 신물질 개발한다 화학과

## 화학은 이런 학문 - 우희권 교수

일반 대중들에게 헐리웃 블록버스터 영화를 통해 알려진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는 대개 3가지로 나누어진다. 고집스럽게 자기 연구에 몰두하며 대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숭고한 영웅적 학자 이미지, 자기만의 연구세계에 갇혀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악한 이미지, 그리고 너털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바보스러운 희극적 발명가 이미지 등이다. 과학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대표적 예로 원자력이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원자력발전과 의학 치료에 선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대규모 살상 폭탄으로 악하게 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화학은 과학의 일종이라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과거 역사를 반추할 것 없이 현재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라. 다이아마이트, 비료, 농약, 의약품, 주사기, 촉매, 세라믹스, 반도체, 건축자재, 기발, 신발, 의류, 정밀화학소재, 석유, 화장품, 식품, 영화산업 등 어느 하나 단 한순간이라도 이들 화학제품 없이 인류가 생을 영위할 수 있는가? 당장 별순김, CSI, 해리포터, 신기전 등의 영화 드라마를 보라. 화학자가 얼마나 크게 인류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화학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학문으로 오해받고 있고 화학자는 사회에서 크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자는 화학물질의 불필요한 환경피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크게 노력하고 있다. 화학이 고부가제품 생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스포츠를 포함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재벌급 스포츠 스타와 벤처사업가가 탄생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과학기술력으로 우리나라 수출주력 제품들이 세계적 브랜드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뒷면에는 우수한 과학기술자 특히 화학자가 크게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화학은 첨단 전자-전기-기계-금속-화공-의약품 산업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초기반기술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수십년 전에 전국가적으로 과학기술을 적극 장려하여 우수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주도하였기에 오늘날의 세계 선진국 반열에 속한 우리나라가 있다. 20여 년 전에 청년 화학도인



내가 떠나면 이국땅에서 청운의 뜻을 품고 공부하며 형설의 공을 쌓은 것은 우리나라의 화학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화학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한국대표단 지도교수로 참여하여 전 세계 일등을 하는 데 이바지 하였고, 과학기술 홍보대사로 화학대중강연을 하기도 하고, 초중등학생을 위해 쉽게 화학을 해설하는 문고형 저서를 집필하기도 한다. 화학은 난해한 죽은 학문이 아니라 쉽고도 진화하는 살아있는 실용 학문이다. 그러니 화학에 접하고 화학에 빠져보라고 권하고 싶다. 화학 진리의 판도라상자를 함께 열기 희망하면서, 물론 화학을 전공하면 취직은 거의 100% 된다. 더욱이 현재 성공한 벤처 사업가도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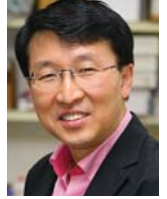
“**우수한 과학기술력으로 우리나라 수출주력 제품들이 세계적 브랜드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뒷면에는 우수한 과학기술자 특히 화학자가 크게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화학은 첨단 전자-전기-기계-금속-화공-의약품 산업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초기반기술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 화학을 공부하는 재미 - 김정준 학생

나는 지금 화학과에서 화학을 3년째 공부하고 있는 학부생이다. 예전에는 화학과라고 하면 공과대학을 염두해서 화학공학과나고 되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연과학대학 화학과라고 하면 그제서야 알아들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러한 반응들을 보았다고 해서 화학과 학생인 것을, 화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을 후회하진 않았다. 사람들마다의 입장차이겠지만 나는 응용과학보다 순수과학을 더 선호하며 흥미를 느끼고 공부하고 있다.

내가 화학을 처음 배운 것은 아마 내 기억보다 훨씬 이전일 것이다. 지금에 와서 느낀 것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배운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과목들에 화학은 전부 스며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내 기억에 의하면 과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자그마한 실험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화학이었지만 그 때는 전부 과학이라는 한 과목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해 본 적도 없었다. 그 실험은 모래 속에 특정 시료 두 가지를 섞어서 화산 모형을 만드는 실험이었다. 어릴 때 눈에 비춰진 그 화산 모형은 나에게 과학이 재미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일이 있는 이후로 난 과학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때 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화학과에 입학하여 과학자가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는 그저 막연한 꿈이었지만 화학과에서 그 막연한 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것을 배우고, 서로 도우며,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나의 현재까지의 목표는 취업보다는 화학을 더 공부하는 것이다. 자연과학대학은 비전이 없다는 소리를 가끔 듣는데, 나도 1학년 때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교직 이수만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화학과를 보면 학부생으로서도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대학원을 진학함으로써 더 높은 자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분야도 너무나 많은 학과이다. 그리고 교수님들 선배님들이 지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학과 자체에서의 영여성적, 자기계발활동사항 등을 지원해주는 항목이 많아서 취업이 목표인 사람들도 걱정이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과학대학 졸업해서 뭐하며 먹고 살거나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교수님들의 노력, 학부생들의 학구열로 점점 열리지 않던 길이 열리고 있고, 더 큰 사람이 된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이같은 사회적 인식 또한 머지않아 바뀔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희권 교수**  
대한화학회 부회장과 광주-전남노년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노기술연구소 소장이다. 다수의 해외 저서와 SCI 논문을 출간하였으며 국내외 학술활동 관련 다수의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김정준 학생**  
화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학생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 ▶ 학과 개설 1952년
- ▶ 교수진(전공분야)
- 이순기(물리화학)
- 한중수(물리화학)
- 최용국(분석화학)
- 박형권(무기화학)
- 남계준(무기화학)
- 우희권(무기화학)
- 국성근(물리화학)
- 전승원(분석화학)
- 김재영(무기화학)
- 오종환(무기화학)
- 정제윤(생화학)
- 이선우(무기화학)
- 김정선(생화학)
- 정현담(물리화학)
- 최현철(분석화학)
- 이준승(무기화학)
- ▶ 졸업 후 진출 분야
- 화학과 졸업생들은 화학과 관련된 연구소와 산업체 및 정부출연기관에 진출하거나 교직을 이수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으며,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진학 등의 분야로 진출 가능하다.



## ‘음파로스’ 세상의 중심에 서다! 국제학부



### 국제학은 이런 학문 - 양승갑 교수

한때 외국여행이 녹록치 않은 시절에 외국 공항에서 한국 기업의 로고가 붙은 키트를 밀며, 혹은 영국 피커딜리 광장이나 미국 타임스 스퀘어에서 한국의 대형광고판을 보며 묵은 애국심이 스멀거려 울컥거리던 적이 있었다. 사실 이런 감정 밀바닥에는 어느 부분 우리나라와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요즘 수업시간에는 학생들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 적잖이 힘들다. 어쩌다 아이돌그룹과 구성원의 이름이 나오면 나로서는 다른 세상의 일이다. 하지만 ‘나르샤’ 보다는 뜨거운 사랑의 대명사적인 ‘나타샤’가 더 어울린다는 등의 소위 쉬-인 소리는 지양한다. 적어도 지금의 학생들에게는 나를 포함한 윗세대가 지녔던 변방의 열등감을 찾아보기 어려우니 말이다.

우리 학생들에게서 겸손과 열등감의 모호한 구분에서 갈등하던 낯은 고민은 자신감으로 바뀐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은 물론 인터넷을 포함한 대중매체가 형성한 열린 환경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혜택이다. 이러한 열린 환경이 학생들에게 글로벌리즘을 심어 놓았다 할 수 있다. 우리 국제학부의 경쟁력은 많은 부분 이런 환경에 힘입고 있다.

국제학부는 해마다 교환학생, 언어연수,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형태로 많은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 어학연수는 물론 시드니 커피숍 점원에서 시애틀 어린이 캠프 가이드, 런던에서의 여수 EXPO 2012 홍보 등등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외국에서의 이력 또한 다양하다. 새로운 세계의 경험은 학생들의 시각과 인식의 차원을 몇 단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주

변 학생들에게로의 전파력 또한 매우 크다. 지금도 백팩을 챙기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 외국에서 돌아온 학생들을 통해 나는 한 가지 소중한 역설적 체험을 한다. 외국의 체험이 그들에게 이전에 보지 못한 우리나라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작다는 자조에서 올망졸망한 정겨움으로 부대끼는 관계들에서 배려하는 친밀감으로 우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다. 그럴 때면 나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글로벌리즘을 위한 첫 단계에 들어섰다는 부러움 섞인 찬사를 보내곤 한다.

토속적 문화가 몸에 밴 기성세대가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일은 늘 모호한 경계선 상에서 방황하는 느낌이 들게 한다. 그럴 때마다 나를 다잡는 것은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 위에 우리 것을 일깨우고 덧씌우는 일이야말로 세계화 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는 믿음이다. 에밀리 디킨슨은 “환희란 내륙의 영혼이 바다로 가는 것”이라고 노래한다. 좋은 학생들과 매 수업마다 떠나는 세계로의 여정은 늘 설레고 즐거운 일이다.

“ 국제학부는 해마다 교환학생, 언어연수,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형태로 많은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 어학연수는 물론 시드니 커피숍 점원에서 시애틀 어린이 캠프 가이드, 런던에서의 여수 EXPO 2012 홍보 등등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외국에서의 이력 또한 다양하다. ”

### 국제학을 공부하는 재미 - 이나래 학생

영어학, 일본학, 중국학과가 속해있는 국제학부는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한 한국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이 나라들에 대해 공부하는 곳이다. ‘국제학’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사람들에게 내가 국제학부라고 하면 수업이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냐는 질문도 아닌 단정 짓는 말을 많이 듣는다. 애초에 내가 국제학부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부터 주위에서는 수업들이 만만치 않을 거라며 걱정부터 하신 걸 생각하면 놀라운 일도 아니다. 국제학부에서 그저 국제화의 과정과 세계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배워야 할 게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면이 오히려 내게 매력적이었다. 단순히 그 나라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문화, 관습, 역사, 정치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세계 나라들을 알아가는 학부라는 점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국제학부를 목표로 한 이유였다. 특히, 나는 영어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 안에서 한국과는 다른 영미, 일본, 중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에 끌렸다.

요즘 영어를 배워 외국으로 나가야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언어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영어라는 공통된 언어를 사용한다 해도, 각자의 문화가 얼마나 언어라는 것을 차이 나게 하는지 깨달았다.

그래서인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처럼 국제학부의 수업이 국제의 정세를 파악하거나 문법, 번역을 하는 어렵고 어려운 수업이 아니라 나라 그 자체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문학과 말 속에서 직접 겪어보지는 못하더라도 생소하고 흥미로운 다른 세계를 접하는 것이다.



#### 양승갑 교수는

1999년부터 영어학전공에서 영미시를 가르치고 있으며, 맑고 하늘이 높은 기질, 수업 중 꼭 한번은 학교 공원 정자에서 학생들이 직접 지은 영미시를 읽고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 전통을 만들어낸 낭만의 대명사이다.

#### 이나래 학생은

동시 통역사의 꿈을 가지고 국제학부에 들어왔다. 지금은 영어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일본, 중국어에도 관심이 많아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등 3개 국어 공부에 열의를 올리고 있는 열정적인 학생이다.

#### ▶학과 개설 2002년

#### ▶교수진(전공분야)

- 영어학전공  
박한기 (영어통사론) 조영순(영어의미론)  
양승갑 (영미사) 오관영(영어음성학)  
강용기 (영미소설) 스미시(영어교육)  
저스틴 (디지털 디자인)
- 중국학전공  
김경국 (중국고전문학) 최승현(중국역사) 조원일(중국철학)  
엄영욱 (중국현대문학) 송진희(중국어학) 감시량(중국어학)
- 일본학전공  
강지현 (일본문학) 임지연(일본역사) 이병훈 (일본어학)  
정기룡 (일본사회) 토마리 후미(사회학)

#### ▶졸업 후 진출 분야

공무원, 기업체, 방송사,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며, 실용외국어교육과 교수진의 일대일 지도에 의해 전국적으로 최상위급의 취업률을 자랑한다. 2003년~2005년의 1,23회 졸업생은 100% 취업이 결정되었다. 국제학부는 다수의 교원자격 소지자를 배출하였고, LG/POSCO/GS칼텍스/KAL호텔 등의 기업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및 직업학교 등 전방지역 각 경제영역 및 교육영역의 외국어 교육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야수산업단지 외 각종 해외 무역업체에서 통역 및 컨설팅 상담 등을 담당하는 언어무역전문가/호텔리어/관광가이드/통·번역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폭증하고 있는 동남아 문제의 담당 부서인 해양경찰청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어 전문기로서의 입문 실습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경상학은 이런 학문 - 강영문 교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 인생은 다양한 형태로 변해 간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슴 설레는 10대 후반의 까까머리, 검은 교복차림의 고3의 나로 날아가 본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세계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세계지도를 보고 끝간데 없는 상상의 나라를 떠돌았다. 세계지도를 갖고 놀던 나는 세계를 무대로 무언가 하고 싶었다. 그 무언은 무역이라는 실체로 내게 조금씩 다가왔다. 그리고 무역의 세계는 내 인생의 가장 재미난 취미이고, 학문적 반력자가 되었다.

무역을 전공한 나는 경제연구소에서 국제통상을 담당하던 후 1997년부터 대학에서 국제통상을 강의하고 있다. 국제통상은 무역의 확대된 개념으로 기존의 제품중심의 국제상거래를 국제간의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 개념이다. 무역 없는 한국경제는 생각할 수 없다.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는 90%를 넘고 있고, 한국은 세계 11위 무역대국이다. 국제통상학은 이처럼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여 연구하는 분야이다.

국제통상학이 동지를 틀고 있는 경상학부는 기업경영, 국제통상, 물류교통의 3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학부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의 미래전략과 지역특화산업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21세기 국가전략 중 가장 핵심은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가 되는 것이다. 그 중심에 평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경상학부는 평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서 필요한 기업경영, 국제통상, 물류교통의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몫이고, 꿈을 꾸는 자만이 그 꿈의 달콤함을 성취한다. 후학들이 평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주역이 되어 세계를 무대로 신나고 멋진 자신의 삶을 당당히 펼쳤으면 좋겠다. 그 밑거름이 전남대학교 경상학부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다. 세계문화에 관심이 많아 세계지도를 갖고 놀던 아이가 세계를 호호하고 싶어 무역학과에 진학했고,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되어 이젠 후학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내가 꿈꾸었던 세상보다 더 큰 세상에서 아무런 거침없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부럽다고.

“국제통상학이 동지를 틀고 있는 경상학부는 기업경영, 국제통상, 물류교통의 3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학부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의 미래전략과 지역특화산업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상학을 공부하는 재미 - 김영미 학생**

나는 여수에서 나고 자랐다. 그래서 누구보다 여수 그리고 전남에 대한 애정이 깊다. 어쩌면 이것이 경상학부를 지원한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항상 관심이 덜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던 전남은 더 이상 한 나라의 지방도시가 아닌 동북아의 경제자유구역이 되었다. 세계 속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또한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주의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시대에 국내보다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경상학부는 세계 트렌드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학문을 배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기업경영, 국제통상, 물류교통. 세계화속에서 어느 하나 빠짐없이 중요한 학문이다. 국제비즈니스 전문 능력과 국제적 경험과 감각을 길러 대학과 인접한 전남 동부권의 많은 글로벌 기업과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 중에서도 내가 국제통상학에 끌린 이유는 다른 전공에 비하여 국제지향적인 성격과 실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매스컴에서도 보면 기업 및 사회 차원에서 통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통상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그리고 그 기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통상현장은 물론 벤처, 무역회사, 해외마케팅 관련 분야로의 진출도 가능하며, 특히 제조업체 및 종합상사의 통상파트, 금융기관 통상관련 공무원으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대학교 2학년이 되어 경상학부에서 통상학전공으로 진학하여 교수님의 수업에서 처음 들은 말이다. 특히 자유무역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마음가짐은 더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저 마음이 끌리는 나라를 하나 정하고 그 나라에 대해 통상전문가가 돼 보는 건 어쩌냐는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외무역에 대해 아직은 미숙한 동남아를 목표로 그 꿈을 이루고자 한다. 뉴스나 신문에서 동남아와 우리나라의 통상 관련 소식을 접하게 되면 나의 일인 것처럼 가슴 떨리고 벅차오른다. 청년 실업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대에 국내에 국한된 사고로 그저 좁은 우리나라에서만 찾으려 하지 않고,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운다면 분명 세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통상학은 항상 변한다. 어느 학자의 한 번의 정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른 학문과는 달리 통상학은 시대, 나라, 경제, 정치환경 등 여러 변수에 의해서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쩌면 이런 점이 나를 더 통상학에 빠지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나 과학처럼 답이 정해진 공부는 싫어했던 나로서는 알면 알수록 긴장감이 생기는 묘한 통상학이 너무 재미있다.



**강영문 교수**  
대신경제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국제통상을 담당하였다. 한국 학술진흥재단 해외파견교수로 선정되어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에서 교환교수를 역임했고 2008년 전남대 교육우수교수로 선정되었다.

**김영미 학생**  
취업을 앞두고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슴에 새기면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통상 전문가를 꿈꾸고 있다.



- ▶ 학과 개설 2007년
- ▶ 교수전공분야)
  - 기업경영학전공
  - 국제통상학전공
  - 물류교통학전공
- ▶ 학과 개설 2007년
- ▶ 교수전공분야)
  - 기업경영학전공
  - 국제통상학전공
  - 물류교통학전공
- ▶ 졸업 후 진출 분야

자격을 통해 공인회계사/세무사/번리사/관세사/노무사 등 진출 대학원에 진학하여 경상계열 관련 학계 및 연구소에 진출 일반기업의 회계/기획/세무/마케팅/무역/물류/교통 등 관련분야 진출 은행/증권사/보험회사/투신사 등 금융계 진출도 활발



## 게임, 영상, 애니, 상거래... 상상을 즐긴다 문화콘텐츠학부



### 문화콘텐츠학은 이런 학문 - 김경수 교수

문화콘텐츠는 한마디로 '즐거운 공부'다. 즐기는 것과 공부하는 것의 경계가 모호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인터넷, 모바일, 게임, 그래픽, 사진, 홈페이지, 영상, 음악,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축제, 상거래 같은 게 문화콘텐츠다. 다시 말해서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란 얘기인데 예를 들어 전 세계의 홈페이지를 서핑하고, 모바일 게임을 벤치마킹하고, 캐릭터·애니메이션을 연구하고, 여행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찍고 SNS(블로그, 트위터 등)에 몰입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다양하면서도 즐거운 학문인가! 설령 적성이 안 맞는다면 바깥 분야도 많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 대신 '미쳐야 하는 학문이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로 미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여기서 미쳤다는 뜻은 무언가 한 분야에 몰입하여 사랑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한 분야를 미칠 정도로 공부한 사람만이 세상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문화콘텐츠학부엔 희망이 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필자가 재직하던 7년 반 동안 전국 콘텐츠 공모전에서 산업자원부장관상, 해양수산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등 다섯 차례의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글을 쓰는 이 시간에도 전남도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 소식이 들려와 이제까지 총 173건의 수상을 기록하였다. 이러다보니 여기에 참여한 졸업생들은 세네카 평균 10Cm가 넘는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졸업하였고 특별한 스펙 덕분에 자신이 만족할 만한 취업과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있으니, 그것은 다양

한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그들의 '자신감'이다. 모 대기업에 취업한 99학번 졸업생은 전체 모임에서 "교수님, 저는 명문대 부럽지 않은 자부심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졸업생이 하나 둘 늘어간다는 게 우리의 희망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학시절에 미쳐서 공부했다'는 것이다. 주말 없이, 방학 없이 미쳐서 공부한 사람만이 최고의 인터넷전문가, 게임프로그래머, PD, 애니메이터, 상거래기술사가 되지 않겠는가. 필자 역시도 최고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인생 목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꼭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 중에 "대학생활은 자신이 하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다. 필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만남이 더 크기 때문이다. 대학은 처음에 어떤 학문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문화콘텐츠는 한 분야에 미칠 수 있는 매력적인 학부다.

“ 전 세계의 홈페이지를 서핑하고, 모바일 게임을 벤치마킹하고, 캐릭터·애니메이션을 연구하고, 여행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찍고 SNS(블로그, 트위터 등)에 몰입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다양하면서도 즐거운 학문인가! ”

### 문화콘텐츠학을 공부하는 재미 - 이현리 학생

원래 나의 계획은 대학은 적당히 해서 졸업하고 그 후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 자신도 믿지 못할 일이 생겼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연구실 생활을 5년 이상 하고 있는 것이다. 뒤돌아보면 평범한 5년이 아니라 별난 5년이였다. 김경수 교수님, 선배들과 함께 주말도 없고 방학도 없고, 연말, 신정도 없으며, 스승의 날, 심지어 내 생일날까지 콘텐츠 공모전을 했으니까. 일 년 중에 집에 가는 날이라곤 설과 추석 연휴 절반, 크리스마스, 그리고 한 달에 한 두 번씩 집에 가는 날이 전부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입생들은 그게 무슨 재미없는 대학생살이냐고 바웃을 것 같다. 하지만 잘 모르는 소리! 누구보다 즐거운 대학 생활이었다고 자부한다. 공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추억도 다른 학생들보다 몇 배는 많았다. 그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문화콘텐츠였고 늘 새로운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공모전은 내가 좋아하는 동영상, 애니메이션, 창업, 프리젠테이션 등이었으니까. 만약 나에게 수학이나 과학, 이론 분야를 하라고 했다면 나는 진작 그만 두거나 다른 길을 선택했을 거다. 하지만 내 세부 전공이 그래픽, 웹, 플래시, PT였기에 나름대로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었다. 특히 공모전에 대한 도전은 나에게 다양한 경험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5년을 하다 보니 해양수산부장관상 등 총 23건의 수상을 했고, 포트폴리오도 그만큼 묵직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감이 커졌다. 나 같은 사람도 쉬지 않고 하니까 되는구나! 라는 강한 믿음 같은 게 생긴 거다. 어쩌면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월화수목금금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내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 같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어려움을 하나 둘씩 뚫고 나아갔을 때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그만큼 커졌던 건 아닐까? 또한 선배배에 대한 배려와 남다른 사랑도 배웠다. 모르는 게 많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것만은 입시생들에게 말하고 싶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대도시 대학으로만 진학하려 하지 말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확인해 보고 적성을 따져서 창의적으로 지원하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월화수목금금금.. 해보자고 ㅎㅎ



**김경수 교수**  
2003년부터 멀티미디어전공에서 미디어콘텐츠를 가르치고 있다. 특히 웹미디어 분야의 선두주자로 학생들과 함께 100여 건 이상의 수상실적을 기록하고, 현재 웹미디어 대백과사전을 집필하고 있다.

**이현리 학생**  
2002년도에 멀티미디어전공에 입학하여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공모전에 참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상 등 총 23건을 수상했고, 디디엘 연구실의 웹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 학과 개설 2002년
- ▶ 교수진전공 분야  
이준 석경영정보시스템)  
한순 회컴파 일러)  
강영민컴퓨터네트워크)  
정희택분산처리시스템)  
김경수웹디자인(CG)  
박정선배턴인식, 영상처리)  
조혁현데이터베이스)
- 윤민 석 MS/IS(경영과학/정보시스템)  
김용민(정보보안)  
박승영(e-Business)
- ▶ 졸업 후 진출 분야  
멀티미디어콘텐츠분야/영상제작 및 애니메이션 방송분야  
정보통신분야/게임분야/디자인 및 컴퓨터그래픽분야/  
유니쿼티스 정보화분야/e-Business분야/e-Commerce분야/  
정보통신분야/물류 및 유통 분야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창의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세상을 움직이는 '디자인 파워' 시각정보디자인학과



“ 시각정보디자인학과에서는 실무형 디자이너 양성과 디자인의 제반 원리를 학습하여 기획, 분석,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 시각정보디자인학은 이런 학문

### - 윤재성 교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은 무엇일까? 라고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각기 다른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광고에서의 문구, 컴퓨터그래픽, 연예인 모델, 끝없는 우주의 모습, 화려한 그래픽 영상, 영화 속의 한 장면 등. 이렇듯 우리들이 생각하는 디자인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시각정보사회의 디지털문화는 수많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온갖 기호와 이미지들로 넘쳐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와 이미지를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의 모든 것은 하나의 미학적인 기호와 이미지가 되고 오늘날의 소비는 경제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디자인은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들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미지 재창출을 위한 디자인은 디지털 시대에서 광범위하게 소비자의 심리에 반영되어 제품의 인지도 향상 및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자인은 영상을 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영상을 본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다. 즉, 디자인은 오늘날 사회, 문화, 영화,

공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다. 디자인 원리 및 실용성, 합리성, 과학적 근거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무한한 노력과 열정 속에서 탄생되기 때문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디자인 파워”를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다.

시각정보디자인학과에서는 실무형 디자이너 양성과 디자인의 제반 원리를 학습하여 기획, 분석,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로는 디자인회사 운영, 디자인관련 자격증 취득, 시각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영상디자인, 웹디자인, 디자인교사, 미술치료 등 미래를 준비하는 디자이너의 길은 다양하다.

또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기 중심의 수업은 팀워크를 통하여 디자인 결과물의 완성도를 증대시키고 미래의 파워 있는 디자이너로서의 비전과 능력을 배양시킨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 브랜드화하고 시각적 언어는 세상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디자인 시대에 당신은 세상의 중심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희망한다.

### 시각정보디자인학을 공부하는 재미 - 박수빈 학생

‘디자이너가 뭐야?’ 디자인 중에서도 시각디자인이란? 도형, 화상 또는 디스플레이 등 시각적 표현에 의해 실용적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시각정보디자인학과는 인류의 사람다운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기계와의 소통을 포함한 시각디자인의 영역을 넓히고자 개인의 개성과 디자인적 감각을 살려 아이디어 발상법, 선과 면의 효과적인 레이아웃 등 탄탄한 디자인 기초를 배우는 곳이다. 세상이 하나의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어땠겠는가? 디자인은 세상에 디자인이라는 색을 입혀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학문이다.

내가 시각정보디자인학과를 지망하게 된 계기 또한 TV에서 나오는 광고 때문이었다. 광고가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고 공부이외의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됐다. 하지만 디자인을 배우고 싶던 열정만큼 걱정됐던 건 “공부만 하던 내가?”였다. 디자인에 문의했던 나는 디자인을 깊이 알리고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느껴지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4학년인 나에게 디자인이 뭐냐고 묻는다면 쉽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디자인은 꼭 디자인을 접하고 온 사람들만이 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다. 나도 1학년 때 디자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지만, 전공수업을 들으면서 디자인에 대한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게 됐고 곧 그 호기심은 앞매여 있던 나의 창의력을 깨웠다. 디자인은 답이 정해진 학문이 아니라 나의생각이 곧 답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디자인은 항상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준다.

교수님들 또한 디자인은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딱딱한 책 위주의 수업이 아닌 영상물이나 체험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눈을 키워주신다.

우리 학과 좌우명은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한다”이다. 이 말처럼 누구나 한번쯤은 자신의 인생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것이다. 나 또한 대학 4년 내내 그리고 지우고를 반복하면서 나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했다. 4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다. 현실적인 문제에만 치우치면서 대학 4년을 보내기 보다는 한번쯤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며 시간이 지나도 또렷이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꽤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윤재성 교수는

30여 년의 세월을 ‘디자인 세계’와 함께 하였으며 미래의 30여 년도 ‘디자인 세계’와 함께 하고 싶다. 한 가지 소망은 본 학과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의 소유자로서 사회의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

박수빈 학생은

광고에 관심이 많아 일상생활과 전공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시각정보디자인학과에 입학했다. 2학년 과대표와 3학년 여학우회장을 거쳐 현재는 4년 동안의 열정을 쏟아내는 졸업작품 전시준비에 매진 중이다.

### ▶학과 개설 1988년

### ▶교수진(전공분야)

김일권(조형 예술-기초미술/컴퓨터아트)

서영성(영상표현-사진)

윤재성(시각영상디자인)

최 석(시각디자인)

### ▶졸업 후 진출 분야

광고 디자이너/광고사진가/방송그래픽 디자이너/캐릭터 디자이너/

웹디자이너/편집디자이너/애니메이터/미술교사/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웹마스터 등이 있다.

디자이너로서의 활동은 물론 특히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미술교사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과이기도 하다.



## 법으로 선박의 안전을 지켜라 해양경찰학과



### 해양경찰학은 이런 학문 - 박달현 교수

‘해양경찰’은 ‘경찰’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바다’와 ‘해안’을 관찰로하는 ‘경찰’이다. 따라서 해양경찰학과에서는 크게 두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는 경찰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법 관련 교과목이고, 다른 하나는 해양경찰의 업무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박운용과 관련된 항해학이나 기관학 같은 교과목이다.

특히 법 관련 교과목분야에서는 경찰의 고유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찰학’, ‘형법’, ‘형사소송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체계를 가르치는 ‘헌법’과 국가를 비롯한 행정기관, 즉 정부내의 관계, 정부와 개인의 관계를 가르치는 ‘행정법’ 등이 개설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보니 우리 학과 졸업생들은 해양경찰을 기본적으로 진출하지만, 그 밖에 ‘육상’ 경찰, ‘법원사무직’이나 ‘검찰사무직’, 심지어는 ‘교정직 공무원’으로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항해학’ 관련 교과목 분야에서는 선박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기관학’ 관련 교과목 분야에서는 선박의 기능에 관한 교과목 전반이 개설되어 있다. 특히 우리 해양경찰학과는, 정부에 의해 ‘해기품질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해기면허를 취득하는데 최소 7년이란 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우리

학과 재학생의 경우 희망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항해사 해기면허’나 ‘기관사 해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 해기면허는 해양경찰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항만청이라든가 해양경찰내의 일반직 공무원등으로 진출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많은 대학에 있는 일반 ‘경찰행정학과’의 경우 ‘육상’ 경찰로 진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그 졸업생들이 ‘해양’ 경찰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항해 관련 학과’나 ‘기관 관련 학과’의 경우 ‘항해사 해기면허’나 ‘기관사 해기면허’를 취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해양’ 경찰로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데 반해 우리 해양경찰학과의 경우 이 모두 분야를 어우르고 있어 그 장점이 배가 된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우리 학과 졸업생은 ‘해양경찰’ 이외에 ‘육상경찰’, ‘법원사무직’, ‘검찰사무직’, ‘교정직’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음은 물론이고, 거의 매년 해양경찰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응시율 대비 최고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법을 비롯해 해양과 선박에 대한 공부와 승선실습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한 경험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다.**”

### 해양경찰학을 공부하는 재미 - 김대욱 학생

21세기는 **신해양시대**로 단순히 자원 이용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해양의 개념이 이제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 해양교류 및 안전과 치안 유지 및 확보가 더욱 중요시 되면서 해양경찰이 더욱 부각되어 이전보다 해양경찰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해양경찰학과 학생들은 우리들만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인 법적 사고(Legal Mind)를 통해 사물을 관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뿐더러 남다른 봉사정신과 대인정신을 선후배의 이해관계 속에서 배우고 있다.

나는 학과 공부를 시작하면서, ‘법’과 ‘선박’이라는 좀 생소한 학문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두 분야의 독특한 매력(헌법, 형법, 국제법, 선박조종학, 천문항해학 등)에 서서히 빠져 있음은 물론이고, 해양경찰이 되려는 초지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문도와 제주도 뿐만이 아닌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을 항해하는 동백호에서 승선실습을 하고, 각국의 치안과 해상보안, 각국의 해양경찰(Coast Guard)의 역할, 활약상을 보고 여러 가지를 배우며 느낄 것이다. 또한 정겨운 학과 생활과 승선실습을 통해 학생들 간의 우정, 의리, 두터운 신뢰감, 결속력 그리고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개개인의 역량과 전문을 크게 넓히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학과생들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헬스 기구가 구비된 무도실을 학과 내에 갖추고 있고, 무도학 수업을 통해 태권도와 유도를 배우며 심신을 가다듬고 더욱 단련할 수 있다.

또한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후의 진로에 대해 모두 궁금해 할 것인데, 우리 학과는 법을 비롯해 해양과 선박에 대한 공부와 승선실습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무사, 일반경찰, 해양경찰, 세관,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으며, 단지 전문적 지식인 법과 선박의 항해나 기관술의 이론만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라 자신한다.



박달현 교수는

2003년부터 전남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강의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법 집행에 있어 ‘사람’을 중시하라는 것이다. 매 학기, 학생들을 위한, 보다 나은 교수법을 익히기 위해 ‘더 나가’에 참여하고, 학년들의 학교생활과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로지도교수제’를 통해 신입생들과 지속적 만남을 가지고, 2학년들과는 ‘다독다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삶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책을 선정해 읽고 토론하여, 양식과 토론기술 향상에 기하고 있다. 3학년들과는 ‘진공 관련 기업체(연구소)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천안개발교도소’를 방문하여 취업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시야 확대를 꾀하였고, 이번 겨울방학에는 학생들의 외국에 대한 시야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인 ‘세계교육기행’ 참여를 학생들과 준비하고 있다.

김대욱 학생은

해양경찰을 목표로 하여 해양경찰학과에 입학했다. 선박 회사에서 항해사로 병역특례를 포함한 4년간 상선 항해사로 승선한 뒤에 복학하여 선박에 대한 이론과 법을 포함해 해양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3학년으로 항해파트의 대표를 맡고 있다. 교내 전공스터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모의 해양실관연대대회, 독서토론모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학과 후배들과 서로 사이좋은 일원으로 지내고 있다.

### ▶ 학과 개설 2002년

#### ▶ 교수진(전공분야)

박달현(형법·형사소송법)  
장익중(항해 및 해상안전·해양오염방지)  
최영수(기관공학·기계역학)  
방호삼(국제해항법·해사법)

#### ▶ 졸업 후 진출 분야

-해양경찰분배(간부요원 및 일반요원)  
-공무원 분야(해양수산부 행정직/경찰 및 법무행정직/교정직공무원 등)  
-해운 및 수산회사 분야(선박 해기사 및 관리요원)



“나는 지금으로 간다.”

## 효율 높여 5년 만에 학·석사 학위 취득

고석일\_ 전기공학과 4학년·석사 1년차

남들보다 4년이나 늦게 대학에 입학했다. 그래서 몇 배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학년 때는 온통 수업과 학점에만 집중했고, 2학년 때부터 취업캠프, 학술세미나, 기업체 견학 등 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우연히 알게 된 학·석사 연계과정을 올해 시작하면서 4학년 2학기이자 석사 1년차 생활 중이다. 1년 후에는 연구로 다져진 실력을 갖춘 석사가 될 희망에 부풀어 있다.



### 학·석사 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조기에 졸업(수료)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학사 및 석사과정 수업연한을 각각 1 학기씩 단축하여 5년 내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사제도 (모집학과는 학과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모집학과  
선발 희망학과 전체  
(※간호대,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사대는 제외)

▶선발일정  
-1학기: 1월 접수, 2월 선발  
-2학기: 7월 접수, 8월 선발

▶모집인원  
연계과정 모집 당해 해년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 이내 적용

▶지원자격  
-지원가능학과: 주(복수)전공의 대학원 해당 학과(전공)  
-학부 졸업학점이 130 학점 이하인 학과 소속 학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단, 법학과는 졸업학점이 140학점이나 학과의 희망에 따라 선발 및 지원가능)  
·5학기 이수한 재(3학년 2학기 진입예정자)  
·90 학점 이상 취득한 자  
·총평평균점 3.5(4.5단계기준)이상인 자

▶특전사항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무시험 특별전형  
-학부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학점미수 제외) 면제 가능 [소속학과 허용 범위내]  
-학부 졸업학점 감축: 6학점 감축 (130학점 → 124학점, 140학점→134학점)  
·일반선택에서 6학점 감축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기성회비 제외

▶선발방법  
학과별 서류전형에 의해 선발하되, 학부성적·추천서·연구활동 계획서와 기타 학과 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문의  
교육지원과 062-530-1028

### 전기공학과를 왜 선택했나요?

물리와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 성적이 좋았어요 특히 물리가 재미있었어요. 전기분야 자체는 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수학을 잘 알아야 이 분야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기공학을 선택하게 됐어요. 실제 공부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 학석사 연계과정은 언제 알게 되었나요?

3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공대 계산기에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짜 넣은 걸 최준호 지도교수님께서 우연히 보시고 학·석사 연계과정이 있으니 한번 해보라고 권해주셨어요. 좀더 깊은 연구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석사과정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된다는 게 끌렸어요.

### 개인적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평균평점 3.5 이상, 이수학점이 90학점을 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90학점이 되려면 매학기 자기가 들어가야 하는 학점을 모두 채우고도 계절 학기까지 챙겨 들어가 가능하죠. 저는 조기졸업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수학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어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쳤는데 지도교수님께서 저에게 추천하셨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부 수업은 교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대학원 수업은 알아서 준비하고 스스로 연구해야 한다. 학부생 때보다는 훨씬 능동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지만은 않다.  
올 봄인 4학년 1학기 때부터 전력계통연구실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다.  
학부·대학원생들과 섞여 지각·결석없는 '모범생'으로 생활하고 있다.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학문하는 재미에도 새롭게 눈뜨가고 있는 중이다.

### 학·석사 연계과정의 장점은?

4학년 1학기 대학원 수업을 듣기 시작해서 4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석사과정에 들어갑니다. 본래 6년이 걸리는 과정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장학금 혜택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지요. 내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느냐는 어떤 연구, 어떤 논문을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신재생에너지와 배전이 융합된 분야에 대해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실질적인 기술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 계획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은?

지금 몸담고 있는 전력계통연구실은 송전·배전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조기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게 좋을까 잠시 고민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석사공부를 하게 되면 배움의 클래스가 달라지고 나의 연구력이 더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기산업분야는 전력(스마트 그리드)산업, 즉 중앙에서 전력을 컨트롤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컴퓨터로 피드백이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한 더 깊은 공부를 하다보면 제가 목표로 하는 한전이 원하는 전문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학·석사 연계과정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우선 평균평점과 이수학점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3.75이상을 받아서 다음 학기에 3학점을 더 이수한다면, 계절 학기를 받든지, 기회는 항상 있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잡을 수 없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꼼꼼히 체크해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학·석사 연계과정도 하나의 학교 프로그램이잖아요. 내게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찾아서 활용하면 대학생활 전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제야  
나를  
알게  
된  
것  
같  
다.”

## 인류학 토대 위에 경영학 장점 플러스

조은아\_ 인류학과 06 학번현 LG이노텍 DN마케팅 2그룹

고등학교 때부터 세계사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인류학과 내에서도 고고학에 매력을 느꼈다.

고고학자, 박물관 큐레이터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다.

함께 다니며 공부했던 두 친구와 함께 교수님들로부터 촉망받는 삼총사였다.

그러던 그녀가 4학년이 되면서 돌연 경영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했다.

연구보다는 취업 쪽으로 마음이 기울면서부터였다. 취업이라는 현실에 맞설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 복수전공 · 부전공

주전공 이외의 다른 학부 과의 소정의 전공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학문의 시야를 넓히고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

#### ▶ 신청 및 취소 시기

-신청 : 1월, 7월 중순

-취소 : 1월, 7월 초순

#### ▶ 신청 및 취소 방법

-전남대학교 포털(<http://portal.jnu.ac.kr>) 접속

-교육지원

-내 학사행정

->학석

-휴/복학/전공신청

-부 : 복수신청, 취소 · 전공구분선택 · 대학선택 · 학과선택

->전공선택

-신청, 취소

#### ▶ 신청 대상학부(과)

간호대, 수의대, 약대, 예대미술학과 이론전공 제외, 의대, 치대, 자연대 수의예과 · 의예과를 제외한 전 학과

#### ▶ 신청 자격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제2전공은 30학점 이상,

제3전공은 60학점 이상인 자

(※간호대, 수의대, 약대, 예대미술학과 이론전공 제외, 의대, 치대,

자연대 수의예과 · 의예과 학생 제외)

#### ▶ 이수자 선발방법

-학부(과)에서 정한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

### 4학년 때 복수전공 선택이 쉽지 않았을텐데

2학년 1학기부터 2년 동안 사학과를 복수전공했어요. 그때는 고고학에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학과 공부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3학년 때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1년 정도 머물며 공부하면서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결국 연구보다는 취업을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고 관련 카페나 사이트에서 여러 정보를 접하면서 사회 · 인문계보다는 경영대 · 공대가 취업에 유리한 점이 많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교환학생에서 돌아오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경영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했어요.

### 새로운 전공이 힘들진 않았나요?

처음엔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툭 떨어진 기분?(웃음) 학과 특성상 팀별과제를 수행하는 강의가 많은데 타과생인 저는 선뜻 끼여들기가 쉽지 않았죠. 낯선 공부지만 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팀장을 맡고 동생들을 이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는 정말 신나게 공부했어요. 제가 자신감 있게 나서서 열의를 보이니까 교수님이나 학과생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팀별발표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 저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생각해요.

### 복수전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각 학과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경영학부는 원래 전공을 33학점 이상 취득하고, 경영학부 전공을 3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정원의 10%인 20명 정도만 뽑았는데 경쟁이 꽤 치열했어요. 보통 평균평점 3.5이상에서 선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평점 4.07이상에서 결정되거든요. 다행히 인류학과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통과됐죠. 한 학기에 경영학과 과목만 5~6개씩 1년 반 동안 뽀뽀하게 33학점을 이수했어요. 정말 즐겁게 공부했기 때문에 한 과목 빼고는 모두 A플러스를 받았어요. 인류학과 성적보다 경영학과 성적이 더 좋았다니깐요.(웃음)

지칠 줄 모르는 열정덕분인지 그녀의 목표로 지난 6월 취업에 성공했다. TV튜너와 소형모터 부문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전자부품제조회사 LG이노텍이 그녀의 직장이다. 수많은 부품을 고객 수요에 맞춰 효과적으로 관리 및 조달하는 업무를 배우고 있다. 마케팅과 영업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신뢰 형성이 중요한 기업 간 마케팅 업무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 복수전공이 어떤 도움이 된 것 같으세요?

인맥이 넓어지고 도전의식도 생겼고, 스펙도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해주었어요. 파워포인트 스킬이나 프리젠테이션 능력은 덤으로 얻은 거였죠. 지금도 인류학과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요. '취업'이 고민이라면 경영학과든 영문학과든 실용학문을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선택하라고요. 그게 어려우면 그 학과의 전공수업이라도 들으라고 해요. 그런 어떤 공부가 더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세상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관계맺기를 통해 나를 준비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 진로를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와 관련이 깊죠. 인문학과 경영학은 학문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완해줄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차라리 전과를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뇨,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인류학을 공부하고 그것에 경영학을 접목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크게 어필했다고 보거든요. 인류학과에서 벌교 재래시장의 매출이 왜 떨어지는가 등 각 지역의 사회인류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답사를 다닌 경험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낯선 이들과 대화하는 법, 통계를 바탕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법 등을 배웠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영업에도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인류학적 지식이 경영학과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 복수전공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너무 뻔하지만 학점관리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네요. 그건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혼자서 다른 학과에 섞여 들어가더라도 더 자신감 있게 참여하고 자기가 직접 팀을 만들어 보세요. 튀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교수님들도 알아봐 주세요. 두 가지 전공의 시너지효과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꿈은 유망이든 거야.”

## 의류학과에서 신문방송학과로 전공 변신

천민주 \_ 신문방송학과 2학년

천민주, 이름 석 자만으로 빛나는 패션 에디터를 꿈꿨다.

야무진 대학생활을 그리며 경남 진주에서 전남대학교 의류학과로의 유학을 선택했다.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십분 활용해서 전공 공부, 학교 프로그램, 외부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

1학년 2학기 무렵, 실습 수업 부담이 늘기 시작하면서 적성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됐고

결국 전과를 결심했다. ‘패션’에 무게를 둔 의류학과 대신

‘에디터’ 쪽에 방점을 찍는 신문방송학과를 선택하기로.



### 전과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학생 1회에 한해 소속대학 내에서 학부(과)를 변경하거나 다른 대학의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대상 학과  
의예과, 수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약학부, 수의학과, 치의학과  
예·체능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부(과)

▶신청시기  
매년 1월 초순경 12월 말 홈페이지 공고

▶지원 자격  
지원서 접수일 현재 두 학기만 이수한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자로서 취득학점이 30점 이상이고 평균평점이 2.75 이상인 2학년 진입예정자(단, 당해 학년도 동계개설학기 성적은 제외함)  
※광주캠퍼스 일반학부 학생은 제외

▶지원 방법  
소속 학부(과)실에 비치된 모집단위간 이동 지원서에 소속 대학장의 지원 승인을 받아 이동하고자 하는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선발  
- 폐지된 모집단위 재학생을 우선 선발  
- 기 취득한 성적과 면접 및 학부(과)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되, 해당 학부(과)에서 반영비율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발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의  
학사관리과 062-530-1050

### 의류학과에서의 1년은 어땠나요?

보통 전과를 하는 경우 이전 전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정말 좋았어요. 제가 오고 싶어서 선택한 학교였기 때문에 열심히 다녔고 과대표도 맡을 정도였으니까요. 공부일촌, 이뤘고-교학상장 등에 참여하면서 학과 교수님들과도 무척 가깝게 지냈죠. 전과 지원서에 교수님 직인이 필요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안고 갔는데 서운해 하시면서도 '넌 잘 할 거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전과를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도 '너한테 그게 더 맞을 것 같다'고 해줬어요.(웃음)

### 전과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학년 동안 광주청년회나 인터넷 동호회 등 외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과 연령을 가진 멘토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 진로와 꿈에 대해 조언들을 해주셨죠. 이과생이었던 제가 '패션 에디터'를 꿈꾸며 의류학과를 선택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2학기가 되면서 실습수업이 늘어나는 게 버거웠어요. 과제를 작업 때문에 다른 공부나 활동을 할 시간이 거의 없어 정말 힘들었죠. 같은 과 친구들은 밤샘작업도 가까이 즐기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니었거든요.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널리즘 공부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전과를 결심하게 됐어요.'

### 전과를 마음먹고 어떤 준비를 했나요?

신문방송학과는 성적 50%, 면접 50%로 전과생을 뽑아요. 1학기 때부터 체계적으로 학점관리하면서 전과 준비를 한 게 아니라서 면접에서 나를 어필할 만한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학기 때 '현대사회와 매스컴' 같은 신문방송학과 교양수업을 듣고, 글쓰기에 관련된 공모전에도 여러 번 참가했어요. 이는 사람을 통해 전년도에 신문방송학과로 전과한 사람도 만나서 도움을 받았죠. 고등학교 때 썼던 기사와 입학 이후 봉사활동, 학교프로그램 참여, 공모전 참가 등을 넣은 개인 포트폴리오는 준비했어요.

두 번째 선택한 전공, 신문방송학은 만족도 100%다. 타고난 친화력과 적응력 덕분에 동기나 선배들과도 금세 가까워졌다. 오리엔테이션, MT, 소모임, 워크숍은 다 참여하고 교수님, 선배들과 유렵으로 세계교육기행도 다녀왔다. 전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난 6월에는 영호남시민영상페스티벌에서 우수상도 받았다. 전공공부가 재미있어서 3,4학년 수업까지 듣는다. 전공도 살리고 인맥도 쌓기 위해 8월부터는 광주시청대학생기자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 교수님들이 왜 민주 학생을 뽑았을까요?

아마 열정 때문이에요(웃음) 학점이 높질 못해서 사실 좀 불안했어요. 거기에 오는 학생들은 거의 4.0이상이거든요. 2명을 뽑는데 10명 정도가 와서 더 불안했죠. 내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얼마나 이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 열정을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나는 이 학과에 정말 오고 싶다'는 걸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렸거든요. 포트폴리오는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 전공을 바꾸고 난 뒤 달라진 건 무엇인가요?

그전에도 활달한 성격이었지만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보통 전과생들은 적응이 힘들다고들 하는데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동기나 선배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렸다고 봐요. 다행히 선배, 동기들이 많이 도와줘서 정말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패션 에디터 대신 저널리즘 교수라는 새로운 꿈도 갖게 됐어요. 확실한 목표가 생기니까 공부가 더 재미있어요. 진심으로 만족하는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웃음)

### 전과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일단 자기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했으면 해요. 전과는 딱 한번밖에 못하는 거니까. 저도 또 한 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조언을 들었고 그 학과 수업을 미리 들어보면서 정말 나에게 맞는 학과인지 고민해 봤습니다. 일단 마음을 굳혀서 전과를 목표로 집었다면 첫째, 학점은 철저히 관리하세요. 둘째, 전과를 희망하는 학과의 수업을 꼭 듣고 관련 공모전에도 참여하세요.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자기의 열정을 충분히 어필하세요. 전과는 자기 안의 가능성과 재능을 조금 늦게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전공의 즐거움도 맛보고 새로운 꿈도 꾸게 되길 바랍니다.

# “월드클래스 전남대학교 교육의 수준이 다르다”

## 글로벌·통섭교육

월드클래스 전남대학교는 인류의 미래를 창조해갈 글로벌인재를 키우기 위해 국제 교육과 통섭인재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수한 교육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은 따뜻한 인류애와 도전의 진취성을 겸비한 참인재로 커간다.

###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선정

세계 지성을 만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전남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 선정에서 6개 과제가 채택되어 전국대학 중 최다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식물의 세포신호전달경로 분석 연구의 권위자인 미국 버클리대학 Sheng Luan 교수 등 노벨상급 해외석학 10명이 전남대학교에서 공동연구와 강의를 진행한다.

### 글로벌교육으로 통섭·휴먼 리더 양성

통섭·휴먼 리더 키우는 알찬 교육 전남대학교는 2008년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학생들의 학문적 성장을 돕기 위해 '알찬교육, 성공예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초년생교육, 총장명예학생 프로그램, 기초·핵심 교양교육 강화, 양방향 국제교류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고 있다.

### 따뜻한 인류애로 세계와 소통하는 교육

봉사와 도전정신은 리더의 기본 다양한 리더십프로그램을 통해 가슴 따뜻한 리더의 역량을 기르고 있다. 4년 연속 대학생 헌혈 전국 1위, 인도네시아·네팔 등지의 국외봉사활동, 가출청소년 멘토 활동,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도우미 등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희생정신을 배운다.

# 01

# 02

## 알찬 교육

전남대학교는 '알찬 교육, 성공 예감'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우수대학을 향한 알찬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다. 잠재력을 깨우고 기초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열정이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

### 학과 중심 기초핵심교육 강화

학과 중심의 '이해! 학습공동체'는 동료 간 학습모임인 <공부일촌>, 선후배와 함께 공부하는 <한울학습>, 교수와 신입생이 전공을 탐색하는 <이뤘고-교학상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창조적·도전적·협력적 학습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 대학생활 설계 합격생 영어캠프

예비대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대학생활을 알차게 설계할 수 있도록 매년 '합격생 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전공분야 전담교수와 교육조교가 함께 참여하고, 선배동문의 취업특강을 통해 취업이나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차세대 리더 총장명예학생 프로그램

전공영역을 뛰어넘는 학문횡단형 특별교육프로그램인 총장명예학생제도(President Honor Students)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뽑아 자율전공학부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 철학, 경제, 공학 등 다양한 학문을 접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대를 대표하는 인재로 키운다.

### 큰그릇 전남대생 육성프로그램 운영

학생리더십프로그램, 기획능력 향상 및 공동체역시 형성 프로그램, 초년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03

## 국제화 프로그램

‘내보내는 국제화’와 ‘불러들이는 국제화’를 동시에 실현하여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를 키운다.

현재(2010.4.1 기준) 36개국 85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전남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학생들도 세계 각국의 자매대학에서 수학중이며 국제봉사를 통해 인류애를 확인하고 있다.

### 외국어 능력 캠퍼스에서 키우기

- 언어교육원 교양영어 기초영어, 생활영어, 생활영어2, 영문강독, 취업영어
- 영어영문학과 고급영어
- 초년생 하계 외국어 캠프 국외연수 없이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키우고, 국제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 국제여름학교에서 국제감각 익히기

전국대학, 해외자매대학, 동포대학생을 대상으로 고급해외연수를 체험할 수 있는 ‘국제여름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전남대 학생들은 자매대학 교수들의 전공강의를 외국인 학생들과 한 강의실에서 받게 된다.

### 연간 1,500명이 세계 속으로

- 자매결연 세계 29개국 168개 대학과 교수 및 학생교류
- 복수학위제 자매대학과 전남대학교에서 동시에 2개 학위 취득 가능
- 1학년 국제화과정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에 영어권, 중국어권으로 파견 연수

### 아름다운 국제봉사로 지구공동체 실현

- 세계교육기행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해외문화체험 지원
- 봉사활동 키부츠 등 워크캠프와 봉사단체 활동 참여 지원
- 현장실습 외국대학, 기업체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의 현장실습 활동 지원

## 장학 프로그램

전남대학교는 약 59%의 재학생들에게 연간 325여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립대학으로서 저렴한 등록금과 폭넓은 장학혜택으로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도전·도약 장학금

기존 학업성적 위주의 장학금 지원을 지양하고 발전가능성과 비전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한다.

#### ● 도전 장학생(내국인)

도전정신이 투철하고 진취적인 학생을 선발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신입생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 ● 도전 장학생(외국인)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적극적인 학교생활과 다양한 학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질 높은 유학생활을 하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

#### ● 도약 장학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서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잠재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풍부한 장학제도

학생들의 형편과 요구에 맞추어 폭넓은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 각종 대회 수상, 인턴 및 현장실습 등을 선발기준에 포함하고 단과대학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 ● 교내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법정 장학금, 후생복지 장학금, 대학지원 장학금, 근로 장학금, 교육조교 장학금, 발전기금재단 장학금, 단과대학 장학금, 특성화사업단 장학금 등 총 80여 종

#### ● 교외 장학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장학재단 장학금(동원장학, 대신장학, 우봉장학,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장학, 정수장학, GS칼텍스장학 등) 총 100여 종

### 신입생에 대한 장학금·생활관비 파격 지원

#### ● 4년간 등록금과 생활관 관리비 100% 면제

- 인문계열 : 언어, 외국어, 사탐 2과목 각각 2등급 이상인 자
- 자연계열 : 수리 '가' 2등급 이상, 과탐 3과목 2, 2, 4등급 이상 또는 2(과탐 II), 4, 4등급 이상인 자

#### ● 4년간 등록금 및 생활관 관리비 각 50% 면제

- 자연계열 : 수리 '가' 3등급 이상, 과탐 2과목 3등급 이상인 자

#### ※ 직진학기 평점 3.75 이상 유지

#### ※ 의대, 수의대, 약대, 간호대, 사범대, 추가합격자 제외

# 04

# 05

## 취업지원

자아탐색을 통한 진로설계를 시작으로 취업캠프, 기업체 현장실습,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키운다.  
신입생부터 독서를 통해 창의성과 기초소양을 기르고,  
고학년은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켜 기업 핵심인재로 양성한다.

### 조기 진로탐색 및 직업 기초능력 강화

초년생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다원적인 진로탐색을 하도록 도와준다.  
조기 진로탐색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로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API 직업 적성 탐색 프로그램과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 구직능력 함양 프로그램 실시

3,4학년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무적성검사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커리어 우먼스쿨, 차세대 이공계 CEO양성을 위한 미니 MBA교육, 외국어 집중강좌 등과 역량면접 스킬 강화 프로그램AP, 토론면접, 직무 적합성 평가 면접)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취업정보 제공

현장 경험을 통해 직업적성을 찾고 실무지식을 습득하면서 사회 적응력을 키우는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선호도가 높은 기업들의 채용설명회를 유치하고, 동문 기업체 발굴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또 취업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취업가이드 및 취업정보지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 취업포털 및 학생경력관리시스템 운영

각종 취업 프로그램 일정과 구인정보를 게시하고, 선배들의 취업 후기를 통해 성공취업 노하우를 제공하는 취업포털 사이트를 운영한다.  
학업·여학생적은 물론 인턴십, 공모전, 봉사활동, 해외연수 등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의 선발 경향에 맞춰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활동기록부'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대학교에는  
17개 단과대학과  
89개 학과(부)가 있습니다  
'CNU 행복한 강의실'은  
그중 47개 학과(부)의  
전공이야기를  
담고있습니다.

본부직할학부  
자율전공학부  
생명과학기술학부  
간호대학  
간호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제학부  
공과대학  
건축학부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에너지지원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전자컴퓨터공학부  
응용화학공학부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산업공학과  
전기공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명공학부  
산림자원학부  
조경학과  
응용생물공학부  
동물자원학부  
바이오에너지공학과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농업경제학과  
법과대학  
법학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지리교육과  
역사교육과  
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신문방송학과  
지리학과  
인류학과  
행정학과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부  
예술대학  
음악학과  
국악과  
미술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일언어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지구환경과학부  
생물학과  
화학과  
공학대학(여수)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부  
냉동공조공학과  
건설·환경공학부  
생명·화학공학부  
건축학과  
응용수학과  
문화사회과학대학(여수)  
국제학부  
경상학부  
문화콘텐츠학부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수산해양대학(여수)  
해양기술학부  
식품공학·영양학부  
수산생명의학과  
해양경찰학과



전남대학교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TEL\_ 062)530-5114  
FAX\_ 062)530-1189  
http://www.jnu.ac.kr